

발 간 등 록 번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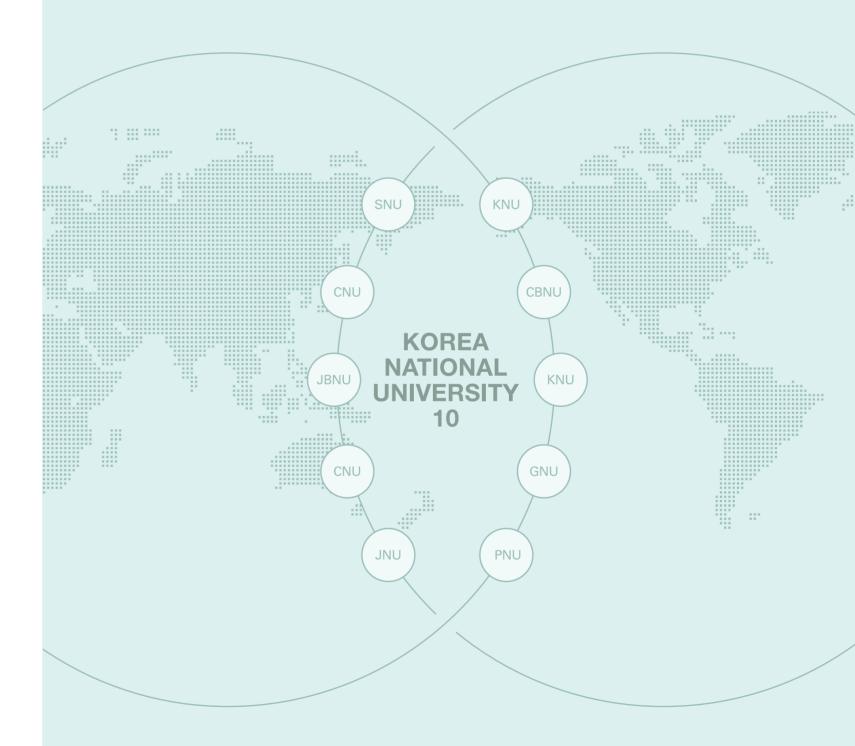
11-7000126-000051-08

ISSN 2635-411X



대한민국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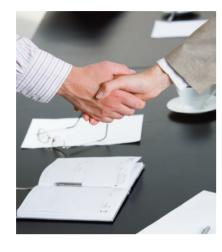
MAY 2021 Vol.13



「Korea NU10 Magazine」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개 국가거점국립대학교가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발행일 2021년 5월 27일(통권 제13호) 발행인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제 작 굳디자인연구소(T. 051-796-6600)

"Korea NU10 Magazine』 is a newsletter issued by 10 national universities representing Korea. Date of issue 27/05/2021 (Vol.13) Publisher The President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Production Good Design Institute (T. 051-796-6600)



#### 인사말 PRESIDENT'S REMARKS

04

대학 경쟁력 강화!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Strengthen University Competitiveness! We All Have Roles



#### K-NU10 포커스 K-NU10 FOCUS

06

경상국립대학교 출범, 국립대학 통합 롤모델 되나 Launching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Would be a Role Model for National University Merger?

10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확대와 지역균형 뉴딜정책 Expanding the Obligation to Hire Local Talent in Public Institutions and Balanced

Regional New Deal Policies

13

지역 혁신성장의 심장, 「캠퍼스 혁신파크」 The heart of regional innovation growth, 「Campus Innovation Park」

####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17

국가거점국립대의 역할과 발전 방향 Roles and Directions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22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24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6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28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30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32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34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36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38

경상국립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40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NU10 소개 INTRODUCTION TO KOREA NU10

42

Introduction to Korea NU10

인사말 President's Remarks

대학 경쟁력 강화!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Strengthen University Competitiveness! We All Have Roles



송석 언 Seok-Eon Song Ph.D.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 제주대학교 총장

Seok-eon Song, President of Jeju National University and Chairman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s' Council 국가거점국립대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기 위한 Korea NU10 Magazine이 올해 들어두 번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싱그러운 생동감과 활기가 넘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하루 빨리 되찾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각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대학 경쟁력을 기능하는 절대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수 신입생 확충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나 지원이 필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는 매주 원격회의를 개최하면서 대학의 현안 사항 뿐만 아니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수 신입생 유치,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대학과 지역혁신 주체 간 협업 강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확대, 국립대학법과 국립대학 재정지원 법제화, 정부재정지원 방식 개선, 거점국립대학 간 교류 및 소통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교류와 소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거점국립대학 가족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It is the second time this year that Korea NU10 Magazine has published dynamic news from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 hope that we can regain healthy and beautiful campuses full of vitality as soon as possible.

Recently, the recruitment rate of new students at each university has emerged as a hot topic due to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which is being used as an indicator of university competitiveness. This is also why differentiated strategies and support is needed to expand the number of incoming freshmen.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s' Council, which holds weekly teleconferences, is making strong efforts to strengthen the university's competitiveness as well as resolve pending issues.

Current issues include attracting top-tier freshmen, fostering new technology talent,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innovative organizations, expanding the ratio of local talent in public institutions, legislating national university law and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improving the method of government support and strengthening exchanges and communication among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Many of the issues are seeing considerable achievement.

Social distancing due to COVID19 is being prolonged, and it is now, more than ever, time for exchange and communication. I look forward to vigorous communication and support from the community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Korea NU10 MAGAZINE

## K-NU10 Focus

#### Focus 1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해 경 상국립대학교로 새롭게 출범했다. 인구감소로 인 한 대학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 스스로가 선택한 이번 통합의 의미와 특징을 알아 봤다.

#### Focus 2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가 공공기관 지역인 재 채용의무제를 50%까지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 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개선이 한국판 '지 역균형 뉴딜정책'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는 당위성 을 살펴봤다.

#### Focus 3

대학의 유휴 교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캠퍼스 혁신 파크 사업. 이 사업에 선정된 강원대학교로부터 향후 계획과 사업 기대효과 등을 들어봤다.

#### Focus 1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nd Kyu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erged to launch the new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We looked into the characteristics and impact of the university's choice to integrate, proactively responding to a university crisis caused by the population decline.

#### Focus 2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s' Council is actively pushing to revise laws aimed at expanding the obligation to hire local talent at public institutions by 50%. In this issue, we looked into the expectation that the improvement of this system would be the starting point for the Korean version of the Balanced Regional New Deal.

#### ocus 3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aims to foster universities to become a base for innovative growth by establishing idle school sites of universities as high-tech industrial complex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hich was chosen for this project has shared their future plans and expectations.



K-NU10 포커스 K-NU10 Focus 6 Korea NU10 MAGAZINE

#### K-NU10 FOCUS 1

## 경상국립대학교 출범, 국립대학 통합 롤모델 되나

Launching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Would be a Role Model for National University Merger?



김상민 경상국립대학교 기획처장 Kim, Sang Min Dean of Planning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경상국립대학교가 2021년 3월 1일 출범했다. 경상국립대는 옛 경상대학교와 경 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한 국가거점국립대학교이다. 경상국 립대는 경남 진주시에 대학본부가 있으며 1대학 5캠퍼스 체제로 운영된다. 캠퍼 스는 각각 경남 진주시 가좌동, 칠암동, 내동과 통영시, 창원시에 위치한다.

경상국립대의 통합은 2021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 결과와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신입생 모집 결과 4년제 162개 대학에서 2만6129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미충원 인원은 지난해에 비하면 2.7배 증가한 것이며 특히 지방대학들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사람들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먼 대학의 위기가 더 심하다는 말을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라는 말로 희화화하여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국립대의 출범은 고등교육에 관심을 갖는 정책 당국과 대다수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was launched on March 1, 2021.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s a newly launched national university that is an integration of the forme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nd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as its university headquarters in Jinju, Gyeongsangnam-do, and operates under the one-university, five campus system. The five campuses are located in Gajwa-dong, Chilam-dong, Naedong, Tongyeongsi, and Changwonsi.

The integration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s receiving very high attention nationwide in connection with the results of the recruitment rate of new students for 2021.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year's recruitment, 162 4-year universities failed to fill a quota of 26,129 students, a 2.7-fold increase from last year. The situation at local universities was particularly serious. Forecasting that the crisis in universities far from the Seoul and Gyeonggi metropolitan area is worse, comments such as "universities will shut down in the order of their cherry blossoms blooming" could be hear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launch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as given a shock to policymakers and the majority of the public interested in higher education.

Above all, the main concern was whether the integration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would serve as a model for other national university mergers. Here, it is necessary to elucidate some features of th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launch.

First, integration was promoted by autonomous will, among university members. In the past,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have pushed for mergers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structural reform policy. This includes most national universities that were integrated around 2010. However, members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nd Gyeongnam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chosen university integration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crisis caused by the population decline.

Second,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was selected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s National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in November 2017 to carry out the task of university integr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university. In fact, libraries, joint laboratories, lifelong education centers, and information technology centers signed agreements



무엇보다 큰 관심거리는 '경상국립대의 통합이 다른 국립대학 통합의 롤모델이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여기에서 경상국립대 출범의 몇 가지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학 구성원들 간의 자율적 의사에 의하여 통합을 추진했다. 과거 우리나라 국립대학들은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에 따라 통합을 추진했다. 2010년 전후로 통합한 대부분의 국립대학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상대와 경남과기대구성원들은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대학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했다.

둘째, 경상국립대는 2017년 11월 교육부의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연합대학 구축을 통한 대학통합'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게 됐는데, 실제로는 양 대 학의 도서관 공동실험실습관 평생교육원 정보전산원 등이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업무적 교류부터 시작했다. 도서관과 정보전산원은 대학통합에 대비하여 시스템 통합을 추진했다. 평생교육원은 수강생을 공동으로 모집했다.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통합 논의를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든 것이다. 셋째, 양 대학의 자발성에 기초한 통합논의는 모든 의사결정 기구에 양 대학을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이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통합 하는 대학은 경상대', '통합되는 대학은 경남과기대'의 위치가 결정되기까지의 모 든 과정은 통합을 추진하는 양 대학의 성실하고 양심적인 위원들의 적극적인 노 력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이후 통합을 주도하는 경상대 측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 여 상호존중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통합을 완성해 갔다. 넷째, 입학 정원을 줄이지 않은 대학 통합이다. 대학이 통합할 경우 교육부는 정 원을 감축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했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학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통합을 추진한 것이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전 국 대학들에 정원감축을 요구했다. 하지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3만6,100 여 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했는데 지방대에서 2만8,400명(78.5%)이 줄었다. 반면 에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 비중은 늘어났다. 경상국립대의 2021년 입학정원은 4,313명으로 서울대를 제외하면 국가거점국립대학 중 3위에 해당한다.

for collaboration. The library and the Center for IT started system integration in preparation for the university merger. The Lifelong Education Centers recruited students jointly. This enabled the universities to start discussions for integration immediately, omitt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unified university system.

Third, the discussion of a merger based on the representation of both universities was made possible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same number of members representing both universities in all decision-making bodies. Until the decision was made to have Gyeongnam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erge int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o form a new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ducation's guidelines, the entire process was carried out through the active efforts of sincere and conscientious members from both universities. Since the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which led the integration, has taken this into account and completed the integration maintaining consistent principles of mutual respect and democracy.

Fourth, the universities pushed for integration without reducing the enrollment quota. In the past, universities were merged with the precondition of reducing the student quota, as sugges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integration was promoted as part of the structural reform of universities 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Education Ministry called on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to cut their quota as a precondition for financial support. This led the number of new students decreasing by 36,100 from 2008 to 2013, down to 28,400 (78.5%) from local universities. On the other hand, the quota of univers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s increased.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s admission quota is 4,313(2021), ranking third among national universities outsid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Fifth, restructuring efforts withi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s bearing fruit. In order f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o succeed, it must successfully promote the integration of similar and redundant departments and colleges. The merger of similar and redundant departments by February 2022 and the colleges by February 2023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ublic first, private later." The first principle is the development of the entire university. Next is the department and

K-NU10 포커스 K-NU10 Focus 8 Korea NU10 MAGAZINE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사·중복 학과와 단과대학의 통폐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야 한다. 2022년 2월까지 추진될 유사·중복 학과와 2023년 2월까지 추진될 단 과대학의 통폐합 작업은 '선공후사'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가장 우선되는 원칙은 전체 대학의 발전이다. 그 다음은 학과, 그 다음은 개인이다. 이런 작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경상국립대는 직접적인 통합 지원 경비 300억원, 실질적 구조개혁과 이에 따르는 단과대학·학과 이전 경비등 최소 500억원 이상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섯째, 경상국립대는 대학 교명에 '국립'을 사용한 최초의 대학이다. '시립', '도립'대학들은 다수 존재하지만 대학 교명에 공식적으로 '국립'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국립대학들에게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을 진행 중인 일부대학과 기존의 국립대학 중 교명의 인지도가 낮다고 판단하는 대학들이 '국립'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대와 한국복지대가 교육부에 신청한 교명은 '경인 국립대학교' 또는 '경기국립대학교'이다.

다섯째, 경상국립대 내부의 구조조정 노력이 결실을 맺은 점이다. 경상국립대가

경상국립대의 출범을 전후로 국내 국공립대학들의 통합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 져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 논의가 세상에 알려졌다. 부산교대 학생과 동문회의 반대 기류가 형성돼 있어서 향후 일정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에서도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

then the individual. In order for such work to be carried out as planned, groundbreaking financial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essential.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s asking for 30 billion won for direct integration support expenses and at least 50 billion won for substantial structural reform and subsequent expenses for a university and department merger.

Sixth,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s the first university to use 'national' in its Korean title. There are many "city" and "provincial" universities, but it is expected to have a tangible impact on other national universities by officially using "national" in its Korean title. Among universities that are undergoing integration, and existing national universities with low public profile, some are expected to apply "national" to their university names. Hankyung University and the Korea Welfare University applied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the name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r "Gyeonggi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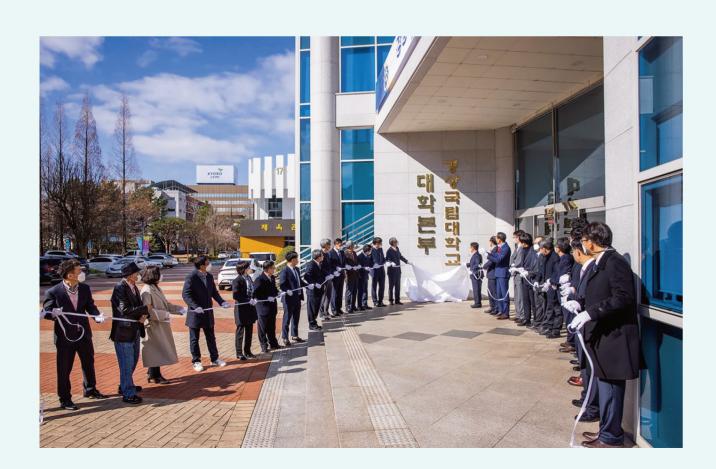
Before and after the launch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iscussions on the integration of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in Korea are more and more numerous. Most recently, discussions on the integration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and Busan University of Education have become well known. Students and the alumni association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oppose this idea, an as such, further attention will be given on which direction this discussion may go. Integration discussions are also reportedly underway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려졌다. 역시 일부 구성원이 반대하고 있다. 한경대와 한국복지대학의 통합 논의는 꽤 많이 진척되었다. 1월 18일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머지않아통합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지역에서도 국립대학 간의 통합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국립대학의 통합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표면적으로는 경상국립대의 출범에 영향을 입은 모양새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입학자원 감소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통합을 통하여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립대학들이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는 방법, 양 대학의 부속기관의 업무교류를 통한 대학 통합 등의 전략적 모델을 경상국립대에서 찾으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타 대학에서 경상국립대에 통합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보내오고 있다. 경상국립대 모델이 성공을 거두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알수 있다. 통합 경상국립대의 출범은 단순히 한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이 입학 자원 감소라는 위기로 인해 선택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선택한 탁월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Gangneung Wonju University. Some members there are against it as well. Discussions on the integration of Hankyung University and Korea Welfare University have progressed considerably. They submitted an application for integration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January 18, and it is expected the integration will be completed soon. It is also reported that discussions on integration between national universities are being held behind the scenes in North Jeolla Province.

Apparently the launch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eems to have impacted other discussions on the mergering of national universities, but the true internal reason behind this is the expected decrease of school age population.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national universities seeking to overcome the crisis of local universities through university integration will us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s a strategic model to find answers for obtaining consent from members and communities and building collaboration between institutions under each university. Already, many universities have sent questions about integration t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t shows that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is essential for th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model to succeed. The launch of the integrated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s not just a local national university pushed forth forcibly due to the crisis of declining admission resources, but is in fact an excellent policy, chose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higher education.





K-NU10 포커스 K-NU10 Focus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사·중복 학과와 단과대학의 통폐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야 한다. 2022년 2월까지 추진될 유사 중복 학과와 2023년 2월까지 추진될 단 과대학의 통폐합 작업은 '선공후사'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가장 우선되는 원칙 은 전체 대학의 발전이다. 그 다음은 학과, 그 다음은 개인이다. 이런 작업이 계획 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경상국립 대는 직접적인 통합 지원 경비 300억 원, 실질적 구조개혁과 이에 따르는 단과 대학 학과 이전 경비 등 최소 500억 원 이상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섯째, 경상국립대는 대학 교명에 '국립'을 사용한 최초의 대학이다. '시립', '도립' 대학들은 다수 존재하지만 대학 교명에 공식적으로 '국립'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국립대학들에게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을 진행 중인 일부 대학과 기존의 국립대학 중 교명의 인지도가 낮다고 판단하는 대학들이 '국립'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대와 한국복지대가 교육부에 신청한 교명은 '경인

다섯째, 경상국립대 내부의 구조조정 노력이 결실을 맺은 점이다. 경상국립대가

경상국립대의 출범을 전후로 국내 국공립대학들의 통합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 져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 논의가 세상에 알려졌 다. 부산교대 학생과 동문회의 반대 기류가 형성돼 있어서 향후 일정은 좀더 지 켜봐야 한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에서도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

국립대학교' 또는 '경기국립대학교'이다.

then the individual. In order for such work to be carried out as planned. groundbreaking financial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essential.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s asking for 30 billion won for direct

profile, some are expected to apply "national" to their university names. Hankyung University and the Korea Welfare University applied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the name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r "Gyeonggi National University."

Before and after the launch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iscussions on the integration of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in Korea are more and more numerous. Most recently, discussions on the integration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and Busan University of Education have become well known. Students and the alumni association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oppose this idea, an as such, further attention will be given on which direction this discussion may go. Integration discussions are also reportedly underway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integration support expenses and at least 50 billion won for substantial structural reform and subsequent expenses for a university and department merger. Sixth,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s the first university to use 'national' in its Korean title. There are many "city" and "provincial" universities, but it is expected to have a tangible impact on other national universities by officially using "national" in its Korean title. Among universities that are undergoing integration, and existing national universities with low public

려졌다. 역시 일부 구성원이 반대하고 있다. 한경대와 한국복지대학의 통합 논의 는 꽤 많이 진척되었다. 1월 18일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머지않아 통합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지역에서도 국립대학 간의 통합 논의가 물밑 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Korea NU10 MAGA7INF

국립대학의 통합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표면적으로는 경상국립대의 출범에 영 향을 입은 모양새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입학자원 감소 때 문이다. 따라서 대학 통합을 통하여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립대학들 이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는 방법, 양 대학의 부속기관의 업무교류를 통 한 대학 통합 등의 전략적 모델을 경상국립대에서 찾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 제 타 대학에서 경상국립대에 통합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보내오고 있다. 경상 국립대 모델이 성공을 거두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통합 경상국립대의 출범은 단순히 한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이 입학 자원 감소라 는 위기로 인해 선택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한 탁월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Gangneung Wonju University. Some members there are against it as well. Discussions on the integration of Hankyung University and Korea Welfare University have progressed considerably. They submitted an application for integration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January 18, and it is expected the integration will be completed soon. It is also reported that discussions on integration between national universities are being held behind the scenes in North Jeolla Province.

Apparently the launch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eems to have impacted other discussions on the mergering of national universities, but the true internal reason behind this is the expected decrease of school age population.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national universities seeking to overcome the crisis of local universities through university integration will us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s a strategic model to find answers for obtaining consent from members and communities and building collaboration between institutions under each university. Already, many universities have sent questions about integration t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t shows that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is essential for th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model to succeed. The launch of the integrated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s not just a local national university pushed forth forcibly due to the crisis of declining admission resources, but is in fact an excellent policy, chose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higher education.





K-NU10 포커스 K-NU10 Focus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사·중복 학과와 단과대학의 통폐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야 한다. 2022년 2월까지 추진될 유사 중복 학과와 2023년 2월까지 추진될 단 과대학의 통폐합 작업은 '선공후사'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가장 우선되는 원칙 은 전체 대학의 발전이다. 그 다음은 학과, 그 다음은 개인이다. 이런 작업이 계획 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경상국립 대는 직접적인 통합 지원 경비 300억 원, 실질적 구조개혁과 이에 따르는 단과 대학 학과 이전 경비 등 최소 500억 원 이상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섯째, 경상국립대는 대학 교명에 '국립'을 사용한 최초의 대학이다. '시립', '도립' 대학들은 다수 존재하지만 대학 교명에 공식적으로 '국립'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국립대학들에게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을 진행 중인 일부 대학과 기존의 국립대학 중 교명의 인지도가 낮다고 판단하는 대학들이 '국립'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대와 한국복지대가 교육부에 신청한 교명은 '경인

다섯째, 경상국립대 내부의 구조조정 노력이 결실을 맺은 점이다. 경상국립대가

경상국립대의 출범을 전후로 국내 국공립대학들의 통합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 져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 논의가 세상에 알려졌 다. 부산교대 학생과 동문회의 반대 기류가 형성돼 있어서 향후 일정은 좀더 지 켜봐야 한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에서도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

국립대학교' 또는 '경기국립대학교'이다.

then the individual. In order for such work to be carried out as planned. groundbreaking financial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essential.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s asking for 30 billion won for direct

profile, some are expected to apply "national" to their university names. Hankyung University and the Korea Welfare University applied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the name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r "Gyeonggi National University."

Before and after the launch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iscussions on the integration of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in Korea are more and more numerous. Most recently, discussions on the integration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and Busan University of Education have become well known. Students and the alumni association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oppose this idea, an as such, further attention will be given on which direction this discussion may go. Integration discussions are also reportedly underway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integration support expenses and at least 50 billion won for substantial structural reform and subsequent expenses for a university and department merger. Sixth,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s the first university to use 'national' in its Korean title. There are many "city" and "provincial" universities, but it is expected to have a tangible impact on other national universities by officially using "national" in its Korean title. Among universities that are undergoing integration, and existing national universities with low public

려졌다. 역시 일부 구성원이 반대하고 있다. 한경대와 한국복지대학의 통합 논의 는 꽤 많이 진척되었다. 1월 18일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머지않아 통합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지역에서도 국립대학 간의 통합 논의가 물밑 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Korea NU10 MAGA7INF

국립대학의 통합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표면적으로는 경상국립대의 출범에 영 향을 입은 모양새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입학자원 감소 때 문이다. 따라서 대학 통합을 통하여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립대학들 이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는 방법, 양 대학의 부속기관의 업무교류를 통 한 대학 통합 등의 전략적 모델을 경상국립대에서 찾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 제 타 대학에서 경상국립대에 통합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보내오고 있다. 경상 국립대 모델이 성공을 거두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통합 경상국립대의 출범은 단순히 한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이 입학 자원 감소라 는 위기로 인해 선택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한 탁월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Gangneung Wonju University. Some members there are against it as well. Discussions on the integration of Hankyung University and Korea Welfare University have progressed considerably. They submitted an application for integration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January 18, and it is expected the integration will be completed soon. It is also reported that discussions on integration between national universities are being held behind the scenes in North Jeolla Province.

Apparently the launch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eems to have impacted other discussions on the mergering of national universities, but the true internal reason behind this is the expected decrease of school age population.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national universities seeking to overcome the crisis of local universities through university integration will us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s a strategic model to find answers for obtaining consent from members and communities and building collaboration between institutions under each university. Already, many universities have sent questions about integration t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t shows that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is essential for th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model to succeed. The launch of the integrated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s not just a local national university pushed forth forcibly due to the crisis of declining admission resources, but is in fact an excellent policy, chose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higher education.





Korea NU10 MAGAZINE K-NU10 포커스 K-NU10 Focus

#### K-NU10 FOCUS 2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확대와 지역균형 뉴딜정책

**Expanding the Obligation to** Hire Local Talent in **Public Institutions and Balanced Regional New Deal Policies** 



김석수 부산대학교 기획처장 Kim Seok-soo Dean of Planning at



중앙정부가 2021년을 '지역균형 뉴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하였다. 지역균 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것으로 지역을 새롭게(new), 균 형 있게(balanced) 발전시키겠다는 약속(deal)이다. 지역균형 뉴딜의 정책목표는 지역경제혁신, 지역의 삶의 질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이다. 이를 위한 4가지 중점 추진방안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실행,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의 확산 지원, 공 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지원,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 조 성이 핵심이다. 총투자규모 160조 원 중에서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75조 원 이상 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역균형 뉴딜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 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범부처 및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 징 중의 하나이다.

The central government has declared that 2021 will be the first year of a "Balanced Regional New Deal." The Balanced New Deal is a regional expans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 a promise to develop the region in a modern, balanced manner. The policy goals of the balanced regional New Deal are regional economic innovation, improved quality of life in the reg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four main ways to promote this are to implement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support the spread of local government-led New Deal projects, support the promotion of leading New Deal projects, and create a sustainable balanced New Deal ecosystem. Of the total investment of 160 trillion won, more than 75 trillion won is known to be invested in balanced regional New Deal project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lanced regional New Deal is being jointly promoted by all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such as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예컨대, 국토교통부는 중장기 정책으로 구현된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과 함 께 혁신도시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한다. 지자체의 이전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혁신플랫폼 을 구축하고, 지역대학과 산업계 등과 협력하여 특화 학과의 개설 및 교육을 통 하여 지역균형 뉴딜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국가균형발전 이라는 화두에 걸맞은 정책이자 사업추진 방식이다.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중심 으로 전환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와 지향성이 엿보인다.

그러나,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균형 뉴딜 정책의 대다수는 예상 총투자 규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방대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 이 전제가 돼야 한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것으로 사뭇 기대되는 지역균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 정책 말고는 다른 묘책은 없을까?

최근 언론을 통해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확대 개선'에 대한 소식을 심 심찮게 접하게 된다.

기존의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지역 이전 공공기관은 해당 소재지의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세부적으로 지역 이전 공공기관은 2018년 18% 의 무채용 비율로 시작하여 2022년까지 30%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지켜야 한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경우는 2022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30% 공공기관 채용의무비율을 상회하여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달성 수준은 지역마다 제각각이며, 공 공기관 역시 지역인재 채용의무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존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는 혁신도시법상 의 이전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가 해당 '이전 지역'에만 국한되 었다. 이로 인하여 지역 이전 공공기관이 목표 채용비율 30%를 달성하기에는 우 수한 인재풀 확보에 애로를 겪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지역인재 30%(2022년 목표) 의무채용비율을 50%로 늘리 되 '30%(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인재) + 20%(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인재) 비율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 회에 발의됐다. 이 법률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우수인재 확보 등 제 문제를 해결 하고 정책 도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진일보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 각이다.

One example of this cooperation i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long with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of innovative cities operating under mid- to long-term policies, collaborating with other related entities such as local government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It is a method of building innovation platforms based on local governments'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and innovative cities, and pursuing the goal of balanced regional New Deal talent developm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ongoing education of specialized departments in cooperation with local universities and industries. It is a policy that matches the topic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ith a method of implementing projects. It shows the central government's willingness and determination to shift the axis of national development to regional centers.

11

However, the majority of the balanced regional New Deal policies promoted by pan-ministerial projects is premised on a massive fiscal spending expansion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indicated by the projected total investment. In order to successfully complete a balanced regional New Deal that is expected to revive the local economy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is there no other trick besides a fiscal spending expansion policy?

We have recently heard a lot of news about the "improvement of the obligation to hire local talent in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existing Innovative Cities Act, local public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hire local talent. In detail, public institutions that move to a specific region start with an 18% mandatory employment rate beginning in 2018 and move to a 30% mandatory employment rate by 2022. Currently, some regions, including Busan, employ local talent exceeding the 30% mandatory employment ratio of public institutions, which will be required by 2022.

However, varients in the level of achievement of mandatory recruitment of local talent by public institutions is being reported, and that public institutions have not maximized the positive effect of the mandatory recruitment system. The existing obligation to hire local talent in public institutions was limited to the relevant region that the public institution moves in to, under the Innovative Cities Act. As a result, local relocation public institutions had a hard time securing the exceptional talent needed to achieve their target employment ratio of 30%.

In the meantime,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a revision to the Innovative City Act, which calls for an increase of the mandatory employment ratio to 50%, of which 30% is from schools in the relocation region, and 20% is from schools in other non-capital areas. The revision of the law is thought to be a good alternative to solving problems such as securing sufficiently talented people and furthe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troduced policies.



12 K-NU10 포커스 K-NU10 Focus

이 같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전 지역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풍부한 인재풀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지역 간에도 우수한 인재의 교류가 활 발히 이루어질 수 있어서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또한 대표적인 취업 선호 대상인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희망과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지역대학은 우수한 신입생 유치 및 대학 경쟁력의 확보가 용이해 진다.

예컨대, 부산지역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남대학교 졸업생이 지역인재 (20%) 채용의무제의 적용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전남지역 한국 전력공사에는 부산대학교 졸업생이 지역인재(20%) 채용의무제의 적용을 받고 취업에 우선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지키면 서 다양한 지역의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지역대학도 해당 지역 이외 타 지 역에 이전한 다양한 공공기관에 졸업생을 취업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 게 된다. 지역인재에게 기회의 창이 넓어진다. 지역대학과 지역에 하나 둘 사람 이 모이고, 지적자산과 인적자산이 넘쳐나고, 지역혁신과 교류발전을 선도할 집 단지성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전국의 지역대학이 대혼란에 빠져 있다.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다고 아우성이다. 지역의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일부 국립대학도 목 표하는 신입생 충원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과도한 수도권 집 중, 지역의 일자리 부족, 지역대학과 지역의 소멸 현실화,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모든 정책이 만병통치약이 되는 경우는 없다. 이 질병에도 통하고 저 질병도 치 유하는 그런 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의 확대 및 개선이 이전 지역의 대학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도권 지역 학교에는 손해가 된다는 인식도 있을 것이다. 자유경쟁 원리에 위배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이라는 사회현상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인적자원, 물적자원, 금융자원, 정보자원 등을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하나 도 남김없이 빨아들이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확대 및 개선과 같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정책은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황폐하 고 불 꺼진 지역을 방치한 채 야경 찬란한 수도권만 바라보고 가꾸며 살아갈 순 없다. '건강한 지역'이 글로벌 도시 수도권과 대한민국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기억 해야하다.

막대한 재정지출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 한국판 지역균형 뉴딜 정책의 성공 사 례를 보고 싶지 않은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50%(30%+20%) 확대' 를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자. 제도개선 하나가 지역대학과 지역이 웃음 지 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If the system is improved, the local public institutions which are relocating will be able to secure the abundant talent pool they require, while at the same time actively exchange talent between regions, which will greatly help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local universities will be able to attract top freshmen and secure university competitiveness due to the increased hope and possibility of students getting jobs at public institutions, which are highly preferred for

For example, graduates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an get job preference at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in Busan under the local talent (20%) recruitment obligation system. At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in Jeollanam-do Province, graduates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will be beneficiaries of the local talent (20%) recruitment obligation system and will receive priority in employment. Public institutions will be able to secure talented people in various regions while keeping the obligation to hire local talent. Furthermore, local universities will be able to ensure more opportunities for their graduates to be hired by a range of public institutions that may have moved to other regions. The window of opportunity widens for local talent. People will surely gather in local universities and regions, injecting intellectual and human assets, and the collective intelligence will work to lead regional innovation and exchange development.

Right now, local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are in mayhem. The cynical saying that "universities will begin to shut down in local regions in the order at which their campus' cherry blossoms bloom," is becoming a reality. Some national universities, not only local private universities, have failed to achieve their target recruitment rate. A vicious cycle of decreasing school-age population, excessive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lack of jobs in the smaller regions, realization of the extinction of local universities and neighborhoods, and weak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s becoming a reality. Now this vicious circle needs to be broken.

Not all policies are perfect. There is no such drug that works to bolster a disease and also cures the host of the disease. While the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the target system for hiring local talent in public institutions will help universities in the regions where public institutions relocate to, there will also be a perception that schools in the metropolitan area will be disadvantaged. One might say that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free competition. Howeve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sucking up human resources, material resources, financial resources and information resources in all parts of the country like a black hole due to the ongoing social phenomenon of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area.

Policies that are the cornerston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uch as the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the obligation to hire local talent, should be recognized and promoted as Affirmative Action. We cannot look in awe at the bright ligh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le neglecting the devastated darkness around it.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healthy local regions are the true source of the global urban metropolitan a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as a whole.

Wouldn't it be nice to see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balanced New Deal policy in Korea, where massive fiscal spending is not required? First of all, let's push for a "50% (30%+20%) increase in the obligation to hire local human resources at public institutions."

One system improvement could be the starting point for a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here local universities and regions can grow together.



Korea NU10 MAGAZINE

#### K-NU10 FOCUS 3

## 지역 혁신성장의 심장, 「캠퍼스 혁신파크」

The heart of regional innovation growth, Campus Innovation Park



강원대학교 산학연구부총장 Dr. Choi, Hwang Kyu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Vice President, Industry-University and Research Affairs



####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소개 및 추진배경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 로, 캠퍼스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 사업 공모 당시 전국의 32개 대학에서 제안서를 제출해 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으며, 강 원대는 1차 서류심사에서 9개 대학으로 추려진 후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3개 대학(강원대, 한남대, 한양대ERICA)에 국·공립대학 중 유일하게 이 름을 올렸다.



#### Introduction and background of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13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is a project in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tartups to transform idle sites within universities into an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 At the time of the 2019 project competition, 32 universities nationwide submitted proposals and the competition rate exceeded 10:1.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as selected as one of the nine universities in the first document screening. After the second onsite inspection, Kangwon University was the only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y to be selected for the project out of the of the three universities that were finally chosen (Kangwon University, Hannam University, and Hanyang University ERICA).

The purpose of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is to overcome the crisis in universities and regions caused by the reduction of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centralization of resources to the metropolitan area. Additionally, it aims to realiz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providing regional innovation growth engines. Existing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projects focused on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by utilizing universities' infrastructure. However, the Campus Innovation Park targets for long-term growth by improving occupancy conditions for tenant companies by building new corporate occupancy facilities, providing corporate management support, and organically linking various government projects to start-ups.

K-NU10 포커스 K-NU10 Focus 14 Korea NU10 MAGAZINE 15



강원대 캠퍼스 산학단지' 부지 현황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ampus Industry-Academic Complex' Site Status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보' 조감도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Campus Innovation Park 「Industry-Academic Innovation Hub」 view map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목적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대학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혁신성장동력을 제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 하는 것이다. 기존의 산학협력 사업은 대학이 인프라를 활용해 단기간에 산학협 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캠퍼스 혁신파크는 기업입 주시설 등을 새로 건립해 입주 여건을 개선하여 창업부터 기업경영까지 여러 정 부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지원한다.

####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현황 및 향후계획

강원대는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Open Campus' 발전전략에 기반해 강원대 동문 인근에 '캠퍼스 산학단지' 구축을 계획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캠퍼스 혁신파크에 앞서 조성된 컨테이너 창업단지인 'KNU 스타트업 큐브(K-큐 브)'는 약 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창업동아리실, 코워킹스페이스, 메이커스 페이스 등을 갖추고 있다. K-큐브는 개소 1년만에 학생창업 6건과 강원도 최초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강원대는 K-큐브 를 지역주민과 청소년, 기업들에 적극 개방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 춤형 산학협력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강원도, 육군2군단과 공동 으로 추진한 '강원열린군대' 사업, 춘천시가 주도하는 대학도시·문화도시 사업 등 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지난 1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66,500㎡ 규모의 기존 자연녹지지역(용적률 100%)을 모두 준공업지역(용적률 400%)으로 변경해 최대 4배의 고밀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1단계 사업은 약 50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1 년 하반기에 「산학연혁신허브」를 착공해 지상 8층, 연면적 약 2만2,300㎡ 규모 로, 2023년 5월 준공 및 기업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업무 공간뿐 만 아니라 기업 간 교류가 수시로 이뤄지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150여개의 기업과 지원기관을 유치하고, 일자리 900개를 창출할 것 으로 기대되다

강원대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통해 강원도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바이오, 정밀의료, 디지털치료기기 분야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를 추가로 조성해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와 핵심기술의 기업 이전,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도 추진한다.

####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기대효과

캠퍼스 혁신파크의 성공은 혁신기업과 우수 인력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이들이 흔쾌히 찾아와서 일하고(work), 살고(live), 즐길 수 (play)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반경 3km 이내에 도서관과 스포츠센터, 학생회관, 평생교육원, 박물관 등이 위치해 있어 편리하고 가까운

복지·문화시설을 제공하며, 잘 짜여진 대중교통망과

저렴한 주거·사무공간, 매력적인 거리와 휴양·녹지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 Current status and future plans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Campus Innovation Park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build a "Campus Industry-Academy Complex" near the East Gate based on the "Open Campus" development strategy that aspires to share the excellen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possessed by the university with the local community. This plan has been carried out step by step starting from 2016 to 2019.

'KNU Startup Cube (K-Cube)', a container start-up complex created with a budget of around 5.3 billion won prior to the campus innovation park, consists of a start-up club room, co-working space, and maker space

K-Cube achieved excellent results with six student startups created within the cube and by being designated as the first "new technology startup cluster" in Gangwon-do within one year of open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as focused on actively opening K-Cube to local residents, youth, and businesses. Moreover, it has aimed to utilize the space as a place for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that reflects regional characteristics.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is cooperation include the "Gangwon Open Army" program jointly promoted by Gangwon-do and the 2nd Army Corps, University City and Cultural City project led by Chuncheon City.

In particular,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campus innovation park was designated as a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 in January. Accordingly, all existing natural green areas (100% floor area ratio) of 66,500 m² were transformed to semi-industrial areas (400% floor area ratio). As a result, the university could utilize the area which is 4 times higher in density.

The first phase of Gangwon National University's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is expected to cost around 50.5 billion won. On the second half of 2021, the construction of the  $^{\Gamma}$ Industry-Academic Innovation Hub」 which will be 8 stories high with a total floor area of about 22,300  $\rm m^2$ , is expected to be initiated and is scheduled to finish construction and receive tenants companies on May of 2023. This hub is created not only as a work space, but it will be built to allow for frequent communications between companies. Th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ampus Innovation Park is expected to attract 150 companies and support institutions while creating 900 jobs.

Through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ims to utilize University's strength in connection with Gangwon-do's strategic industry to create a convergence and complex industrial complex in the fields of bio, precision medicine, and digital medical devices based on big data. In the fu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build 'Digital Therapy Device Development Support Center' to support industry-academia joint research, transfer core technologies, and discover overseas market. It also intends on being designated as special regulation-free zones for telemedicine and Innopolis Innotown.

#### Expected effects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ampus Innovation Park

The success of the Campus Innovation Park will depend on its ability to attract innovative companies along with talented workers. The key i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employees are willing to work, live, and play.

Th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ampus Innovation Park is located within a 3km radius of the Central Library, BaeckRyung Sports Center, Student hall, Institute of Life-long Education, and University Museum. Additionally, it consists of a well-organized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s, inexpensive residential and office spaces, attractive streets, and recreation and green spaces. The close vicinity of these convenient facilities guarantees the welfare of employees.

Tenant companies can receive variou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such as tax reduction and application of special regulations. Young entrepreneurs can easily find business partners and receive information through open communication.

K-NU10 포커스 K-NU10 Focus /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16 Korea NU10 MAGAZINE

입주기업들은 세제 감면 혜택과 규제특례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기업인들은 사업 파트너를 찾기 쉽고, 정보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다.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교수들로부터 기술 이전과 자문도 수월하게 구 할 수 있으며,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유 동인구 증가와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맺음말

국가와 지역발전에서 거점국립대학의 역할이 중요한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대학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혁신주체 중 가장 우수하고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강원대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 산업발전에 필요한 요람이자 플랫폼, 전진기지로 만들어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쏟을 것이다.

강원대는 대학의 캠퍼스(Campus)를 '지역혁신의 캔버스(Canvas)'로 삼아, 대학과 정부, 지역사회가 머리를 모아 미래사회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그려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가 대학·지자체·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지역혁신의 허브이자, '일터-삶터-배움터-쉼터'가 연계된미래 청년친화형 복합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한다.

Technology transfer and advice can easily be obtained from professors who have the necessary skills. The park can also attract talented employees. Moreover, the park will surely contribute in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through the increase of floating population and promotion of consumption.

#### **Concluding remarks**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role of a national universities is important in promoting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Universities have the best and riches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mong the various innovation actors that make up the local communit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ill make every effort to become a platform necessary for educational, cultur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through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ill use the university's campus as a 'canvas for regional innovation,' and draw a new model of innovation that can lead the development of the future society together with the university, government, and the local community.

Through this project, I am confident that the Innovation Park on the campus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ill become a hub of regional innovation where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s, and companies achieve mutual growth. On top of that, it will surely establish itself as a youth-friendly industrial complex in the future, where 'work-life-study-learning-shelter' may coexists.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문화편의지구 개요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ampus Innovation Park Cultural District Overview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 국가거점국립대의 역할과 발전 방향

**Roles and Directions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 김수갑 충북대학교 총장

Su Kab Kim Presiden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A New Higher Educational Ecosystem to Change Crises Into Chances

#### 충북대학교 6대 핵심역량(CHANGE) CBNU set 6 essential competencies

C 창의성 Creativity 휴머니즘 H) Humanism 능동성 Α Activeness 공동체 Neighbor Minded G E 전문성 Expertise

국가거점국립대(KNU10)는 거점국립대총장협의 회를 구성한 10개의 국립대학교를 지칭한다. 그모 체는 1996년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 대 등 5개 대학이 참여한 국립대협의회로, 이어 강 원대, 경상대, 서울대, 제주대, 충북대가 추가 가입 하면서 현재와 같은 구성이 되었다.

협의체의 결성은, 지역 차원에서 인재 확보, 산학 협력 및 국가 균형발전을 지탱하는 댐 또는 플랫폼 으로서의 역할과 국가 차원에서 고등 공교육을 실 행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 는 회원 국립대학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회원 대학들은 각기 각고 의 노력으로 훌륭한 성취들을 이루었고, 협의회를 통해 대학 및 교육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대응하면서 국립대 발전과 교육개혁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20년 2차 협의회는 "거점 국립대"에서 "국가거점국립대"로 그 명칭을 통일 하기로 결정했는데, 앞으로 국가거점국립대들은 명실상부하게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인재 양성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대학으로서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것이다. KNU10 means 10 Korea national universities which organize The Council of Presidents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It started as The Council of National University with 5 members: Kyungpook NU, Busan NU, Jeonnam NU, Jeonbuk NU, and Chungnam NU. Afterwards, another 5 national universities, Kangwon NU, Gyeongsang NU, Seoul NU, Jeju Nu, and Chungbuk NU. joined it to become an existing council now.

17

The council was established by the needs of the members: at a regional level, to acquire talented individuals, cooperate with industry, and support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 as a platform or a dam, and at a national level, to improve the images as a higher education facility. Since then, for the last 20 years, every member has had a lot of achievements with great effort, addressed major issues of universities and the whole educational system together, and also tried to improve the status of a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18 Korea NU10 MAGAZINE 19







"앞으로 국가거점국립대들이 공유와 협력, 연대를 통해 교육혁신의 계기를 만들고 양질의 교육을 보편적으로 누리는 학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앞으로도 극복 해야 할 난제들이 계속 던져질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대변되는 지구 적 차원의 환경 변회와 함께 학령인구의 감소와 같 은 국내적 요인이 더해지는 가운데, 우리 대학들은 한편으로는 신입생 유치, 재정 확보 등의 곤란을 계속 겪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교육, 연구의 내용과 형식에서 큰 전환을 시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국가거점국립대들은 당면 과제들을 하 나하나 해결해가는 데 있어서 더욱 활발한 교류, 소 통을 통해 지혜와 역량을 나눌 필요가 있다.

국가거점국립대들이 존립 기반으로서 지역을 거점으로 한 학문 생태계를 형성해가는 것은 향후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대학은 교육, 연구와 사회 각영역을 기능별로 연결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학들은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활성화를 선도함으로써 그 존립 기반을 안정화할필요가 있다. 특히 지나친 수도권 집중의 현실적구조를 고려할 때, 국가거점국립대들에게 지역거점의 확립을 위한 노력은 절실하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지역의 소멸), 나아가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 지자체,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부가 적극 추진하는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좋은 본보기이다.

이와 관련해서 충북 플랫폼은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 충북 완성'을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 3대 핵 심분야를 선정(① 제약바이오 ② 정밀의료·의료기 기 ③ 화장품·천연물)하고 충북도를 비롯한 자치 단체, 도내 15개 대학, 약 50개의 혁신주체들이 참여 하여 인재양성, 맞춤형 취업, 정주요건 실현을 목표 로 추진하고 있다. 오송바이오텍을 설립하여 참여 대학간 공동커리큘럼 개발·공유운영도 하게 된다. 교육 혁신은 대학에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급변하 는 환경 속에서 주도적으로 지식을 수용하고 생산 해내는 새로운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대학 교육에서 역량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2016)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 적 역량, 협력 및 소통 능력 등의 역량이 필요하다 고 지적한 바 있다. 충북대도 창의성(Creativity), 휴 머니즘(Humanism), 능동성(Activeness), 공동체 (Neighbor Minded), 글로벌(Global), 전문성(Expertise) 등 6대 핵심역량(CHANGE)로 지정하고, 새로 운 인재상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해

한편 교육 형식의 면에서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19의 충격은 역설적이게도 획기적인 전기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에도 이미 경험한 비대면 교육과 온라인 컨텐츠들의 장점들은 기존 대면교육의 장점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대학교육의 모델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때 국가거점국립대는 공유대학, 공동교과 운영, 학생·교수 교류 등의상호 협력을 확대해가면서, 그것을 뒷받침할 대학체제, 제도의 변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되다.

교육 개혁은 충북대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도 중 요한 전기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충북대는 2021 년 개교 70주년을 맞아 "지역의 뿌리로 70년, 세계로 꽃피울 100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올해를 전기로 새롭게 도약하려는 꿈을 꾸고 있다. 이러한 충북대의 방향 설정은 지역거점을 기반으로 위상을 확보해온 대부분의 국가거점국립대의 경우에도 대체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대학들이 서열화와 경쟁 속에서 양적 성장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도 지금까지 지역에 뿌리를 내려온 국가거점국립대들은 앞으로 한층나아간 성장을 위해서 교육, 연구 자체를 충실화하고 개선해가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지 않을 수없을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성장 단계로 진입하는 대학들이 감 당해야 할 과제들은 더 무거운 것들이다. 아이가 자 라는 동안 자주 키를 재지만 성인이 되면 키를 재는 것보다 더 세심하고 정밀하게 설계된 검진을 받게 된다.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 는 가치관, 실행력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다. 다가 오는 미래는 늘 상상하는 것보다 불확실하다. 다변 하는 환경에 민활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 육 기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지배구조를 건전 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기를 극복하 는 아이디어는 자주 주류나 중심이 아닌 곳에서 나 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개혁의 큰 틀 속에서도 가능한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교육, 연구 실험이 시 도될 수 있도록 공존을 허용하는 개방적 태도를 갖 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시기에 공공성을 담보하 는 국립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national university and lead to an educational reform. In 2020, the 2nd council decided to change its name, "major national university 10" into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Therefore, KNU10 will try much harder than before to play a major role in cultivating talented individuals at a national as well as a regional level.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round universities, however, is predicting challenges of the future. With global climate changes indicated by the beginn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domestic problems such as a nationwide decrease in students, universities have to face a very difficult situation. They should cope with problems like attracting new students, securing finances, etc. and also try to make significant transition to more advanced and developed education and research system. Therefore, KNU10 needs to share their wisdom and abilities to solve urgent problems via more active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It is important for KNU10 to establish region-based academic ecosystem for the future. Universities are a kind of platform because they can connect every part of society with education and research. Thus, KNU10 needs to stabilize its regional foundations by leading coexistence with the region and its revitalization through the platform. It is much more important for them to do so, considering the present condition, that is, excessive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crisis of regional universities might result to regional crisis (even regional extinction) and even national crisis, so that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s, and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collaborate one another to cope with it. 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based on the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university, which is 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a good example.

For this, Chungbuk platform set a goal, that is, the establishment of global biohealth hub Chungbuk, and selected 3 core parts of bio-health industry (1) Pharmaceutical bio 2) precision medicine-medical devices 3 cosmetics-natural substances) and all the innovative leaders, such as Chungbuk

province, local governmental institutes, 15 universities of Chungbuk, and about 50 regional innovators joined and have tried to their best to cultivate talented individuals, provide customized job referral opportunities, fulfill the settlement requirements, etc. In addition, after establishing Osong Bio-tech, related universities will develop joint curriculum and operate it together.

An educational reform is a challenge that could give a university more fundamental opportunities of chang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eeds a new type of talented individual who can play a leading role in accepting and creat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in a rough situation. Thus, the importance of competency education at a university is on the rise. The World Economic Forum (2016) emphasized tha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competencies such as problem-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ability, creativity, cooperative and communicative ability, etc. should be needed. Therefore, CBNU set 6 essential competencies (CHANGE), that is, 'Creativity, Humanism, Activeness, Neighbor-Minded, Global, Expertise, and has tried innovative educational challenges to meet the needs of By the way, as for educational format, shocking COVID-19 has ironically offered a milestone since last year, so after pandemic, the advantages of non-face-to-face education and online contents will be mingled with those of the existing face-to-face education and make a new model of university education. Thus, KNU10 will enlarge its cooperation, such as sharing university, joint curriculum, exchange of students and professors, etc. And to support this, it is expected that KNU10 will change its system and scheme. An educational reform is meaningful to

the directions of CBNU. This year, CBNU got its 70th anniversary and dreams about new stunning development with a slogan, '70 years as Regional Roots, Another Century Towards The World.'This aim could be applied to other national universities because they also have been developed with their region. Even if almost all universities have focused on their quantitative growth in competitive condi-



tions like lining-up of university, regionally rooted national universities have to consider their qualitative growth with faithful and advanced education and research for further development.

Their tasks necessary for them to enter a new stage of growth, however, are much heavier than before. For example, children often measure their height as they grow up, but adults need more specific and precise medical checkup. Likewise, qualitative growth needs appropriate values, executive ability, and patience. The upcoming future is always uncertain as imagined. To respond swiftly to changeable environment, it is needed to organize educational functions of a university effectively and maintain a sound governance structure. Usually, the ideas that make it possible to cope with crisis are not generated from the main stream or the center. So, it is also needed to have a liberal attitude which allows coexistence to make various education, research, and experiment in many fields possible within the big picture of educational reform. As a result, the role of a national university will be much more important because it guarantees its publicity.

"From now on, KNU10 should make chances of educational reform by sharing, cooperation, and solidarity rather. And also KNU10 should make every effort to establish educational ecosystem which makes it possible to enjoy quality education in a general way."

## 회원대학 주요 이슈

Important Issues of Member Universities

















서울대학교 SNU

전남대학교 CNU

전북대학교 JBNU

제주대학교 JNU

충남대학교 CNU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Jeju National University



충북대학교 CBNU

강원대학교 KNU

경북대학교 KNU

부산대학교 PNU

경상국립대학교 GNU

Pusan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REA

22 23 Korea NU10 MAGAZINE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1년 1학기. 서울대학교는 사회적 필요성과 연구 영역의 심화를 위해 세 학과를 신설했다. 임상간호학과와 헬스케어융합학과, 그리고 의료기기산업학과가 바로 그 주인공.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신설학과를 소개한다.

In the first semester of 2021. **Seoul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three departments to address the societal demands and expand into new areas of research: the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the Department of Health Care Convergence, and the **Department of Medical** Device Development. Here we proudly introduce three new departments that just began their first steps.

#### 간호학 발전의 초석 임상간호학과

Laying the cornerstone for nursing studies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Science** 

임상간호학과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주관의 석 사과정 신설학과로, 중환자 전문간호과정과 종양 전문과정으로 나뉘어 각 분야의 전문간호사를 양 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진강 교수는 "전문간 호사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간호를 요구하는 환자 와 그 가족에게 직접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는 동 시에 간호사들이 근거중심의료를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일조한다"고 전문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환자 전문간호사와 종양 전문간호사는 간호사들의 역량을 증대시키 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며 세밀 한 교육을 바탕으로 환자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The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Science is a new department for master's programs established at the College of Nurs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epartment has two majors - the Advanced Critical Care Nursing major and the Advanced Oncological Nursing major - with the aim to foster advanced practice nurses in each field. Professor Chin-Kang Koh said, "Advanced practice nurses provide direct and appropriate nursing care to patients and families who require complex and difficult care. At the same time, advanced practice nursing helps nurses provide evidence-based medical care effectively," emphasizing the essential role of advanced practice nurses. Professor Koh also added that "the department will be providing professional education to advance the capabilities of the nurses specializing in critical care and oncology" and expected that the intensive training from the department would contribute to improving patient safety and their quality of life.



임상간호학과장 고진강 교수 Chin-Kang Koh, Chair of the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Science

####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

A Community of Knowledge, Leading the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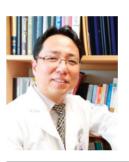
HOMEPAGE www.snu.ac.kr

www.facebook.com/ SeoulNationalUniversity • instagram/snu.official



#### 의료 분야의 4차산업혁명 선도 헬스케어융합학과

Lea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Medicine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헬스케어융합학과장 이학종 교수 Hak Jong Lee, Chair of the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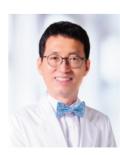
헬스케어융합학과는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소속의 박사과정으로, 의료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공감 하에 신설됐다. 분당서울대병원과의 계약체결을 통해 학술연구계와 의료현장의 협력을 꾀했다. 2 년간의 박사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이 분당서울대 병원에서 근무하며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이 다. 이학종 교수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융합과학기 술대학원의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의 활약으로 헬스케어 전반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물인터넷(loT), 유전자데이터 기술, 임상 시험 등 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각종 기 술을 다룰 것"이라며 헬스케어융합학과의 폭넓은 연구 영역을 설명했다.

The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is a doctoral program at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established under the consensus that the university should respond

proactively towar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medical field. A memorandum with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formed ties between the academic research community and the medical field. After completing the two-years doctorate program, graduates of this department will be working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to conduct relevant research. Professor Hak Jong Lee commented that "The department will be conducting comprehensive and empirical research on health care, thanks to the continuous effort made by professors from diverse fields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and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or Lee further explained the department's broad research area, which would "encompass various technologies in the healthcare industry, including IoT, genetic data and technology, and clinical trials."

####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융합학문 의료기기산업학과

Convergent Studies in the age of Digital Healthcare Department of **Medical Device Industry** 



의료기기산업학과장 김희찬 교수 Hee Chan Kim, Chair of the Department of Medical Device Industry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속의 석사, 석박사통합 일 반대학원 과정으로 신설된 의료기기산업학과는 의료기기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의료기기 관련 통합 적 소양을 갖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김희찬 교수는 "의료기기 산업은 지속적인 고성 장을 이루어 오고 있는 몇 안 되는 산업 분야 중 하 나로 의료기기 산업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은 우리 대학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라며 신설학과에 대한 자부심을 보였다. 국내외 의료기기 산업의 주요 기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어 학생들이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계획 또한 밝혔다.

Established as a general master's and integrated master's and doctorate program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e Department of Medical Device Industry aims to cultivate students

with practical skills equipped with comprehensive knowledge on medical devices for the medical device industry. Professor Hee Chan Kim proudly introduced the new department and said, "The medical device industry is one of the few high-growth industry areas that has experienced continuous growth. Fostering experts in the medical device industry is a crucial mission that our university must accomplish." Professor Kim also presented a plan to sign MoAs with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anies in the medical device industry to provide an educational environment where students can hone their practical skills.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24 Korea NU10 MAGAZINE 25



#### 긍지와 희망,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Pride & Hope Cherish the Truth, Enlighten the World HOMEPAGE www.jnu.ac.kr SNS www.facebook.com/ ChonnamUniv



#### 전남대 '용봉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CNU Yongbonggwan Designated as National Cultural Property

전남대학교 옛 본관이었던 '용봉관'이 근대문화유 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등록됐다.

'용봉관'은 1957년 12월부터 1996년 5월까지 30년 가까이 대학본부로 사용된 건물로 전남대 70년 역사를 나타내는 상징성과 5·18민주화운동 항쟁지 중하나라는 역사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특히, '용봉관'은 건물 중앙부를 수직으로 높게 처리한 탑상형 구조물과 이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한부분이 입면·평면 수법으로 처리됨으로써 1950~1969년대 공공건물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어 근대 건축사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현재 대학역사관으로 1층은 영상실, 민주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층에는 상설전시관, 기획전시실로 조성돼 체험 및 교육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3층에 5·18연구소를 운영하며 민주화운동 역사와 관련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전남대 '용봉관'은 지난 2004년 9월 인문대학(1호관) 건물과 2018년 8월 의과대학 건물에 이어 세 번째로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됐다.

Yongbonggwan, the former main building of CNU, was registered as a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recognition of its value as a modern cultural heritage site.

Yongbonggwan was used as the university headquarters of CNU for nearly 30 years from December 1957 to May 1996. It has represented the 70-year history of CNU and it also was one of the main venues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0. In addition, it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cultural icon of early modern architecture as it is a towershaped structure with a high, vertical center while each side forms a horizontal symmetry, which embodies the unique structure of public buildings of the period ranging from 1950 to 1969.

Currently, as the CNU History Hall, Yongbonggwan offers a video room and an exhibition hall for democratic movements on the first floor, and a permanent exhibition hall along with a special exhibition hall on the second floor for educational programs. In addition, the 5.18 Research Center is located on the third floor, where scholars are actively conducting research related to the history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Now, Yongbonggwan is the third nationally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on CNU campus after Building 1 of the College of Humanities and the College of Medicine Building, which were designated in September 2004 and August 2018, respectively.

####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선정

CNU Selected for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전남대학교가 4월 1일 학내에 산학연 협업 및 기업입주 공간, 주거 및 문화·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추진 한 이번 공모에는 전국 23개 대학이 나설 정도로 큰 관심과 경쟁을 벌였으며, 최종적으로 전남대와 경북대가 선정됐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미래 신산업 입지가 혁신환 경과 인적 자원이 풍부한 도심을 선호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대학의 입지적 장점과 혁신역량을 적극 활용해 산학협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학을 새 로운 혁신성장생태계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시작된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전남대는 공모 선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학내 보조운동장 일대를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뒤, 오는 2024년까지 산학협력 공간은 물론 주거와 문화· 복지시설을 갖춘 2만2,000여㎡ 규모의 캠퍼스 혁신파크를 건립할 예정이다.

전남대는 이를 도시재생사업과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그리고 창업투자펀드조성사업과 연계해 상 승효과를 최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이번 1단 계 '산학연 혁신허브'에 이어 후속사업인 2단계 '어 메니티 혁신허브', 3단계 '글로벌 혁신허브' 등 모 두 9년에 걸친 단계별 사업을 통해 '콤팩트 시티형 첨단산업단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 선정은 광주광역시와 북구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을 보탰으며,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의 2단계 개발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한 바 있어 앞으로 순조로운 사업진행이 기대된다. 정성택 총장은 "캠퍼스 혁신파크는 혁신창업 기 반을 다지고,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과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진기지로서 우리 지역 의 산학협력과 창업지원 생태계를 대폭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NU was selected for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that intricately creates combined spaces for the cooperation of industry, university, and researchers in concert with residential areas and cultural facilities for welfare on campus.

According to CNU, it has been selected as one of the two successful candidates, along wi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for the project, the results of which were announced on April 1st. Jointly promo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the project was subjected to heated competition and interest, receiving proposals from 23 universities nationwide.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selects universities with innovative capabilities and strategic locations to accommodate future industries as well as excellent programs to foster talent for those industries. The project is based on the cooperation of three major governmental ministries to advance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and establish a new ecosystem of innovation on university campuses.

Selected by the project, CNU is going to establish an industrial complex in the annex to the CNU Sports Ground by the first half of next year. The facility will be completed with a residential area, cultural and welfare

facilities as well as an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space by 2024.

CNU will maximize the synergy effect of this cooperative effort by linking this project with projects it has conducted, such as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Project, and the Investment Fund Raising for Start-ups Project. In addition, following the first step of the project, know as the Industry-Academic Innovation Hub, the follow-up projects such as the second step Amenity Innovation Hub and the third step, Global Innovation Hub will gradually be expanded into the Compact City-Type High-Tech Industrial Complex through 9 years of step-by-step projects.

Proactive support from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the Buk-gu District Office contributed to the selection of this project as well as the business agreement which was signed between CNU and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Corporations for the promotion of the second-stage development plan, which is expected to proceed smoothly in the future.

CNU President Jung Sung-taek said,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significantly expand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and startup support ecosystem in our region as a forward base to lay the foundation for innovative start-ups, foster start-ups us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d create high-quality jobs."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26 Korea NU10 MAGAZINE 27



##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 The Best Glocal University HOMEPAGE www.jbnu.ac.kr SNS www.facebook.com/jbnu1947



#### 연구생애 全주기 우수연구자 지원 '연구중심대학' 기틀 다진다

JBNU provides support for excellent research professors throughout their career Laying the foundation for a "research-oriented university"

전북대학교가 교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애 전주기에 걸친 우수 연구자 지원책을 통해 '스타 교수' 육성에 나서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전북 대는 연구생애 전주기 우수 연구자 지원 체계 확 립을 위해 올해부터 우수 연구 교수인 '펠로우'를 매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임용 5년 이내 젊은 연구자를 선발하는 'JBNU Young Fellow'와 부교수 및 승진 5년 이내의 교수를 선발하는 'JBNU Fellow', 교수 승진 5년 이후부터 만 60세까지의 교수를 선발하는 'JBNU Star Fellow', 그리고 만 61세 이상과 정년 이후까지 지원하는 'JBNU Regents Professor' 등을 지정해연구생애 전주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첫 JBNU Star Fellow에는 김민호 교수(무역학과)를 비롯해 박상준 교수(경영학과), 윤영상 교수(화학공학부), 이존화 교수(수의학과), 이중희 교수(대학원 나노융합공학과), 정길도 교수(전자공학부) 등이 선정됐다.



또한 JBNU Fellow에는 김석원 교수(체육교육과), 김종훈 교수(수의학과), 나석인 교수(유연인쇄전 자전문대학원), 박찬희 교수(기계설계공학부), 양 은석 교수(철학과), 오효정 교수(문헌정보학과), 유 동진 교수(생명과학부), 장점석 교수(생명공학부), 정광운 교수(고분자섬유나노공학부), 정현이 교수 (식품영양학과)가 각각 선정됐다.

JBNU Young Fellow에는 김종웅 교수(신소재공학부), 박삼복 교수(회계학과), 박지연 교수(국제인문사회학부), 서동호 교수(식품공학과), 선종학 교수(경영학과), 이태희 교수(전자공학부), 최경숙 교수(무역학과)가 선정됐다.

또한 JBNU Regents Professor에는 김철생 교수 (기계설계공학부)와 김형석 교수(전자정보공학부), 왕은철 교수(영어영문학과)를 임명해 정년 후에도 전주기에 걸쳐 연구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JBNU Young Fellow에 선정된 교수들에게는 최대 5,000만 원의 연구기자재 지원금을 제공해 초반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s attracting attention for its efforts to cultivate "star professors." Thanks to its support programs, outstanding researchers are supported throughout their entire career, improving their competitiveness and enhancing the reputation of the University. This year, JBNU has identified over a dozen Fellows; outstanding professors who will receive research support from the University. JBNU Young Fellows, for example, will be provided with a grant of up to 50 million won for research equipment.

The University will appoint 'JBNU Young Fellows', early-career researchers who have worked at the University for five years or less; 'JBNU Fellows', associate professors and professors within 5 years of their first promotion; 'JBNU Star Fellows', professors

who have been working for 5 and who are less than 60 years old; and 'JBNU Regents Professors', professors older than 61 or retired, but who will nevertheless continue to receive research support from the University.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this year's JBNU Star Fellows: Prof. Min-Ho Kim (International Trade), Prof. Sang-June Park (Business Administration), Prof. Yeoung-Sang Yun (Chemical Engineering), Prof. John-Hwa Lee (Veterinary Medicine), Prof. Joong-Hee Lee (Graduate School of Nano Convergence Engineering), and Prof. Kil-To Chong (Electronic Engineering).

Those selected to be JBNU Fellows are: Prof. Suk-Won Kim (Physical Education), Prof. Jong-Hoon Kim (Veterinary Medicine), Prof. Seok-In Na (Graduate School of Flexible and Printable Electronics), Prof. Chan-Hee Park (Mechanical Design Engineering), Prof. Eun-Suk Yang (Philosophy), Prof. Hyo-Jung Oh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f. Dong-Jin Yoo (Life Sciences), Prof. Jum-Suk Jang (Biotechnology), Prof. Kwang-Un Jeong (Polymer Nano Science and Technology), and Prof. Hyun-Ah Jung (Food Science and Nutrition).

JBNU's Young Fellows are: Prof. Jong-Woong Kim (Materials Engineering), Prof. Sam-Bock Park (Accounting), Prof. Ji-Youn Park (International Studies), Prof. Dong-ho Seo (Food Science and Technology), Prof. Jong-Hak Sun (Business Administration), Prof. Tae-Hee Lee (Electronic Engineering), and Prof. Kyoung-Suk Choi (International Trade).

Finally, Prof. Cheol-Sang Kim (Mechanical Design Engineering), Prof. Hyong-Suk Kim (Electronic Engineering), and Prof. Eun-Chull Wang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will be the new Regents Professors.

#### 전북대 국제화역량 '최고 등급' 국가거점국립대 가운데 '유일'

Jeonbuk National University Receives the "Highest Grade" in Internationalization Capability 전북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제(IEQAS)' 평가에서 국가거점국립대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우수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는 교육 국제화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국내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는 제도다. 평가지표로는 필수지표인 불법체류율과 대학의 국제화 사업 계획 및 인프라, 등록금부담률, 언어능력, 만족도 및 관리등이 있다.

전북대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입국 현황을 비롯한 자가 격리 및 방역지침 준수 등 대학의 위기 대처 능력 을 인정받았다. 인증 대학 모니터링에서 모든 평 가지표를 통과해 인증을 유지하고 우수인증대학 에도 선정됐다.

전북대의 이번 우수 인증대학 선정은 한국유학종 합시스템·교육부 공식 사이트 등에 공시되고, 법 무부 소속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외국 정부 등에 '우수인증대학'으로 등록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VISA) 발급 절차 간소화, 정부 초청 장학생(GKS) 수학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 부여 등 교육정책과 사업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Jeonbuk National University was the only Korea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to receive the "excellent accredited university" designation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IEQAS)" survey performed by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The IEQAS evaluation is designed to improve the ability of Korean universities to attract top international students and otherwise enhance local students' internationalization. Universities are evaluated on the basis of, among other things, (1) the perc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that remain in the country illegally, (2) the university's internationalization business plan and associated infrastructure, (3) the burdensomeness of the tuition, (4) language ability, (5) student satisfaction, and (6) quality of managemen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tood out for its risk management practices, including quarantine facilities and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which proved to be of particular importance in a year of COVID-19. JBNU received high scores across all evaluated metrics, maintained its accreditation, and was acknowledged as an 'excellent accredited university'.

Jeonbuk National University's accolade will be announced on the official websites of Korea Study Abroad Comprehensive System,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a result, JBNU will now qualify for various benefits, including a simplified process for issuing student visas, additional points when student's select a university for Korea Government Scholarship, etc.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28 Korea NU10 MAGAZINE



##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기본에 충실한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To the Basic, For the Future HOMEPAGE www.jejunu.ac.kr SNS www.facebook.com/ 제주대학교-1536145756655629



### 학령인구 감소 속 신입생 충원율 100% 기록 대입전형 지속적 개선 통해 대학 경쟁력 높여

The recruitment rate of new students hit 100% despite the ongoing decrease in enrollment stemming from increased university competitiveness resulting from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college entrance screening system 제주대학교가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충 원율 100%를 기록했다. 등록 마감결과 정원 내모 집인원 2088명 중 2088명이 등록해 미등록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제주대는 학생 및 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입전형을 개선해오고 있다.

특히 도내 학생들이 제주 지역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전형을 지속적 으로 운영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전형 등을 골고루 운영해 학생 선택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여기에다 총 16개의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내외 고교를 대상으로 제주대 대입 전형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온 점이 이같이 높은 충원율을 보인 요인으로 제주대는 분석했다.

다양한 전형 도입 노력의 결과로 제주대는 2019 년부터 2년 연속 교육부로부터 '고교교육기여대 학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Jeju National University recorded a 100% recruitment success rate for the 2021 Freshmen Recruitment Period.

Enrolling the full allotment of 2,088 freshmen for the 2,088 quota, the university recorded no unregistered spots.

Jeju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continuously improving the college entrance screening system to minimize the burden on students and parents, and to enhance the fairness of the college entrance procedure.

In particular, it continued to operate a special entrance program for local students so that students in the province could develop into exceptional talent to lead the Jeju area.

Furthermore, the school made an effort to give students more options to choose from by running a diverse entrance program that includes comprehensive student record screening, student record academic screening and a nationwid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Korean KSAT).

On top of this, Jeju National University attributed its high recruitment rate to the fact that it has been steadily making efforts to deliver its own college entrance screening process to students attending high schools in and out of the province through the operation of 16 high school-university programs.

As a result of efforts to introduce various types of screening programs, Jeju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selected for the "High School Education Contribution University Support Project"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two consecutive years, starting in 2019.

#### 데이터사이언스 등 첨단학과 신설

Establishment of Data Science and Other New High Tech Departments

학과, 소프트웨어학부 인공지능전공, 바이오메디 컬정보학과 등 3개 첨단학과를 신설한다.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및 인공지능전공은 4차 산 업혁명시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활 용하는 기술에 중점을 둔다. 바이오메디컬정보학 과는 제주지역 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메디컬 및 헬스분야에 중점을 둔 인재를 양성한다. 제주대는 신설되는 첨단학과가 시대흐름을 적극

제주대학교가 2022학년도부터 데이터사이언스

Starting in 2022, Jeju National University will establish three high-tech departments, including the Departments of Data

수용하면서 우리 대학 미래의 혁신 아이콘으로 자

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School of Software, and the Department of Biomedical Information.

The departments of data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focus on technologies that collect, analyze and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epartment of Biomedical Information trains students who focus on bio-medical and health fields using biological resources within Jeju island.

Jeju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allow the newly established high-tech departments to actively engage the trend of the times and become an innovation icon for the future of the university.

#### 건축공학전공, 산업계 선정 '최우수 학과' 등극

Architectural Engineering Major Selected as 'Best Department' by the Industry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이 건축 분야 산업계가 뽑은 최우수 학과(전공)로 선정됐다. 이 는 2016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최우수로 선 정된 후 연속으로 뽑히게 된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0년 산업계관 점 대학평가 결과 제주대 건축공학전공은 건축분 야에서 평가를 받은 41개 대학 중 '최우수'로 뽑힌 12개 대학에 포함됐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대학이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대학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제대로 지원하는지를 살펴보는 조사다.

Jeju National University's Architectural Engineering major was selected as the best major by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department has been selected as the best major every year since being selected #1 in the 2016 industry-viewed university evaluations.

According to the 2020 university evalua-

tion by the Korea University Education Council, Jeju National University's Architectural Engineering major was included in the 12 colleges selected as the best among 41 colleges evaluated in the architecture field.

The university evaluation from an industrial perspective suggests the direction of university curriculum improvement, reflecting the needs of the industry as the survey examines how a university supports training human resources tailored to specific industries.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30 Korea NU10 MAGAZINE 31



#### CNU 100년, 위대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

The 100th Anniversary of CNU, a New Start for a Great Future!

HOMEPAGE www.cnu.ac.kr

SNS www.facebook.com/CNUNOV



### 충남대, 세종캠퍼스 입주 확정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elected for Sejong Campus

충남대학교가 세종캠퍼스 진출을 확정지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월 3일, 세종시 공동캠퍼스(4-2생활권) 입주 대 학 선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충남대의 임대형 및 분양형 캠퍼스 입주가 확정됐다.

이번 공동캠퍼스 입주에는 총 13개 대학이 신청했으며 충남대를 비롯해 공주대, 서울대, 충북대, 한 발대,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등 총 6개 대학의 입주가 확정됐다.

충남대의 세종캠퍼스 진출 확정은 지난 1년간, 입 주를 위한 캠퍼스 조성 계획 제출과 입주 최종 선 정에 이르기까지 충남대 구성원은 물론 지역 정치 권, 지역사회가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충남대는 6개 대학 중 유일하게 임대형, 분양형 모 두 캠퍼스를 조성하며, 입주정원 및 조성 규모 역 시 최대 규모다.

임대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캠퍼스를 조성해 충남대, 서울대, 충북대, 한밭대, KDI가 입주해 캠 퍼스를 공동 사용하며, 분양형은 충남대(4, 5구역), 공주대가 각각 독자 캠퍼스를 조성한다.

충남대는 임대형 캠퍼스에 의과대학·대학원 490명이 입주하며, 분양형 캠퍼스는 인공지능(AI) 및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융합대학 및 융합대학원 800명이 입주하게 된다. 세종캠퍼스 입주 대학중 임대형, 분양형 모두 입주 인원이 최다이다. 임대형캠퍼스의 경우 총 3만4,000㎡ 가운데 1만 4,990㎡로 가장 규모가 크며, 분양형캠퍼스 역시총 6만1,086㎡ 중 3만5,984㎡(59%)로 가장 넓은

면적이 조성된다.

충남대 세종캠퍼스의 임대형캠퍼스는 연내 착공 돼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며, 분양형캠퍼스는 이르면 2024년 2월 공사를 시작한다.

이진숙 총장은 "충남대와 지역사회가 노력해 온 충남대의 세종캠퍼스 진출이 임대형, 분양형 캠퍼 스 모두 입주 확정으로 첫 단추를 꿰었다"며 "새로 운 시대의 첨단융합학문 발전을 선도하고 국기균 형발전에 기여하는 명품 충남대 세종캠퍼스를 만 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On February 3, the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nd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nnounced that they had selected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for Sejong City Joint Campus (4-2 living areas).

A total of thirteen universities applied for a space on the joint campus, six universities—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ongju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anbat University, and KDI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Policy—were selected.

The decision to choos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for Sejong Campus is highly significant in that it was the result of an all-out effort over the past year by local political circles and communities as well as members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from the submission of a campus construction plan to finally being chosen.

Among the six selected universiti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s the only university that plans to build rental and pre-sale university-owned campuses, and their occupancy capacities and sizes are the larges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anbat University, and KDI will occupy the rental campuses. At the same tim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zones 4 and 5) and Gongju University will construct their university-owned campuses. They have the most significant number of rental and university-owned residents among the universities selected for Sejong Campus.

The rental campus is the largest, covering  $14,990\,\mathrm{m}^2$  out of  $34,000\,\mathrm{m}^2$  (44%), and the university-owned one is also the largest:  $35,984\,\mathrm{m}^2$  out of  $61,086\,\mathrm{m}^2$  (59%).

Construction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s Sejong rental campus is expected to commence this year, with the school set to open in March 2024. Construction of the university-owned campus will begin in February 2024 at the earliest.

President Lee Jin-suk said, "We have taken the first step toward the establishment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s rental and university-owned campuses in Sejong, which we had been working hard to achieve with the local community. We will create a prestigiou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ejong Campus to develop advanced convergence studies in the new era and contribute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 취업률 2년 연속 거점국립대 1위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anks First for Graduate Employability for Two Consecutive Years 충남대학교가 2년 연속 거점국립대학교 취업률 1 위를 차지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월 12일, '2019년 고 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2019년 12월 31 일 기준)' 결과를 공시한 가운데 충남대는 61.1%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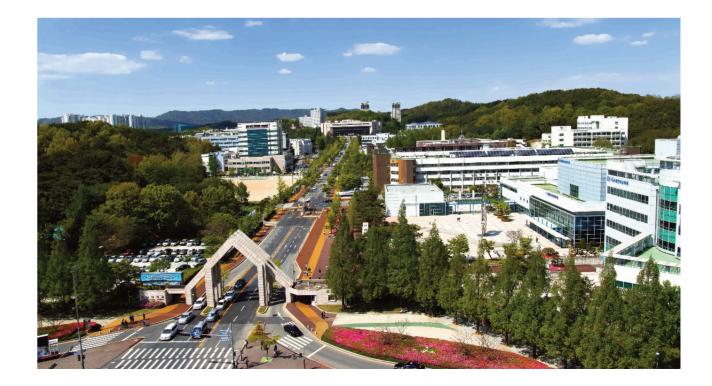
충남대는 지난해(2018년) 취업률 61.3%를 기록한 데 이어, 2019년에도 61.1%로 거점국립대 중 1위 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충남대의 61.1%의 취업률은 전국 9개 국가 거점국 립대학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2018년, 2019 년 2년 연속 거점국립대 1위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Among key national universiti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anked first for graduate employability for two consecutive yea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2019 Employment Statistical Survey of Graduat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s of December 31, 2019)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61.1%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s were employed.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ecorded a 61.3% employment rate in 2018 and ranked first among key national universities with a 61.1% employment rate in 2019.

Chungnam National University's 61.1% employment rate was the highest among nine key national universities, meaning that it ranked first for two consecutive years in 2018 and 2019.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33 Korea NU10 MAGAZINE



##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A Dynamic Future that We Will Open Together

HOMEPAGE www.chungbuk.ac.kr SNS www.facebook.com/cbnu1



### 충북대 전 구성원이 함께 만든 기념영상으로 조선팝의 흐름 따랐다!

CBNU follows the trend of Joseon POP with its 70th anniversary film!

#### 김수갑 총장, 권위를 내려놓고 학생들과 70주년 기념 영상 함께 호흡

충북대학교가 일명 '꼰대문화'를 일컫는 '라떼는 말이야'를 역사와 전통의 시간을 일구어 온 기성세대의 열정으로 표현해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메시지를 담은 기념 영상을 제작, 공개한지 1달 만에 1만6,000분를 달성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충북대는 지난 1951년 도민의 열망으로 개교한 후 7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한 포부를 랩으로 표현했다. 특히, 김수갑 충북대 총장이 대학의 홍보를 위해 'B급 감성' 연기에 몸을 던졌다. 권위적이라고 생각했던 총장이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소위 '꼰대교수'로 출연, 과거의 영광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담은 랩과 춤을 선보여 화제다. 충북대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재학생, 동문, 교직원 등 전구성원이 함께 시나리오 구상부터 음원및 안무 제작, 출연까지 함께 소통해 그 의미를 더했다. 충북대 동아리 '소울로직'이 조선팝의 특징을 살려 음원을 만들고 충북대 홍보대사 '해울'이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무를 제작했다.

김수갑 총장은 "코로나19로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 교정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신입생들을 위로하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온 선배세대를 대표해 직접 출연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음원 제작, 시나리오 작성, 출연까지 학생홍보대사, 동문, 재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힘든 시기이지만 잠시나마 함께 웃으며 충북대의 70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대는 1951년 도민의 열망으로 개교 70 주년을 맞았으며 영상은 3분 정도로 대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비전을 랩으로 담아 누구나 즐길수 있도록 했다. 영상은 충북대 공식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HkeTKMT5y20)과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으며, 추후 안무따라하기 챌린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 President Kim, Sukab joined the film with students without a sense of authority

CBNU presented a new representative emblem and slogan to celebrate its 70th anniversary in 2021.

The 70th anniversary slogan is 'Another 70 years as Regional Roots, Another Century Towards The World'. This means that CBNU, built with all the support from local residents, has a new vision based on its 70 year old development to flourish in the world together with the region for another century.

To improve together with the country and the region, CBNU held a nationwide design contest last September to select an emblem and a slogan showing its 70th anniversary image as well as the aspiration and vision for another century. More than 200 works were submitted and the winners were selected through a strictly impartial judging process.

CBNU was built in 1951 during the Korean War by local residents. These residents wanted to cultivate leaders of the future, so each of them donated a brick and a bag of barley to build it. As a center for human resources, CBNU has developed with the region and finally marks the 70th anniversary in 2021. Taking this opportunity, CBNU has sincerely tried to reestablish an individualized plan for itself. For example, a plan titled 'CBNU Vision 2050' for another century, a specialized plan for each campus, and etc. In addition, CBNU tries to consider the way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as a national university, that is reinforcement of publicity in higher education.

CBNU has won 33 state-funded projects since 2019, which could get approximately 513 billion won from the government. Thus, it is possible to improv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rain its human resources. CBNU made the community of learning and knowledge, which consists of 758 professors who are leading experts in every field, PhDs, MDs, researchers, students, and etc. And 150,000 alumni have tried to do their best to develop CBNU. Based on these efforts, CBNU has carried out many cooperative programs such as opening the campus to co-exist and develop with the region.

To celebrate its 70th anniversary, CBNU made a Memorial Project Committee in 2020 and has been preparing many things like 7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font, film, web site, calendar, and time capsule, UI renewal project, 70th anniversary ceremony and reception, an old photo contest, and etc.



충북대 70주년 기념 영상의 한 장면 A scene from the 70th anniversary film of CBNU

#### 충북대, 본격 세종 시대 개막··· 미래형 수의학 교육시스템 확립

CBNU Begins A New Sejong Era... Established Advanced Vet Education System

#### 세종글로벌수의학캠퍼스 개교 및 세종동물병원 분원 개원

충북대학교가 본격적인 세종 시대를 맞이한다. 충 북대 세종글로벌수의학캠퍼스가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이하 행복청) 및 LH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 주관하는 세종 공동캠퍼스(임대형)를 오는 2024년 개교하는 한편, 2021년 6월에는 수의대 세종동물병원 분원을 개원한다.

충북대 수의과대학은 이번 진출을 통해 최첨단 수의학 교육을 확충함으로써 미래 수의사에게 요구되는 사람-동물-환경(One Health) 중심의 바이오메디컬 융·복합 연구 및 다양한 임상교육, 실습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세종글로벌수의학캠퍼스(수의과대학 세종 캠퍼스)는 세종특별자치시 4-2 생활권에 건립될 예정이며 수의과대학 전임 및 겸임교원 15명을 비 롯해 본과 3, 4학년 학생 100명, 해당 전공 석·박 사 과정 대학원생 50명이 이전한다.

총 임대 면적은 4,715㎡로, 그 중 기본 교육시설은 2,755㎡ 규모로 교수연구실, 학생 강의실, 실습실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시설은 1,350㎡로 교수실험 실 및 공동기기 실험실을 설치하고, 610㎡ 에 해당 하는 공간을 회의실, 행정실, 동아리방 및 휴게실 등으로 구성하는 등 학생 편의시설도 확충했다.

이에 앞서 오는 6월 세종시 대평동에 충북대 동물 병원을 개원해 동물진료시업, 대학생 임상교육, 의 료요원 훈련, 동물진료 기술 개발·연구지원을 추 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동물진료 연구·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상윤 수의과대학장은 "앞으로 동물병원과 세종 캠퍼스를와 연계해 수의대의 임상교육을 확대하고, 연구·진료기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Sehong Global Vet Campus & Sejong Branch Animal Hospital Open

CBNU begins its new Sejong era. The Sejong global vet campus (lease) is scheduled to open in 2024 with the support from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NAACC) and LH Land & Housing Corporation. And a Sejong branch animal hospital is open in June, 2021.

With the campus and the branch hospital in Sejong, CBNU Veterinary medicine college acquires the most advanced education system, so that it could get a chance to provide bio-medical convergent research focused on human-animal-environment (One Health), a large amount of clinical education, practice opportunities, etc., needed for veterinarians of the future.

The Sejong campus will be built in 4-2 life zone of Sejong and 15 full-time and adjunct professors, 100 3rd and 4th year students, and 50 graduate students in master's and doctorate courses are expected to move there.

The total rentable space is 4,715m². Out of that, fundamental educational facilities occupies 2,755m², including professors' offices, lecture rooms, laboratories, etc. Research facilities (1,350m²) consist of professors' laboratories and joint equipment laboratories and convenient facilities (610m²) for students consist of conference rooms, administrative rooms, clubs, lounges, etc.

Before opening the campus, an animal hospital will open this coming June in Daepyong-dong in Sejong. The hospital is planning to do various things, like animal care, students' clinical education, medical staff training, animal care R&D support, etc., so that quality animal care research and services will be possible.

"From now on, we will connect the animal hospital with Sejong campus to expand our clinical education and strengthen our research and medical treatment functions," said Nam, Sangyun, dean of veterinary college.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34 Korea NU10 MAGAZINE 35



#### 통일한국의 중심대학

The Hub University of the Unified Korea

HOMEPAGE
www.kangwon.ac.kr
SNS
www.facebook.com/knu.abs



#### 「2020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6년 연속 최우수대학 선정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the 6th consecutive year in <sup>^</sup>2020 Industry Perspective University Evaluation<sub>J</sub>

강원대학교가 2월 24일(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 육협의회, 경제5단체가 주관하는 「2020년 산업 계관점 대학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대학에 선 정됐다.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과 대학 교육체제의 부합 정도를 평가해 최우수 대학을 선정하며, 이번 평가는 건축(시공), 기계(자동차) 등 2개 분야를 대상으로, 53개대학총 81개학과가 참여했다.

이번 평가에서 강원대는 공학대학(삼척) 건축공 학전공이 '건축(시공) 분야' 최우수학과로 선정됐 으며, 전국 국·공립대학교 가운데 최다 연속 최우 수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강원대 건축공학전공(삼척)은 4년 전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한 이후, 산업계 요구에 대응한 교육과 정 개편, 취·창업 프로그램 및 현장실습 참여 확대 등 산업현장과 연계한 전공 교육을 시행해 왔다.

강원대는 지난해(2019년) 평가에서 '식품분야(농 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산업공학부 식품생명공학 전공)'가 최우수 대학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 2018년 바이오의약분야(의생명과학대학 의생명 융합학부), ▲2017년 전자반도체(IT대학 전자공학 과)·정유석유화학(공과대학 화학공학과)·화장품 (보건과학대학 생약자원개발학과) 등 3개 분야 ▲ 2016년 건축(시공) 분야(도시건축학부 건축공학 전공) ▲2015년 식품분야(식품생명공학과)에서 각각 최우수평가를 받은 바 있다.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as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six consecutive years in the F2020 Industry Perspective University Evaluation hos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and 5 economic organizations on February 24th (Wed).

The 'University Evaluation from Industry Perspective' selects the best universities by evaluating the degree of conformity between the job competencies required in the industrial field and the university education system. In this year's assessment architecture (construction) and machinery (automobile) were chosen as industrial fields to be evaluated in which a total of 81 departments from 53 universities participated.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Samcheok Campus) was selected as the best department in the "Architecture (construction) field," for this year's evaluation. Amongst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KNU has been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the longest time.

Ever since KNU's Architectural Engineering Major (Samcheok) obtained 'A Grade' in the evaluation 4 years ago, it has worked to provide an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the industrial field. In order to respond to industrial needs, KNU has reorganized the curriculum by expanding opportunities in the

actual field to gain hands on experience through employment and start-up programs along with field training.

In the evaluation conducted in 2019. KNU was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in the field of food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Division of Food Biotechnology and Biosystems Engineering, Department of Food Science & Biotechnology). ▲Additionally, in 2018 KNU was evaluated as the best university in the field of biopharmaceuticals (School of Biomedical Science, Division of Biomedical Convergence). ▲In 2017, KNU received the same markings in the fields of Electronic semiconductor (College of Information Technology, Department of Electronics Engineering), Refinery Petrochemical (College of Engineering,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and Cosmetics (College of Health Science, Department of Department of Herbal Medicine Resource). ▲In 2016, KNU's Division of Architectural,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succeeded to receive the best university in Architecture (Construction). ▲In 2015, KNU was awarded as the best university in the food division (Department of Food Science & Biotechnology)



#### 삼척캠퍼스 「도계 대학도시 조성사업」 첫 발 내딛다

Samcheok Campus takes the first step in building Dogye University City Development Project

강원대학교와 삼척시는 2월 16일(화) 삼척시청 상황실에서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양여 협약식」을 개최했다.

강원대와 삼척시는 해발 860m 고지에 위치한 강 원대 도계캠퍼스와 도계읍내를 연계해 재학생들 에게 더욱 편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폐광지 역 활성화를 위한 '도계읍 대학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계 대학도시' 조성의 첫 번째 사업인, 「도계 복합 교육연구관」은 도계읍 전두리 옛 석공 평화사택 부지에 2019년부터 약 80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47㎡ 규모로 2020년 12월 준공됐다. 강원대와 삼척시는 「도계 복합교육연구관」이 폐광기금으로 조성된 만큼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하는 '도계 대학도시 조성사업'의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강원대는 도계 복합교육연구관에서 도계캠퍼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수업을 비롯해 ▲재학생 RC(Residential Campus)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맞춤형 Open Class 강좌 개설 ▲보건과학대학 전공봉사활동 등을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양호 시장은 "강원대학교와의 지속적인 협의· 노력과 폐광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힘입 어 건립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도계 복합교육 연구관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성공사례로 평 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헌영 총장은 "대학과 삼척시, 지역주민들의 하나 된 염원이 오늘의 복합교육연구관 양여 협약식을 있게 한 것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복합교육연 구관 건립이 도계 대학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Samcheok City held the <sup>r</sup>Concession Ceremony for the Transfer of Dogye Complex Education Research Center<sub>J</sub> in the situation room of Samcheok City Hall on February 16 (Tue).

G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Samcheok City Hall on February 16 (Tue).

cheok City have been promoting the "Dogye-eup University City Project" to provide a more comfortable learning environment for enrolled students while revitalizing the abandoned mine area by connecting the Gangwon University Dogye Campus, located at an altitude of 860m, with the Dogye-eup area.

The Dogye Complex Education Research Center」 which is the first project in creating the 'Dogye University City', finished began construction on 2019 and finished on December 2020. A total of 8 billion won was invested to build the center on the site of the old mason peace house in Jeondu-ri, Dogye-eup. The building consists of a basement level, is 3 stories high and the total floor area is 2,447 m². As the 「Dogye Complex Education Research Center」 was build with the fund made from the abandoned min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Samcheok City hopes that it will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the "Dogye University City Development Project," which promotes mutual growth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communiti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utilize the center to offer liberal arts classes for freshmen at the Dogye campus, ▲operate RC (Residential Campus) programs for enrolled students, ▲offer open class courses tailored to local residents and ▲employ it as a place to carry out volunteer activities related to their major for students at College of Health Sciences.

Mayor Yang-ho Kim said, "We were able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through continuous discussions and collaborative hard work with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local residents of the abandoned mine area actively participated as well. I will do my best so that the Dogye Complex Education Research Center will be evaluated as a successful case of co-prosperity between regions and universities."

President Heon-young Kim said, "I think the concession ceremony for today's complex education research center is truly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byproduct of the unified desire of the university, Samcheok city and the local residents. I expect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lex Education Research Center to serve as a cornerstone for the successful promotion of the Dogye University City Project."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36 Korea NU10 MAGAZINE 37



##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다시 뜨겁게! 다시 자랑스럽게!

Bringing Back KNU Pride and Glory

HOMEPAGE www.knu.ac.kr SNS www.facebook.com/ knuofficial1946



####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선정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elected for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경북대학교는 대구시(시장 권영진)와 함께 정부 부처합동사업인 '2021년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총 1,204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경 북대 서문 일대는 연구개발:기술 창업 및 지역 협 력 기능이 합쳐진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예 정이다. 특히 대구시는 도심융합특구 사업 및 도 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이 사업으로 경북대 서문과 옛 경북도청 부지, 삼성 창조캠퍼스를 잇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앞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대가 제안한 캠퍼스혁신파크는 총 3만2,000 ㎡ 규모로, 경북대 제2운동장 일대에 조성된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로 총 2단계(1단계 2021~2027년, 2단계 2027~2030년)로 구분해 추진된다. 1단계 사업에서 산학연혁신허브센터, 전문R&D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이 조성될계획이다. 건축면적 2만2,000㎡ 18층 규모인 산학연혁신허브센터(경북대 ACT메인센터)에는 100여개의 기업연구시설. 창업보육, 사업지원 및 레지던시 공간이들어서며, 2022년에 착공해 2024년 준공된다. 2027년 이후 조성 예정인 2단계 사업에는 기업연구소와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대학과 지역의 특화산업 분야를 위한 2개동(Future NEST, Tech-Summit)이 추가로 건립될 예정이다

경북대는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으로 AI(인공지능), ICT 및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기술혁신 핵심 인프라와 R&D시설, 혁신인재 양성, 창업 및 기업성장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과 인재가 먼저 찾는 혁신의 산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신규일자리 3,000개,500여 개 보조일자리, 20~30대청년층 고용비율 65%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Daegu Metropolitan City (led by Mayor Kwon Young-Jin) an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NU) have been selected to undertake the joint government-ministry project, '2021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With a total funding of KRW 120.4 million, the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es will be established at the West Gate of KNU to promote research development,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start-ups. Along with the revitalization of the former G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site and Daegu Samsung Creative Campus, KNU's West Gate campus innovation park is expected to lead Daegu City's initiatives on 'Special Convergence Zone Development' and 'New Deal on Urban Regeneration.'

The total area of the campus innovation park is set to be 32,000 m<sup>2</sup> on the grounds of the 2nd Sports Ground at KNU's West Gate, and the project is to be administered in two phases: the length of the first phase will be from 2021~2027 and the second phase from 2027~2030. In the first phase, construction will commence in 2022 and finish in 2024 with the establishment of complexes including the Industrial-Academic Innovation Hub Center, R&D Center, and Business Incubation Center. With 18 floors and an area of 22,000 m<sup>2</sup>, the Industrial-Academic Innovation Hub Center(ACT Main Center) plans to hold around 100 corporate research facilities, business incubators, support systems, and residencies. The second phase administered after 2027 will focus on the expansion of 2 new buildings (Future NEST, Tech-Summit) comprising the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and Startup Support Center.

Through the founding of this campus innovation park, KNU aspires to build an innovative infrastructure comprised of high-quality support systems with a focus on AI, ICT, and Big Data that both businesses and specialized individuals seek to find.

#### 2040 탄소중립캠퍼스 조성 선언!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o Build 2040 Carbon Neutral Campus!

경북대학교는 지자체와 민간기업과 손잡고 탄소 중립과 지역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2040 탄소중립 캠퍼스' 조성을 선 언했다.

경북대는 대구광역시, 현대일렉트릭, 태영건설과 '대학캠퍼스 탄소중립 공간 조성사업' 공동 추진 을 위한 업무 협약을 5월 10일 경북대 본관 5층 중 앙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학·관이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 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북대 의 '탄소중립 캠퍼스'는 민간주도 차세대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이다. 주관기관 인 경북대는 탄소중립 R&D 기반 조성 및 인재 양 성, 산업화를 지원하고, 대구시는 정부 정책 공조 와 규제 해소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참여기 관인 현대일렉트릭과 태영건설 등이 1,500억 원 을 투자해 제로에너지 빌딩 구축, 캠퍼스 마이크 로 그리드 구축 등을 지원한다. 향후 다양한 국비 지원사업 수주 등을 통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북대는 2017년 기준 배출전 망치인 순 배출량 2만6,363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2040년까지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000여 명의 에너지 융복합형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에도 함께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북대의 성과는 대구 관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로 탄소중립을 확대해 향후 대구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스마트 그린시티, 스마트 산단을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s recently partnered with private enterprises and the local government to build the first carbon neutral campus in Korea to promote carbon neutrality and regional energy industries.

The agreement on 'Developing Carbon Neutral University Campuses' between KNU, Daegu Metropolitan City, Hyundai Electric, and Tae Young E&C was established on May 10th at KNU's Central Conference Room. This university, industry, and government collaboration provides a new model that aligns with the national government initiative to transition into a carbon neutral society by 2050. Most notably, KNU's 'Carbon Neutral Campus' is to be a pilot project of the private sector facilitating an energy industrial ecosystem.

As the organizing institution, KNU will develop found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R&D) and foster specialists on carbon neutrality, while Daegu Metropoli-

tan City will offer administrative assistance and alleviate governmental regulations. Participating firms such as Hyundai Electric and Tae Young E&C plan to invest KRW 100 billion for the construction of a Zero-energy building and a campus Microgrid, while various governmental funds amounting to KRW 200 billion are also to be allotted to these sustainable development projects.

In undertaking the initiative on carbon neutrality, KNU aims to decrease the reported greenhouse gas emissions of 26,363 tons in 2017 to 0 tons by 2040, as well as nurture around 1,000 professionals on energy convergence and carbon neutrality. Furthermore, lasting effects are to be expanded not only to loca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but also to the entire city of Daegu, drawing the city closer to becoming a Smart Green City with smart industrial complexes.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38 Korea NU10 MAGAZINE



## 경상국립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통합으로 혁신과 상생의 길을 열어갈 경남의 국가거점국립대학

National Flagship University of Gyeongsangnam-do, opening the way to innovation and coexistence through integration

HOMEPAGE www.gnu.ac.kr SNS

• ww.facebook.com/ smartGNU





#### 경상국립대-광동제약-부산대, 대형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항비만 신소재 개별인정 건강기능식품 개발 위한 기술이전'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wangdong Pharmaceutical, and Pusan National University sign a hefty contract on technology transfer:

"TechnologyTransfer Contract for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ly Recognized Health Functional Foods for New Materials for Anti-Obesity."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부산대학교 산학협 력단-광동제약 등 3개 기관은 '항비만 신소재 개 별인정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 을 체결했다.

특허 및 기술 연구개발자는 경상국립대 원예학과 강남준 교수와 부산대 원예생명과학과 최영환 교 수 두 명이다.

강남준 교수는 "이 신소재는 기존에 개발되지 않은 신규 품종으로 동물실험 결과, 다른 항비만 기능성 원료 대비 낮은 농도에서도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라고 밝히고 "부산대 최영한 교수와 함께 10여 년 동안 연구해온 것이 결실을 맺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강남준 교수 등에 따르면, 이번에 계약 체결하는 신물질은 비만동물모델 대상 항비만 효과 측정 결과, 체중 및 복부피하지방 감소와 간조직·지방세포의 지방축적억제 효과를 보이면서도 간과 신장의 부작용은 거의 없어 항비만약 약학적 조성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높은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 광동제약은 축적된 연구개발 노하우를 활용해 이신소재 추출물 기술을 적용한 체지방 개선 개별인 정형 건강기능식품 상품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기준 국내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시장은 약 1,000억원 대로 추정된다.

Three institutions, includ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Group, Pusan National University (PNU)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Group, and Kwangdong Pharmaceutical, signed the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for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ly Recognized Health Functional Foods for New Materials for Anti-Obesity."

The patent and technology R&D researchers are GNU Department of Horticulture Professor Kang Nam Jun and PNU Department of Horticultural Bioscience Professor Choi Young Whan.

Professor Kang said, "This material is a new kind that has not been developed previously. Animal experiments confirmed that it has the effect of reducing body fat even at a lower concentration than other anti-obesity functional ingredients. What I have been studying for 10 years with Professor Choi at PNU has come to fruition."

According to Professor Kang and others, the new substance contracted reduces weight and abdominal subcutaneous fat and inhibits fat accumulation in liver tissues and fat cells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anti-obesity impact in an obese animal model. However, it has almost no side effects on the liver and kidney. As a result, it showed a high potential for use as a pharmaceutical ingredient for anti-obesity drugs or health functional foods.

Kwangdong Pharmaceutical announced plans to develop a product called "individually recognized health functional food for reducing body fat" by applying this new material extract technology using its accumulated R&D expertise. As of 2019, the local market for body fat reduction health functional food is estimated at USD 89 million.

**'2021년 진로체험버스' 경상권역 운영 기관 선정** 대학 유일하게 선정··· 사업비 1억3.000만 원

2021 Career Experience Bus selects in Gyeongsang Area: GNU, the only university chosen with USD 115K 경상국립대학교는 교육부의 진로체험 격차 해소 프로그램인 '2021년 진로체험버스 사업'에 대학 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경상국립대는 2021년 진로체험버스 경상권역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3,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경상국립대 입학처는 2017년부터 대학진로탐색 캠프 운영기관 4년 연속 선정, 지역특화진로체험 프로그램 4년 연속 운영 대표기관 선정등 진로체험 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 기부와 지역사회 공헌을 끊임없이 수행해왔다.

이광호 입학처장은 "입학처가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진로 탐색과 체험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들 이 2021년 진로체험버스 경상권 운영기관 선정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대외적으로 교육 기부 역량 을 인정받은 쾌거"라고 설명했다.

이번 진로체험버스 사업 기관은 1차 사업 운영 계획서 평가로 권역별 심사 대상 기관을 추려낸 뒤, 2차 발표·면접 평가(온라인)로 최종 선발했다. 기관·대학들이 치열하게 경쟁한 결과 선정 기관 중대학으로는 경상국립대가 유일하게 진로체험 버스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대학들이 소외지역 진로 체험 사업을 포기할 때도 경상국립대는 온라 인으로 진로탐색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 외지역 학생들의 꿈과 끼를 지원해 왔다. 이번 진 로체험버스 사업 선정 또한 그런 역량을 대외적으 로 인정 받은 것이다.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was the only university selected for the "2021 Career Experience Bus Project," a program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bridge the career experience gap.

Selected as a running institute in the Gyeongsang area for the Career Experience Bus in 2021, GNU will receive USD 115,700 for project expenses. Since 2017, the GNU Admission Office has continuously made education donations and contributions to the community by bridging

the career experience gap after being chosen as a university career exploring camp–running institute and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for running a specialized regional career experience program for four consecutive years.

Director of Admission Office Gwangho Lee explained, "The courses that the admission office has been trying to explore and experience career paths for underprivileged students played major roles in being selected as the operating institute for the Career Experience Bus in the Gyeongsang area in 2021. It is a splendid achievement that has been recognized for its capability to donate to education externally."

The first step in the Career Experience Bus selection was choosing the institutions to be screened by region by evaluating their business operation plans. After the initial screening, the process further involves a second presentation and interview evaluation (online) for selection. As a result of the fierce competition between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GNU was the only university chosen as a career experience bus operator.

Even when other universities gave up career experience projects in disadvantageous areas because of COVID-19 last year, GNU has developed online programs to support students' dreams and talents. Its selection for the Career Experience Bus project proves it has such capabilities externally.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40 Korea NU10 MAGAZINE



#### 시대를 열어가는 담대한 지성 Leap forward, PNU

Audacious Intellects Leap forward, PNU

HOMEPAGE www.pusan.ac.kr SNS https://www.facebook.com/ PusanNationalUniv



#### 부산대 주도 「국립대 회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국립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국유재산 매각대금 대학 귀속 가능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Act Led by PNU Has Been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Proceeds from the Sale of State-owned Property Acquired with the National University's Own Funds Can Be Retained by the University

국립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의 처분 수입금을 대학회계 세입으로 귀속해 대학의 발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대학교는 그동안 열악한 국립대학들의 재정난 타계를위해 이 개정안 통과를 적극 주도해 왔다.

기존 대학회계법에 따르면, 국립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에도 국유재산으로 보아 매각을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금으로 정부로 귀속돼 대학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국립대학 총장들은 대학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대금을 대학회계로 귀속시켜해당 대학의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수년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법령 개정을 촉구해 왔다.

특히, 부산대는 이 과정에서 열악한 재정난에 시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 한 재원 확충 방안으로 이 법률 개정을 최초로 제 안하고 지속적으로 국회를 설득하는 등 개정을 적 극 주도해 왔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에 달려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열악 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국립대학이 더욱 발전하고, 대학의 발전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골 고루 균형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 의미를 평가했다.

On February 26, a partial amendment to the Establishment of Accoun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of National Universities Act has been passed in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act allows national universities to vest the proceeds from the disposal of stateowned property acquired through their own funds in the university's accounting revenues and use them as financial re-

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universit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actively leading the passage of this revised bill to help poor national universities overcome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In the case of the existing University Accounting Act, even when a national university sold property acquired with its own financial resources, the proceeds of the sale became income for the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fund which returns to the government. Thus, the university could not unilaterally use the proceeds because the funds acquired were regarded as state-owned property.

In recent years, the presidents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have continuously urged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amend the laws, so that if they sell state property acquired through the university's own financial resources, the proceeds of the sale can be added to the university accounts and used as a financial re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In particular, PNU has taken an active role in changing the rules by proposing amendments to the laws for the first time. PNU has continuously worked to persuade the National Assembly as a way to expand the financial resources available for the development of all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many of which are suffering from serious financial difficulties.

Cha, Jeong In, preside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expressed his evaluation of this change stating,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or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Korea depends on the role and development of national universities. I hope that this amendment to the act will help the national universities in financial difficulty to develop more. Also all regions of our country will have an opportunity to be developed evenly and in balance based on these universities' development."

#### 「BK21 스마트강의실」 부산대 13곳 구축 대학원 교육환경 혁신 첨단 시스템 도입

13 Establishment of *BK21 Smart Lecture Room* in PNU
PNU Has Introduced Advanced
System for Innovative Educational
Environment for Graduate School

2020년 교육부의 '4단계 BK21사업'에서 전국 대학 2위를 달성한 부산대학교가 대학원생의 연구·교육을 위한 전용공간과 교수·학생들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첨단시스템이 도입된「BK21스마트강의실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

부산대는 대학원 혁신 고도화를 위해 4단계 BK21 사업 1차년도 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13개 스마트 강의실을 구축하고 올해 3월 신학기부터 활용에 들어갔다.

부산대는 BK21 대학원혁신사업의 교육몰입도 증진을 위한 스마트 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BK21 스마트강의실'을 구축했다. 부산대 대학원혁신실은 4단계 BK21사업에 참여하는 교내 교육연구단(팀)을 대상으로 BK21 스마트강의실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13개 강의실을 선정했다. BK21 스마트 강의실은 부산캠퍼스 11개실, 밀양캠퍼스 2개실에 각각 설치됐다.

이번에 구축한 BK21 스마트강의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갈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방식의 수업방법(PBL, TBL, BL 등)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첨단 강의실로, 학습자 참여 중심의 혁신적인 수업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를 위해 벽면 글래스 보드, 개인용 디바이스 활용 가능한 미러링 시스 템 등을 갖췄으며, 학습활동 추적 녹화시스템을 통해 교수자의 강의내용을 녹화할 수 있다. 그 외 에도 1인용 책걸상, 전자칠판, 전자교탁, 단초점 프 로젝터 등의 기자재 교체를 통해 최상의 환경에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Pusan National University, ranked 2nd among universities nationwide in the 4th stage BK21(Brain Korea21) Projec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2020, has completed the *BK21 Smart Lecture Room Construction Project*. The project has introduced a dedicated space for research and education for graduate students and a state-of-the-art system for interactive communication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PNU has built 13 smart classrooms with a budget of 1 billion won in the first year of the 4th stage BK21 project in order to encourage graduate school innovation. These classrooms began to be used in the new semester in March this year.

PNU has established the BK21 Smart Lecture Room program to help create a smart environment to enhance the educational immersion in BK21 graduate school innovation projects. The PNU Graduate School Innovation Office selected 13 classrooms after receiving applications for the *BK21 Smart Lecture Room* from the oncampus educational research teams participating in the 4th stage BK21 project. 11 BK21 smart lecture rooms were installed on the Busan campus and 2 rooms were installed on the Miryang campus.

The newly built BK21 smart lecture rooms are state-of-the-art classrooms with an environment where various teaching methods (PBL, TBL, BL, etc.) can be implemented to reflect the diverse learning needs of learners who will be leader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roject introduced a system that can employ these innovative classes for learner-centered teaching methods.

In order to encourage learners to actively participate, the classes have been equipped with a glass board on the wall and a mirroring system that can be used for personal devices. Similarly, the contents of instructor lectures can be recorded with the learning activity tracking and recording system. In addition, PNU has replaced other classroom equipment such as individual desks, an electronic blackboard, an electronic lecture desk, and a single-focus projector so that each class can occur in the best learning environment possible.





42 43 Korea NU10 MAGAZINE Korea NU10 소개 Introduction to Korea NU10

# INTRODUCTION KOREA NU10

#### 서울대학교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 총장 오세정 President Oh Sejung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 1946년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을 갖춘 국내 최초의 종합 국립대학교로 출범
- 1975년 관악캠퍼스 설립으로 캠퍼스 종합화 달성
- 교육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선도
- Established as the first national university with 9 Colleges and 1 Graduate School
- Centralized dispersed campuses in Gwanak
- Played centr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 충청남도



#### 총장 김수갑 President Kim Sukab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Korea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 1951년 초급농과대학으로 시작, 2018년 신수도권 중심대학으로 도약 원년
- 2014~2018 학생만족도 1위(NCSI 조사),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설립 운영
- 조화, 품격, 미래를 바탕으로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를 그리는 충북대학교
- Beginning as a junior agriculture college in 1951, CBNU has leapt to its current status as a major university in the new capital area
- Standing as the No. 1 university in Student Satisfaction (NCSI Survey), from 2014 to 2018, CBNU has established and ran the Sejong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olicy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raws a Dynamic future based on the three core values of Harmony, Dignity and Future



#### 총장 김동원 President Kim Dongwon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96 Korea

- 1947년 인가된 도립 이리농과대학과 전주 명륜대학, 군산대학관을 모태로 개교
-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창의인재 양성
-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 2012, 2015, 2017년 학생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
- Founded as Iri Provincial College of Agriculture (1947), consolidated with Myeongnyun College (Jeonju) and Gunsan College (1952)
- Creative talents cultivated by innovative education platform
-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student service satisfaction by KS-SQI(2012, 2015, 2017)



#### 총장 송석언 President Seok-Eon Song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3243, Korea

- 1952년 도립 초급대학으로 시작, 도립 제주대학 승격 후 국립대학 이관
- 2008년 제주교육대학교 통합,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 교육기관 발돋움
- 경쟁력 있는 지식창출로 국가발전 선도
- In 1952, Jeju Provincial Junior College was founded. It became the four-year Jeju Provincial College in 1955 and designated as a National University in 1962
- Merged with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08. Become a world-class university alongside Jeju, a free international city
- Leading national development with competitive knowledge creation



#### 총장 이진숙 President Jin-Sook Lee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34, Korea

- 1952년 도민의 일두일미(一斗一米) 운동으로 설립, 대덕연구단지에 위치
-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대학으로 성장 목표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착수, 세종특별자치시에 캠퍼스 설립
- Established through the rice donation campaign by every resident in 1952 in Daedeok Science Town
- •The goal is to be the leading university of Korea spreading toward the world together with the residents
- Construction of Sej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tarted. The campus will be constructed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 1952년 도민 고등교육 열망으로 설립, 호남 제일의 거점국립대학교로 성장
- 자유와 평화 민주 인권 수호, 한국 민주주의 발전 주도
- 4차 산업시대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 Since its foundation in 1952 upon the desire of the local citizens for higher education, CNU has become the top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in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 CNU has led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safeguarding the nation's freedom,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 Fostering creative convergence talents in the 4th industrial era



전라북도

### 부산대학교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춘천

충청북도

Chunacheonabuk-da

강원도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부산

대구

경기도

청주

대전

#### 총장 차정인 President Cha, Jeong In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46241, Korea

- 1946년 5월 15일 국내 최초 종합 국립대학으로 출범
- 진리·자유·봉사의 건학 이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 6개 학문분야 QS평가 세계 101-200위권, 융합과 통섭형 엘리트교육
- The nation's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on May 15th, 1946 • Guided by the university's founding values of truth-freedom-service to become a global research-oriented university
- Six departments are ranked in the top 101~200th by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Elite education through the fusion and convergence of disciplines

####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총장 김헌영 President Kim Heonyoung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1 Kangwon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4341 Korea

- 1947년 춘천농업대학 출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건학 이념
- 춘천·삼척·도계 3곳의 멀티캠퍼스 체제 구축
- 거점국립대 취업률 1위(2018년 1월 정보공시 기준)
- Established Chuncheon Agricultural College in 1947, with the founding spirit of the quest for truth based on practical science
- Integrated three campuses in Chuncheon, Samcheok and Dogye into a multi-campus system
- Achieved No.1 employment rate among loc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Based on the information notice in January 2018)



#### 경북대학교 KN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총장 홍원화 President Won-Hwa Hong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Korea

- 1946년 9월 국립대학 승격(대구사범대학,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
- '진리·긍지·봉사' 교시로 글로벌창의인재 '첨성인' 양성
- QS 세계 대학 취업능력 랭킹 국내 7위
- Upgraded to National College in September 1946 (comprised of the Colleges of Education, Medicine, and Agriculture)
- KNU established the concept of the talented, globally creative student, or 'Cheom-seong-in', under KNU's Educational philosophy of 'Truth, Pride, Service'
- KNU ranks 7th in Korea in the QS World University Employability Rankings



#### 

वर्धने वर्षा के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총장 권순기 President Soon Ki Kwon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33

33, Dongjin-ro, Jinju, Gyeongsangnam-do, 52828 Korea

- 2021년 3월 1일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통합
- 생명과학, 항공기계시스템, 나노신소재·화학분야 국내 최고 경쟁력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경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대학 • On March 1, 2021, forme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nd
-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erged int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Korea's best competitive potential in the fields of life sciences, aerospace & mechanical engineering, nano &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and chemistry
- •The leading university for Gyeongman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a regional innovation project based o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universities



Korea NU10 MAGA7INF K-NU10 포커스 K-NU10 Focus

#### K-NU10 FOCUS 2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확대와 지역균형 뉴딜정책

**Expanding the Obligation to** Hire Local Talent in **Public Institutions and Balanced Regional New Deal Policies** 



김석수 부산대학교 기획처장 Kim Seok-soo Dean of Planning at



중앙정부가 2021년을 '지역균형 뉴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하였다. 지역균 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것으로 지역을 새롭게(new), 균 형 있게(balanced) 발전시키겠다는 약속(deal)이다. 지역균형 뉴딜의 정책목표는 지역경제혁신, 지역의 삶의 질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이다. 이를 위한 4가지 중점 추진방안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실행,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의 확산 지원, 공 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지원,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 조 성이 핵심이다. 총투자규모 160조 원 중에서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75조 원 이상 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역균형 뉴딜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 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범부처 및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 징 중의 하나이다.

The central government has declared that 2021 will be the first year of a "Balanced Regional New Deal." The Balanced New Deal is a regional expans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 a promise to develop the region in a modern, balanced manner. The policy goals of the balanced regional New Deal are regional economic innovation, improved quality of life in the reg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four main ways to promote this are to implement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support the spread of local government-led New Deal projects, support the promotion of leading New Deal projects, and create a sustainable balanced New Deal ecosystem. Of the total investment of 160 trillion won, more than 75 trillion won is known to be invested in balanced regional New Deal project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lanced regional New Deal is being jointly promoted by all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such as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예컨대, 국토교통부는 중장기 정책으로 구현된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과 함 께 혁신도시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한다. 지자체의 이전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혁신플랫폼 을 구축하고, 지역대학과 산업계 등과 협력하여 특화 학과의 개설 및 교육을 통 하여 지역균형 뉴딜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국가균형발전 이라는 화두에 걸맞은 정책이자 사업추진 방식이다.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중심 으로 전환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와 지향성이 엿보인다.

그러나,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균형 뉴딜 정책의 대다수는 예상 총투자 규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방대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 이 전제가 돼야 한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것으로 사뭇 기대되는 지역균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 정책 말고는 다른 묘책은 없을까?

최근 언론을 통해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확대 개선'에 대한 소식을 심 심찮게 접하게 된다.

기존의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지역 이전 공공기관은 해당 소재지의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세부적으로 지역 이전 공공기관은 2018년 18% 의 무채용 비율로 시작하여 2022년까지 30%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지켜야 한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경우는 2022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30% 공공기관 채용의무비율을 상회하여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달성 수준은 지역마다 제각각이며, 공 공기관 역시 지역인재 채용의무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존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는 혁신도시법상 의 이전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가 해당 '이전 지역'에만 국한되 었다. 이로 인하여 지역 이전 공공기관이 목표 채용비율 30%를 달성하기에는 우 수한 인재풀 확보에 애로를 겪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지역인재 30%(2022년 목표) 의무채용비율을 50%로 늘리 되 '30%(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인재) + 20%(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인재) 비율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 회에 발의됐다. 이 법률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우수인재 확보 등 제 문제를 해결 하고 정책 도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진일보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 각이다.

One example of this cooperation i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long with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of innovative cities operating under mid- to long-term policies, collaborating with other related entities such as local government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It is a method of building innovation platforms based on local governments'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and innovative cities, and pursuing the goal of balanced regional New Deal talent developm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ongoing education of specialized departments in cooperation with local universities and industries. It is a policy that matches the topic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ith a method of implementing proiects. It shows the central government's willingness and determination to shift the axis of national development to regional centers.

11

However, the majority of the balanced regional New Deal policies promoted by pan-ministerial projects is premised on a massive fiscal spending expansion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indicated by the projected total investment. In order to successfully complete a balanced regional New Deal that is expected to revive the local economy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is there no other trick besides a fiscal spending expansion policy?

We have recently heard a lot of news about the "improvement of the obligation to hire local talent in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existing Innovative Cities Act, local public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hire local talent. In detail, public institutions that move to a specific region start with an 18% mandatory employment rate beginning in 2018 and move to a 30% mandatory employment rate by 2022. Currently, some regions, including Busan, employ local talent exceeding the 30% mandatory employment ratio of public institutions, which will be required by 2022.

However, varients in the level of achievement of mandatory recruitment of local talent by public institutions is being reported, and that public institutions have not maximized the positive effect of the mandatory recruitment system. The existing obligation to hire local talent in public institutions was limited to the relevant region that the public institution moves in to, under the Innovative Cities Act. As a result, local relocation public institutions had a hard time securing the exceptional talent needed to achieve their target employment ratio of 30%.

In the meantime,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a revision to the Innovative City Act, which calls for an increase of the mandatory employment ratio to 50%, of which 30% is from schools in the relocation region, and 20% is from schools in other non-capital areas. The revision of the law is thought to be a good alternative to solving problems such as securing sufficiently talented people and furthe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troduced policies



K-NU10 포커스 K-NU10 Focus

이 같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전 지역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풍부한 인재풀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지역 간에도 우수한 인재의 교류가 활 발히 이루어질 수 있어서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또한 대표적인 취업 선호 대상인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희망과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지역대학은 우수한 신입생 유치 및 대학 경쟁력의 확보가 용이해 진다.

예컨대, 부산지역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남대학교 졸업생이 지역인재 (20%) 채용의무제의 적용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전남지역 한국 전력공사에는 부산대학교 졸업생이 지역인재(20%) 채용의무제의 적용을 받고 취업에 우선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지키면 서 다양한 지역의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지역대학도 해당 지역 이외 타 지 역에 이전한 다양한 공공기관에 졸업생을 취업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 게 된다. 지역인재에게 기회의 창이 넓어진다. 지역대학과 지역에 하나 둘 사람 이 모이고, 지적자산과 인적자산이 넘쳐나고, 지역혁신과 교류발전을 선도할 집 단지성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전국의 지역대학이 대혼란에 빠져 있다.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다고 아우성이다. 지역의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일부 국립대학도 목 표하는 신입생 충원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과도한 수도권 집 중, 지역의 일자리 부족, 지역대학과 지역의 소멸 현실화,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모든 정책이 만병통치약이 되는 경우는 없다. 이 질병에도 통하고 저 질병도 치 유하는 그런 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의 확대 및 개선이 이전 지역의 대학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도권 지역 학교에는 손해가 된다는 인식도 있을 것이다. 자유경쟁 원리에 위배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이라는 사회현상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인적자원, 물적자원, 금융자원, 정보자원 등을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하나 도 남김없이 빨아들이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확대 및 개선과 같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정책은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황폐하 고 불 꺼진 지역을 방치한 채 야경 찬란한 수도권만 바라보고 가꾸며 살아갈 순 없다. '건강한 지역'이 글로벌 도시 수도권과 대한민국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기억 해야하다.

막대한 재정지출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 한국판 지역균형 뉴딜 정책의 성공 사 례를 보고 싶지 않은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50%(30%+20%) 확대' 를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자. 제도개선 하나가 지역대학과 지역이 웃음 지 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If the system is improved, the local public institutions which are relocating will be able to secure the abundant talent pool they require, while at the same time actively exchange talent between regions, which will greatly help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local universities will be able to attract top freshmen and secure university competitiveness due to the increased hope and possibility of students getting jobs at public institutions, which are highly preferred for

12

For example, graduates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an get job preference at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in Busan under the local talent (20%) recruitment obligation system. At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in Jeollanam-do Province, graduates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will be beneficiaries of the local talent (20%) recruitment obligation system and will receive priority in employment. Public institutions will be able to secure talented people in various regions while keeping the obligation to hire local talent. Furthermore, local universities will be able to ensure more opportunities for their graduates to be hired by a range of public institutions that may have moved to other regions. The window of opportunity widens for local talent. People will surely gather in local universities and regions, injecting intellectual and human assets, and the collective intelligence will work to lead regional innovation and exchange development.

Right now, local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are in mayhem. The cynical saying that "universities will begin to shut down in local regions in the order at which their campus' cherry blossoms bloom," is becoming a reality. Some national universities, not only local private universities, have failed to achieve their target recruitment rate. A vicious cycle of decreasing school-age population, excessive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lack of jobs in the smaller regions, realization of the extinction of local universities and neighborhoods, and weak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s becoming a reality. Now this vicious circle needs to be broken.

Not all policies are perfect. There is no such drug that works to bolster a disease and also cures the host of the disease. While the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the target system for hiring local talent in public institutions will help universities in the regions where public institutions relocate to, there will also be a perception that schools in the metropolitan area will be disadvantaged. One might say that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free competition. Howeve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sucking up human resources, material resources, financial resources and information resources in all parts of the country like a black hole due to the ongoing social phenomenon of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area.

Policies that are the cornerston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uch as the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the obligation to hire local talent, should be recognized and promoted as Affirmative Action. We cannot look in awe at the bright ligh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le neglecting the devastated darkness around it.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healthy local regions are the true source of the global urban metropolitan a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as a whole.

Wouldn't it be nice to see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balanced New Deal policy in Korea, where massive fiscal spending is not required? First of all, let's push for a "50% (30%+20%) increase in the obligation to hire local human resources at public institutions."

One system improvement could be the starting point for a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here local universities and regions can grow together.



Korea NU10 MAGAZINE

#### K-NU10 FOCUS 3

## 지역 혁신성장의 심장, 「캠퍼스 혁신파크」

The heart of regional innovation growth, Campus Innovation Park



강원대학교 산학연구부총장 Dr. Choi, Hwang Kyu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Vice President, Industry-University and Research Affairs



####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소개 및 추진배경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 로, 캠퍼스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 사업 공모 당시 전국의 32개 대학에서 제안서를 제출해 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으며, 강 원대는 1차 서류심사에서 9개 대학으로 추려진 후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3개 대학(강원대, 한남대, 한양대ERICA)에 국·공립대학 중 유일하게 이 름을 올렸다.



#### Introduction and background of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13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is a project in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tartups to transform idle sites within universities into an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 At the time of the 2019 project competition, 32 universities nationwide submitted proposals and the competition rate exceeded 10:1.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as selected as one of the nine universities in the first document screening. After the second onsite inspection, Kangwon University was the only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y to be selected for the project out of the of the three universities that were finally chosen (Kangwon University, Hannam University, and Hanyang University ERICA).

The purpose of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is to overcome the crisis in universities and regions caused by the reduction of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centralization of resources to the metropolitan area. Additionally, it aims to realiz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providing regional innovation growth engines. Existing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projects focused on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by utilizing universities' infrastructure. However, the Campus Innovation Park targets for long-term growth by improving occupancy conditions for tenant companies by building new corporate occupancy facilities, providing corporate management support, and organically linking various government projects to start-ups.

K-NU10 포커스 K-NU10 Focus 14 Korea NU10 MAGAZINE 15



강원대 캠퍼스 산학단지' 부지 현황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ampus Industry-Academic Complex' Site Status



강원대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 조감도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Campus Innovation Park 「Industry-Academic Innovation Hub」 view map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목적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대학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혁신성장동력을 제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 하는 것이다. 기존의 산학협력 사업은 대학이 인프라를 활용해 단기간에 산학협 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캠퍼스 혁신파크는 기업입 주시설 등을 새로 건립해 입주 여건을 개선하여 창업부터 기업경영까지 여러 정 부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지원한다.

####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현황 및 향후계획

강원대는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Open Campus' 발전전략에 기반해 강원대 동문 인근에 '캠퍼스 산학단지' 구축을 계획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캠퍼스 혁신파크에 앞서 조성된 컨테이너 창업단지인 'KNU 스타트업 큐브(K-큐 브)'는 약 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창업동아리실, 코워킹스페이스, 메이커스 페이스 등을 갖추고 있다. K-큐브는 개소 1년만에 학생창업 6건과 강원도 최초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강원대는 K-큐브 를 지역주민과 청소년, 기업들에 적극 개방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 춤형 산학협력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강원도, 육군2군단과 공동 으로 추진한 '강원열린군대' 사업, 춘천시가 주도하는 대학도시·문화도시 사업 등 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지난 1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66,500㎡ 규모의 기존 자연녹지지역(용적률 100%)을 모두 준공업지역(용적률 400%)으로 변경해 최대 4배의 고밀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1단계 사업은 약 50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1 년 하반기에 「산학연혁신허브」를 착공해 지상 8층, 연면적 약 2만2,300㎡ 규모 로, 2023년 5월 준공 및 기업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업무 공간뿐 만 아니라 기업 간 교류가 수시로 이뤄지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150여개의 기업과 지원기관을 유치하고, 일자리 900개를 창출할 것 으로 기대되다

강원대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통해 강원도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바이오, 정밀의료, 디지털치료기기 분야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를 추가로 조성해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와 핵심기술의 기업 이전,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계획이다.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도 추진한다.

####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기대효과

캠퍼스 혁신파크의 성공은 혁신기업과 우수 인력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이들이 흔쾌히 찾아와서 일하고(work), 살고(live), 즐길 수 (play)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반경 3km 이내에 도서관과 스포츠센터, 학생회관, 평생교육원, 박물관 등이 위치해 있어 편리하고 가까운

복지·문화시설을 제공하며, 잘 짜여진 대중교통망과

저렴한 주거·사무공간, 매력적인 거리와 휴양·녹지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 Current status and future plans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Campus Innovation Park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build a "Campus Industry-Academy Complex" near the East Gate based on the "Open Campus" development strategy that aspires to share the excellen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possessed by the university with the local community. This plan has been carried out step by step starting from 2016 to 2019.

'KNU Startup Cube (K-Cube)', a container start-up complex created with a budget of around 5.3 billion won prior to the campus innovation park, consists of a start-up club room, co-working space, and maker space

K-Cube achieved excellent results with six student startups created within the cube and by being designated as the first "new technology startup cluster" in Gangwon-do within one year of open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as focused on actively opening K-Cube to local residents, youth, and businesses. Moreover, it has aimed to utilize the space as a place for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that reflects regional characteristics.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is cooperation include the "Gangwon Open Army" program jointly promoted by Gangwon-do and the 2nd Army Corps, University City and Cultural City project led by Chuncheon City.

In particular,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campus innovation park was designated as a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 in January. Accordingly, all existing natural green areas (100% floor area ratio) of 66,500 m² were transformed to semi-industrial areas (400% floor area ratio). As a result, the university could utilize the area which is 4 times higher in density.

The first phase of Gangwon National University's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is expected to cost around 50.5 billion won. On the second half of 2021, the construction of the  $^{\Gamma}$ Industry-Academic Innovation Hub\_J which will be 8 stories high with a total floor area of about  $22,300\,\mathrm{m}^2$ , is expected to be initiated and is scheduled to finish construction and receive tenants companies on May of 2023. This hub is created not only as a work space, but it will be built to allow for frequent communications between companies. Th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ampus Innovation Park is expected to attract 150 companies and support institutions while creating 900 jobs.

Through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ims to utilize University's strength in connection with Gangwon-do's strategic industry to create a convergence and complex industrial complex in the fields of bio, precision medicine, and digital medical devices based on big data. In the fu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build 'Digital Therapy Device Development Support Center'to support industry-academia joint research, transfer core technologies, and discover overseas market. It also intends on being designated as special regulation-free zones for telemedicine and Innopolis Innotown.

#### Expected effects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ampus Innovation Park

The success of the Campus Innovation Park will depend on its ability to attract innovative companies along with talented workers. The key i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employees are willing to work, live, and play.

Th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ampus Innovation Park is located within a 3km radius of the Central Library, BaeckRyung Sports Center, Student hall, Institute of Life-long Education, and University Museum. Additionally, it consists of a well-organized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s, inexpensive residential and office spaces, attractive streets, and recreation and green spaces. The close vicinity of these convenient facilities guarantees the welfare of employees.

Tenant companies can receive variou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such as tax reduction and application of special regulations. Young entrepreneurs can easily find business partners and receive information through open communication.

K-NU10 포커스 K-NU10 Focus /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16 Korea NU10 MAGAZINE

입주기업들은 세제 감면 혜택과 규제특례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기업인들은 사업 파트너를 찾기 쉽고, 정보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다.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교수들로부터 기술 이전과 자문도 수월하게 구 할 수 있으며,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유 동인구 증가와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맺음말

국가와 지역발전에서 거점국립대학의 역할이 중요한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대학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혁신주체 중 가장 우수하고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강원대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 산업발전에 필요한 요람이자 플랫폼, 전진기지로 만들어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쏟을 것이다.

강원대는 대학의 캠퍼스(Campus)를 '지역혁신의 캔버스(Canvas)'로 삼아, 대학과 정부, 지역사회가 머리를 모아 미래사회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그려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가 대학·지자체·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지역혁신의 허브이자, '일터-삶터-배움터-쉼터'가 연계된미래 청년친화형 복합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한다.

Technology transfer and advice can easily be obtained from professors who have the necessary skills. The park can also attract talented employees. Moreover, the park will surely contribute in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through the increase of floating population and promotion of consumption.

#### Concluding remarks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role of a national universities is important in promoting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Universities have the best and riches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mong the various innovation actors that make up the local communit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ill make every effort to become a platform necessary for educational, cultur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through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ill use the university's campus as a 'canvas for regional innovation,' and draw a new model of innovation that can lead the development of the future society together with the university, government, and the local community.

Through this project, I am confident that the Innovation Park on the campus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ill become a hub of regional innovation where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s, and companies achieve mutual growth. On top of that, it will surely establish itself as a youth-friendly industrial complex in the future, where 'work-life-study-learning-shelter' may coexists.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문화편의지구 개요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ampus Innovation Park Cultural District Overview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 국가거점국립대의 역할과 발전 방향

**Roles and Directions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 김수갑 충북대학교 총장

Su Kab Kim Presiden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A New Higher Educational Ecosystem to Change Crises Into Chances

#### 충북대학교 6대 핵심역량(CHANGE) CBNU set 6 essential competencies



국가거점국립대(KNU10)는 거점국립대총장협의 회를 구성한 10개의 국립대학교를 지칭한다. 그모 체는 1996년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 대 등 5개 대학이 참여한 국립대협의회로, 이어 강 원대, 경상대, 서울대, 제주대, 충북대가 추가 가입 하면서 현재와 같은 구성이 되었다.

협의체의 결성은, 지역 차원에서 인재 확보, 산학 협력 및 국가 균형발전을 지탱하는 댐 또는 플랫폼 으로서의 역할과 국가 차원에서 고등 공교육을 실 행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 는 회원 국립대학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회원 대학들은 각기 각고 의 노력으로 훌륭한 성취들을 이루었고, 협의회를 통해 대학 및 교육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대응하면서 국립대 발전과 교육개혁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20년 2차 협의회는 "거점 국립대"에서 "국가거점국립대"로 그 명칭을 통일 하기로 결정했는데, 앞으로 국가거점국립대들은 명실상부하게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인재 양성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대학으로서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것이다. KNU10 means 10 Korea national universities which organize The Council of Presidents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It started as The Council of National University with 5 members: Kyungpook NU, Busan NU, Jeonnam NU, Jeonbuk NU, and Chungnam NU. Afterwards, another 5 national universities, Kangwon NU, Gyeongsang NU, Seoul NU, Jeju Nu, and Chungbuk NU. joined it to become an existing council now.

17

The council was established by the needs of the members: at a regional level, to acquire talented individuals, cooperate with industry, and support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 as a platform or a dam, and at a national level, to improve the images as a higher education facility. Since then, for the last 20 years, every member has had a lot of achievements with great effort, addressed major issues of universities and the whole educational system together, and also tried to improve the status of a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18 Korea NU10 MAGAZINE







"앞으로 국가거점국립대들이 공유와 협력, 연대를 통해 교육혁신의 계기를 만들고 양질의 교육을 보편적으로 누리는 학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앞으로도 극복 해야 할 난제들이 계속 던져질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대변되는 지구 적 차원의 환경 변회와 함께 학령인구의 감소와 같 은 국내적 요인이 더해지는 가운데, 우리 대학들은 한편으로는 신입생 유치, 재정 확보 등의 곤란을 계속 겪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교육, 연구의 내용과 형식에서 큰 전환을 시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국가거점국립대들은 당면 과제들을 하 나하나 해결해가는 데 있어서 더욱 활발한 교류, 소 통을 통해 지혜와 역량을 나눌 필요가 있다.

국가거점국립대들이 존립 기반으로서 지역을 거점으로 한 학문 생태계를 형성해가는 것은 향후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대학은 교육, 연구와 사회 각영역을 기능별로 연결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학들은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활성화를 선도함으로써 그 존립 기반을 안정화할필요가 있다. 특히 지나친 수도권 집중의 현실적구조를 고려할 때, 국가거점국립대들에게 지역거점의 확립을 위한 노력은 절실하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지역의 소멸), 나아가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 지자체,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부가 적극 추진하는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좋은 본보기이다.

이와 관련해서 충북 플랫폼은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 충북 완성'을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 3대 핵 심분야를 선정(① 제약바이오 ② 정밀의료 의료기 기 ③ 화장품·천연물)하고 충북도를 비롯한 자치 단체, 도내 15개 대학, 약 50개의 혁신주체들이 참여 하여 인재양성, 맞춤형 취업, 정주요건 실현을 목표 로 추진하고 있다. 오송바이오텍을 설립하여 참여 대학간 공동커리큘럼 개발 공유운영도 하게 된다. 교육 혁신은 대학에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급변하 는 환경 속에서 주도적으로 지식을 수용하고 생산 해내는 새로운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대학 교육에서 역량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2016)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 적 역량, 협력 및 소통 능력 등의 역량이 필요하다 고 지적한 바 있다. 충북대도 창의성(Creativity), 휴 머니즘(Humanism), 능동성(Activeness), 공동체 (Neighbor Minded), 글로벌(Global), 전문성(Expertise) 등 6대 핵심역량(CHANGE)로 지정하고, 새로 운 인재상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해

한편 교육 형식의 면에서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19의 충격은 역설적이게도 획기적인 전기를 제공 해주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에도 이미 경험한 비대 면 교육과 온라인 컨텐츠들의 장점들은 기존 대면 교육의 장점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대학 교육의 모델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때 국가거점국립대는 공유대학, 공동교과 운영, 학생·교수 교류 등의 상호 협력을 확대해가면서, 그것을 뒷받침할 대학체제, 제도의 변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개혁은 충북대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도 중 요한 전기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충북대는 2021 년 개교 70주년을 맞아 "지역의 뿌리로 70년, 세계로 꽃피울 100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올해를 전기로 새롭게 도약하려는 꿈을 꾸고 있다. 이러한 충북대의 방향 설정은 지역거점을 기반으로 위상을 확보해온 대부분의 국가거점국립대의 경우에도 대체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대학들이 서열화와 경쟁 속에서 양적 성장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도 지금까지 지역에 뿌리를 내려온 국가거점국립대들은 앞으로 한층나아간 성장을 위해서 교육, 연구 자체를 충실화하고 개선해가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성장 단계로 진입하는 대학들이 감 당해야 할 과제들은 더 무거운 것들이다. 아이가 자 라는 동안 자주 키를 재지만 성인이 되면 키를 재는 것보다 더 세심하고 정밀하게 설계된 검진을 받게 된다.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 는 가치관, 실행력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다. 다가 오는 미래는 늘 상상하는 것보다 불확실하다. 다변 하는 환경에 민활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 육 기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지배구조를 건전 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기를 극복하 는 아이디어는 자주 주류나 중심이 아닌 곳에서 나 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개혁의 큰 틀 속에서도 가능한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교육, 연구 실험이 시 도될 수 있도록 공존을 허용하는 개방적 태도를 갖 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시기에 공공성을 담보하 는 국립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national university and lead to an educational reform. In 2020, the 2nd council decided to change its name, "major national university 10" into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Therefore, KNU10 will try much harder than before to play a major role in cultivating talented individuals at a national as well as a regional level.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round universities, however, is predicting challenges of the future. With global climate changes indicated by the beginn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domestic problems such as a nationwide decrease in students, universities have to face a very difficult situation. They should cope with problems like attracting new students, securing finances, etc. and also try to make significant transition to more advanced and developed education and research system. Therefore, KNU10 needs to share their wisdom and abilities to solve urgent problems via more active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It is important for KNU10 to establish region-based academic ecosystem for the future. Universities are a kind of platform because they can connect every part of society with education and research. Thus, KNU10 needs to stabilize its regional foundations by leading coexistence with the region and its revitalization through the platform. It is much more important for them to do so, considering the present condition, that is, excessive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crisis of regional universities might result to regional crisis (even regional extinction) and even national crisis, so that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s, and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collaborate one another to cope with it. 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based on the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university, which is 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a good example.

For this, Chungbuk platform set a goal, that is, the establishment of global biohealth hub Chungbuk, and selected 3 core parts of biohealth industry (1) Pharmaceutical bio 2 precision medicine medical devices 3 cosmetics natural substances) and all the innovative leaders, such as Chungbuk

province, local governmental institutes, 15 universities of Chungbuk, and about 50 regional innovators joined and have tried to their best to cultivate talented individuals, provide customized job referral opportunities, fulfill the settlement requirements, etc. In addition, after establishing Osong Bio-tech, related universities will develop joint curriculum and operate it together.

An educational reform is a challenge that could give a university more fundamental opportunities of chang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eeds a new type of talented individual who can play a leading role in accepting and creat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in a rough situation. Thus, the importance of competency education at a university is on the rise. The World Economic Forum (2016) emphasized tha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competencies such as problem-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ability, creativity, cooperative and communicative ability, etc. should be needed. Therefore, CBNU set 6 essential competencies (CHANGE), that is, 'Creativity, Humanism, Activeness, Neighbor-Minded, Global, Expertise, and has tried innovative educational challenges to meet the needs of By the way, as for educational format, shocking COVID-19 has ironically offered a milestone since last year, so after pandemic, the advantages of non-face-to-face education and online contents will be mingled with those of the existing face-to-face education and make a new model of university education. Thus, KNU10 will enlarge its cooperation, such as sharing university, joint curriculum, exchange of students and professors, etc. And to support this, it is expected that KNU10 will change its system and scheme. An educational reform is meaningful to

the directions of CBNU. This year, CBNU got its 70th anniversary and dreams about new stunning development with a slogan, '70 years as Regional Roots, Another Century Towards The World. This aim could be applied to other national universities because they also have been developed with their region. Even if almost all universities have focused on their quantitative growth in competitive condi-



tions like lining-up of university, regionally rooted national universities have to consider their qualitative growth with faithful and advanced education and research for further development.

Their tasks necessary for them to enter a new stage of growth, however, are much heavier than before. For example, children often measure their height as they grow up, but adults need more specific and precise medical checkup, Likewise, qualitative growth needs appropriate values, executive ability, and patience. The upcoming future is always uncertain as imagined. To respond swiftly to changeable environment, it is needed to organize educational functions of a university effectively and maintain a sound governance structure. Usually, the ideas that make it possible to cope with crisis are not generated from the main stream or the center. So, it is also needed to have a liberal attitude which allows coexistence to make various education, research, and experiment in many fields possible within the big picture of educational reform. As a result, the role of a national university will be much more important because it quarantees its publicity.

"From now on, KNU10 should make chances of educational reform by sharing, cooperation, and solidarity rather. And also KNU10 should make every effort to establish educational ecosystem which makes it possible to enjoy quality education in a general way."

## 회원대학 주요 이슈

Important Issues of Member Universities

















서울대학교 SNU

전남대학교 CNU

전북대학교 JBNU

제주대학교 JNU

충남대학교 CNU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Jeju National University



충북대학교 CBNU

강원대학교 KNU

경북대학교 KNU

부산대학교 PNU

경상국립대학교 GNU

Pusan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22 23 Korea NU10 MAGA7INF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1년 1학기. 서울대학교는 사회적 필요성과 연구 영역의 심화를 위해 세 학과를 신설했다. 임상간호학과와 헬스케어융합학과, 그리고 의료기기산업학과가 바로 그 주인공.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신설학과를 소개한다.

In the first semester of 2021, **Seoul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three departments to address the societal demands and expand into new areas of research: the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the Department of Health Care Convergence, and the Department of Medical **Device Development.** Here we proudly introduce three new departments that just began their first steps.

#### 간호학 발전의 초석 임상간호학과

Laying the cornerstone for nursing studies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Science** 

임상간호학과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주관의 석 사과정 신설학과로, 중환자 전문간호과정과 종양 전문과정으로 나뉘어 각 분야의 전문간호사를 양 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진강 교수는 "전문간 호사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간호를 요구하는 환자 와 그 가족에게 직접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는 동 시에 간호사들이 근거중심의료를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일조한다"고 전문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환자 전문간호사와 종양 전문간호사는 간호사들의 역량을 증대시키 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며 세밀 한 교육을 바탕으로 환자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The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Science is a new department for master's programs established at the College of Nurs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epartment has two majors - the Advanced Critical Care Nursing major and the Advanced Oncological Nursing major - with the aim to foster advanced practice nurses in each field. Professor Chin-Kang Koh said, "Advanced practice nurses provide direct and appropriate nursing care to patients and families who require complex and difficult care. At the same time, advanced practice nursing helps nurses provide evidence-based medical care effectively," emphasizing the essential role of advanced practice nurses. Professor Koh also added that "the department will be providing professional education to advance the capabilities of the nurses specializing in critical care and oncology" and expected that the intensive training from the department would contribute to improving patient safety and their quality of life,



임상간호학과장 고진강 교수 Chin-Kang Koh, Chair of the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Science

####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

A Community of Knowledge, Leading the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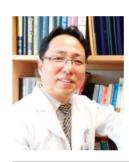
HOMEPAGE www.snu.ac.kr

 www.facebook.com/ SeoulNationalUniversity • instagram/snu.official



#### 의료 분야의 4차산업혁명 선도 헬스케어융합학과

Lea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Medicine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헬스케어융합학과장 이학종 교수 Hak Jong Lee, Chair of the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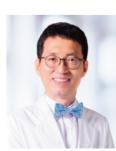
헬스케어융합학과는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소속의 박사과정으로, 의료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공감 하에 신설됐다. 분당서울대병원과의 계약체결을 통해 학술연구계와 의료현장의 협력을 꾀했다. 2 년간의 박사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이 분당서울대 병원에서 근무하며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이 다. 이학종 교수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융합과학기 술대학원의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의 활약으로 헬스케어 전반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물인터넷(loT), 유전자데이터 기술, 임상 시험 등 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각종 기 술을 다룰 것"이라며 헬스케어융합학과의 폭넓은 연구 영역을 설명했다.

The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is a doctoral program at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established under the consensus that the university should respond

proactively towar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medical field. A memorandum with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a Hospital formed ties between the academic research community and the medical field. After completing the two-years doctorate program, graduates of this department will be working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to conduct relevant research. Professor Hak Jong Lee commented that "The department will be conducting comprehensive and empirical research on health care, thanks to the continuous effort made by professors from diverse fields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and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or Lee further explained the department's broad research area, which would "encompass various technologies in the healthcare industry, including IoT, genetic data and technology, and clinical trials."

####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융합학문 의료기기산업학과

Convergent Studies in the age of Digital Healthcare Department of **Medical Device Industry** 



의료기기산업학과장 김희찬 교수 Hee Chan Kim, Chair of the Department of Medical Device Industry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속의 석사, 석박사통합 일 반대학원 과정으로 신설된 의료기기산업학과는 의료기기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의료기기 관련 통합 적 소양을 갖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김희찬 교수는 "의료기기 산업은 지속적인 고성 장을 이루어 오고 있는 몇 안 되는 산업 분야 중 하 나로 의료기기 산업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은 우리 대학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라며 신설학과에 대한 자부심을 보였다. 국내외 의료기기 산업의 주요 기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어 학생들이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계획 또한 밝혔다.

Established as a general master's and integrated master's and doctorate program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e Department of Medical Device Industry aims to cultivate students

with practical skills equipped with comprehensive knowledge on medical devices for the medical device industry. Professor Hee Chan Kim proudly introduced the new department and said, "The medical device industry is one of the few high-growth industry areas that has experienced continuous growth. Fostering experts in the medical device industry is a crucial mission that our university must accomplish." Professor Kim also presented a plan to sign MoAs with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anies in the medical device industry to provide an educational environment where students can hone their practical skills.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24 Korea NU10 MAGAZINE 25



#### 긍지와 희망,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Pride & Hope Cherish the Truth, Enlighten the World HOMEPAGE www.jnu.ac.kr SNS www.facebook.com/ ChonnamUniv



#### 전남대 '용봉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CNU Yongbonggwan Designated as National Cultural Property

전남대학교 옛 본관이었던 '용봉관'이 근대문화유 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등록됐다.

'용봉관'은 1957년 12월부터 1996년 5월까지 30년 가까이 대학본부로 사용된 건물로 전남대 70년 역사를 나타내는 상징성과 5·18민주화운동 항쟁지 중하나라는 역사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특히, '용봉관'은 건물 중앙부를 수직으로 높게 처리한 탑상형 구조물과 이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한부분이 입면·평면 수법으로 처리됨으로써 1950~1969년대 공공건물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어 근대 건축사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현재 대학역사관으로 1층은 영상실, 민주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층에는 상설전시관, 기획전시실로 조성돼 체험 및 교육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3층에 5·18연구소를 운영하며 민주화운동 역사와 관련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전남대 '용봉관'은 지난 2004년 9월 인문대학(1호관) 건물과 2018년 8월 의과대학 건물에 이어 세 번째로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됐다.

Yongbonggwan, the former main building of CNU, was registered as a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recognition of its value as a modern cultural heritage site.

Yongbonggwan was used as the university headquarters of CNU for nearly 30 years from December 1957 to May 1996. It has represented the 70-year history of CNU and it also was one of the main venues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0. In addition, it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cultural icon of early modern architecture as it is a towershaped structure with a high, vertical center while each side forms a horizontal symmetry, which embodies the unique structure of public buildings of the period ranging from 1950 to 1969.

Currently, as the CNU History Hall, Yongbonggwan offers a video room and an exhibition hall for democratic movements on the first floor, and a permanent exhibition hall along with a special exhibition hall on the second floor for educational programs. In addition, the 5.18 Research Center is located on the third floor, where scholars are actively conducting research related to the history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Now, Yongbonggwan is the third nationally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on CNU campus after Building 1 of the College of Humanities and the College of Medicine Building, which were designated in September 2004 and August 2018, respectively.

####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선정

CNU Selected for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전남대학교가 4월 1일 학내에 산학연 협업 및 기업입주 공간, 주거 및 문화·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추진 한 이번 공모에는 전국 23개 대학이 나설 정도로 큰 관심과 경쟁을 벌였으며, 최종적으로 전남대와 경북대가 선정됐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미래 신산업 입지가 혁신환 경과 인적 자원이 풍부한 도심을 선호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대학의 입지적 장점과 혁신역량을 적극 활용해 산학협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학을 새 로운 혁신성장생태계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시작된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전남대는 공모 선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학내 보조운동장 일대를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뒤, 오는 2024년까지 산학협력 공간은 물론 주거와 문화· 복지시설을 갖춘 2만2,000여㎡ 규모의 캠퍼스 혁신파크를 건립할 예정이다.

전남대는 이를 도시재생사업과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그리고 창업투자펀드조성사업과 연계해 상 승효과를 최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이번 1단 계 '산학연 혁신허브'에 이어 후속사업인 2단계 '어 메니티 혁신허브', 3단계 '글로벌 혁신허브' 등 모 두 9년에 걸친 단계별 사업을 통해 '콤팩트 시티형 첨단산업단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 선정은 광주광역시와 북구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을 보탰으며,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의 2단계 개발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한 바 있어 앞으로 순조로운 사업진행이 기대된다. 정성택 총장은 "캠퍼스 혁신파크는 혁신창업 기 반을 다지고,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과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진기지로서 우리 지역 의 산학협력과 창업지원 생태계를 대폭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NU was selected for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that intricately creates combined spaces for the cooperation of industry, university, and researchers in concert with residential areas and cultural facilities for welfare on campus.

According to CNU, it has been selected as one of the two successful candidates, along wi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for the project, the results of which were announced on April 1st. Jointly promo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the project was subjected to heated competition and interest, receiving proposals from 23 universities nationwide.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selects universities with innovative capabilities and strategic locations to accommodate future industries as well as excellent programs to foster talent for those industries. The project is based on the cooperation of three major governmental ministries to advance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and establish a new ecosystem of innovation on university campuses.

Selected by the project, CNU is going to establish an industrial complex in the annex to the CNU Sports Ground by the first half of next year. The facility will be completed with a residential area, cultural and welfare

facilities as well as an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space by 2024.

CNU will maximize the synergy effect of this cooperative effort by linking this project with projects it has conducted, such as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Project, and the Investment Fund Raising for Start-ups Project. In addition, following the first step of the project, know as the Industry-Academic Innovation Hub, the follow-up projects such as the second step Amenity Innovation Hub and the third step, Global Innovation Hub will gradually be expanded into the Compact City-Type High-Tech Industrial Complex through 9 years of step-by-step projects.

Proactive support from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the Buk-gu District Office
contributed to the selection of this project
as well as the business agreement which
was signed between CNU and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Corporations for the promotion of the second-stage development
plan, which is expected to proceed
smoothly in the future.

CNU President Jung Sung-taek said,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significantly expand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and startup support ecosystem in our region as a forward base to lay the foundation for innovative start-ups, foster start-ups us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d create high-quality jobs."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26 Korea NU10 MAGAZINE



##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 The Best Glocal University HOMEPAGE www.jbnu.ac.kr SNS www.facebook.com/jbnu1947



#### 연구생애 全주기 우수연구자 지원 '연구중심대학' 기틀 다진다

JBNU provides support for excellent research professors throughout their career Laying the foundation for a "research-oriented university"

전북대학교가 교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애 전주기에 걸친 우수 연구자 지원책을 통해 '스타 교수' 육성에 나서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전북 대는 연구생애 전주기 우수 연구자 지원 체계 확 립을 위해 올해부터 우수 연구 교수인 '펠로우'를 매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임용 5년 이내 젊은 연구자를 선발하는 'JBNU Young Fellow'와 부교수 및 승진 5년 이내의 교수 를 선발하는 'JBNU Fellow', 교수 승진 5년 이후부 터 만 60세까지의 교수를 선발하는 'JBNU Star Fellow', 그리고 만 61세 이상과 정년 이후까지 지 원하는 'JBNU Regents Professor' 등을 지정해 연 구 생애 전주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첫 JBNU Star Fellow에는 김민호 교수(무역학과)를 비롯해 박상준 교수(경영학과), 윤영상 교수(화학공학부), 이존화 교수(수의학과), 이중희 교수(대학원 나노융합공학과), 정길도 교수(전자공학부) 등이 선정됐다.



또한 JBNU Fellow에는 김석원 교수(체육교육과), 김종훈 교수(수의학과), 나석인 교수(유연인쇄전 자전문대학원), 박찬희 교수(기계설계공학부), 양 은석 교수(철학과), 오효정 교수(문헌정보학과), 유 동진 교수(생명과학부), 장점석 교수(생명공학부), 정광운 교수(고분자섬유나노공학부), 정현이 교수 (식품영양학과)가 각각 선정됐다.

JBNU Young Fellow에는 김종웅 교수(신소재공학부), 박삼복 교수(회계학과), 박지연 교수(국제인문사회학부), 서동호 교수(식품공학과), 선종학 교수(경영학과), 이태희 교수(전자공학부), 최경숙 교수(무역학과)가 선정됐다.

또한 JBNU Regents Professor에는 김철생 교수 (기계설계공학부)와 김형석 교수(전자정보공학부), 왕은철 교수(영어영문학과)를 임명해 정년 후에도 전주기에 걸쳐 연구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JBNU Young Fellow에 선정된 교수들에게는 최대 5,000만 원의 연구기자재 지원금을 제공해 초반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s attracting attention for its efforts to cultivate "star professors." Thanks to its support programs, outstanding researchers are supported throughout their entire career, improving their competitiveness and enhancing the reputation of the University. This year, JBNU has identified over a dozen Fellows; outstanding professors who will receive research support from the University. JBNU Young Fellows, for example, will be provided with a grant of up to 50 million won for research equipment.

The University will appoint 'JBNU Young Fellows', early-career researchers who have worked at the University for five years or less; 'JBNU Fellows', associate professors and professors within 5 years of their first promotion; 'JBNU Star Fellows', professors

who have been working for 5 and who are less than 60 years old; and 'JBNU Regents Professors', professors older than 61 or retired, but who will nevertheless continue to receive research support from the University.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this year's JBNU Star Fellows: Prof. Min-Ho Kim (International Trade), Prof. Sang-June Park (Business Administration), Prof. Yeoung-Sang Yun (Chemical Engineering), Prof. John-Hwa Lee (Veterinary Medicine), Prof. Joong-Hee Lee (Graduate School of Nano Convergence Engineering), and Prof. Kil-To Chong (Electronic Engineering).

Those selected to be JBNU Fellows are: Prof. Suk-Won Kim (Physical Education), Prof. Jong-Hoon Kim (Veterinary Medicine), Prof. Seok-In Na (Graduate School of Flexible and Printable Electronics), Prof. Chan-Hee Park (Mechanical Design Engineering), Prof. Eun-Suk Yang (Philosophy), Prof. Hyo-Jung Oh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f. Dong-Jin Yoo (Life Sciences), Prof. Jum-Suk Jang (Biotechnology), Prof. Kwang-Un Jeong (Polymer Nano Science and Technology), and Prof. Hyun-Ah Jung (Food Science and Nutrition).

JBNU's Young Fellows are: Prof. Jong-Woong Kim (Materials Engineering), Prof. Sam-Bock Park (Accounting), Prof. Ji-Youn Park (International Studies), Prof. Dong-ho Seo (Food Science and Technology), Prof. Jong-Hak Sun (Business Administration), Prof. Tae-Hee Lee (Electronic Engineering), and Prof. Kyoung-Suk Choi (International Trade).

Finally, Prof. Cheol-Sang Kim (Mechanical Design Engineering), Prof. Hyong-Suk Kim (Electronic Engineering), and Prof. Eun-Chull Wang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will be the new Regents Professors.

#### 전북대 국제화역량 '최고 등급' 국가거점국립대 가운데 '유일'

Jeonbuk National University Receives the "Highest Grade" in Internationalization Capability 전북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제(IEQAS)' 평가에서 국가거점국립대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우수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는 교육 국제화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국내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는 제도다. 평가지표로는 필수지표인 불법체류율과 대학의 국제화 사업 계획 및 인프라, 등록금부담률, 언어능력, 만족도 및 관리등이 있다.

전북대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입국 현황을 비롯한 자가 격리 및 방역지침 준수 등 대학의 위기 대처 능력 을 인정받았다. 인증 대학 모니터링에서 모든 평 가지표를 통과해 인증을 유지하고 우수인증대학 에도 선정됐다.

전북대의 이번 우수 인증대학 선정은 한국유학종 합시스템·교육부 공식 사이트 등에 공시되고, 법 무부 소속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외국 정부 등에 '우수인증대학'으로 등록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VISA) 발급 절차 간소화, 정부 초청 장학생(GKS) 수학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 부여 등 교육정책과 사업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Jeonbuk National University was the only Korea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to receive the "excellent accredited university" designation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IEQAS)" survey performed by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The IEQAS evaluation is designed to improve the ability of Korean universities to attract top international students and otherwise enhance local students' internationalization. Universities are evaluated on the basis of, among other things, (1) the perc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that remain in the country illegally, (2) the university's internationalization business plan and associated infrastructure, (3) the burdensomeness of the tuition, (4) language ability, (5) student satisfaction, and (6) quality of managemen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tood out for its risk management practices, including quarantine facilities and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which proved to be of particular importance in a year of COVID-19. JBNU received high scores across all evaluated metrics, maintained its accreditation, and was acknowledged as an 'excellent accredited university'.

Jeonbuk National University's accolade will be announced on the official websites of Korea Study Abroad Comprehensive System,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a result, JBNU will now qualify for various benefits, including a simplified process for issuing student visas, additional points when student's select a university for Korea Government Scholarship, etc.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28 Korea NU10 MAGAZINE



##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기본에 충실한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To the Basic, For the Future HOMEPAGE www.jejunu.ac.kr SNS www.facebook.com/ 제주대학교-1536145756655629



#### 학령인구 감소 속 신입생 충원율 100% 기록 대입전형 지속적 개선 통해 대학 경쟁력 높여

The recruitment rate of new students hit 100% despite the ongoing decrease in enrollment stemming from increased university competitiveness resulting from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college entrance screening system 제주대학교가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충 원율 100%를 기록했다. 등록 마감결과 정원 내모 집인원 2088명 중 2088명이 등록해 미등록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제주대는 학생 및 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입전형을 개선해오고 있다.

특히 도내 학생들이 제주 지역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전형을 지속적 으로 운영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전형 등을 골고루 운영해 학생 선택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여기에다 총 16개의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내외 고교를 대상으로 제주대대입 전형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온점이 이같이 높은 충원율을 보인 요인으로 제주대는 분석했다.

다양한 전형 도입 노력의 결과로 제주대는 2019 년부터 2년 연속 교육부로부터 '고교교육기여대 학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Jeju National University recorded a 100% recruitment success rate for the 2021 Freshmen Recruitment Period.

Enrolling the full allotment of 2,088 freshmen for the 2,088 quota, the university recorded no unregistered spots.

Jeju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continuously improving the college entrance screening system to minimize the burden on students and parents, and to enhance the fairness of the college entrance procedure.

In particular, it continued to operate a special entrance program for local students so that students in the province could develop into exceptional talent to lead the Jeiu area.

Furthermore, the school made an effort to give students more options to choose from by running a diverse entrance program that includes comprehensive student record screening, student record academic screening and a nationwid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Korean KSAT).

On top of this, Jeju National University attributed its high recruitment rate to the fact that it has been steadily making efforts to deliver its own college entrance screening process to students attending high schools in and out of the province through the operation of 16 high school-university programs.

As a result of efforts to introduce various types of screening programs, Jeju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selected for the "High School Education Contribution University Support Project"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two consecutive years, starting in 2019.

#### 데이터사이언스 등 첨단학과 신설

Establishment of Data Science and Other New High Tech Departments

제주대학교가 2022학년도부터 데이터사이언스 학과, 소프트웨어학부 인공지능전공, 바이오메디 컬정보학과 등 3개 첨단학과를 신설한다.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및 인공지능전공은 4차 산

업혁명시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는 기술에 중점을 둔다. 바이오메디컬정보학과는 제주지역 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메디컬 및 헬스분야에 중점을 둔 인재를 양성한다.

제주대는 신설되는 첨단학과가 시대흐름을 적극 수용하면서 우리 대학 미래의 혁신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tarting in 2022, Jeju National University will establish three high-tech departments, including the Departments of Data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School of Software, and the Department of Biomedical Information.

The departments of data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focus on technologies that collect, analyze and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epartment of Biomedical Information trains students who focus on bio-medical and health fields using biological resources within Jeju island.

Jeju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allow the newly established high-tech departments to actively engage the trend of the times and become an innovation icon for the future of the university.

### 건축공학전공, 산업계 선정 '최우수 학과' 등극

Architectural Engineering Major Selected as 'Best Department' by the Industry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이 건축 분야 산업계가 뽑은 최우수 학과(전공)로 선정됐다. 이 는 2016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최우수로 선 정된 후 연속으로 뽑히게 된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0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 제주대 건축공학전공은 건축분이에서 평가를 받은 41개 대학 중 '최우수'로 뽑힌 12개 대학에 포함됐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대학이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대학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제대로 지원하는지를 살펴보는 조사다.

Jeju National University's Architectural Engineering major was selected as the best major by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department has been selected as the best major every year since being selected #1 in the 2016 industry-viewed university evaluations.

According to the 2020 university evalua-

tion by the Korea University Education Council, Jeju National University's Architectural Engineering major was included in the 12 colleges selected as the best among 41 colleges evaluated in the architecture field.

The university evaluation from an industrial perspective suggests the direction of university curriculum improvement, reflecting the needs of the industry as the survey examines how a university supports training human resources tailored to specific industries.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30 Korea NU10 MAGAZINE 31



#### CNU 100년, 위대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

The 100th Anniversary of CNU, a New Start for a Great Future!

HOMEPAGE www.cnu.ac.kr SNS www.facebook.com/CNUNOV



### 충남대, 세종캠퍼스 입주 확정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elected for Sejong Campus

충남대학교가 세종캠퍼스 진출을 확정지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월 3일, 세종시 공동캠퍼스(4-2생활권) 입주 대 학 선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충남대의 임대형 및 분양형 캠퍼스 입주가 확정됐다.

이번 공동캠퍼스 입주에는 총 13개 대학이 신청했으며 충남대를 비롯해 공주대, 서울대, 충북대, 한 밭대,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등 총 6개 대학의 입주가 확정됐다.

충남대의 세종캠퍼스 진출 확정은 지난 1년간, 입 주를 위한 캠퍼스 조성 계획 제출과 입주 최종 선 정에 이르기까지 충남대 구성원은 물론 지역 정치 권, 지역사회가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충남대는 6개 대학 중 유일하게 임대형, 분양형 모 두 캠퍼스를 조성하며, 입주정원 및 조성 규모 역 시 최대 규모다.

임대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캠퍼스를 조성해 충남대, 서울대, 충북대, 한밭대, KDI가 입주해 캠 퍼스를 공동 사용하며, 분양형은 충남대(4, 5구역), 공주대가 각각 독자 캠퍼스를 조성한다.

충남대는 임대형 캠퍼스에 의과대학·대학원 490

명이 입주하며, 분양형 캠퍼스는 인공지능(AI) 및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융합대학 및 융합대학원 800명이 입주하게 된다. 세종캠퍼스 입주 대학 중 임대형, 분양형 모두 입주 인원이 최다이다. 임대형캠퍼스의 경우 총 3만4,000㎡ 가운데 1만 4,990㎡로 가장 규모가 크며, 분양형캠퍼스 역시 총 6만1,086㎡ 중 3만5,984㎡(59%)로 가장 넓은

면적이 조성된다.

충남대 세종캠퍼스의 임대형캠퍼스는 연내 착공 돼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며, 분양형캠퍼스는 이르면 2024년 2월 공사를 시작하다.

이진숙 총장은 "충남대와 지역사회가 노력해 온 충남대의 세종캠퍼스 진출이 임대형, 분양형 캠퍼 스 모두 입주 확정으로 첫 단추를 꿰었다"며 "새로 운 시대의 첨단융합학문 발전을 선도하고 국기균 형발전에 기여하는 명품 충남대 세종캠퍼스를 만 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On February 3, the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nd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nnounced that they had selected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for Sejong City Joint Campus (4-2 living areas).

A total of thirteen universities applied for a space on the joint campus, six universities—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ongju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anbat University, and KDI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Policy—were selected.

The decision to choos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for Sejong Campus is highly significant in that it was the result of an all-out effort over the past year by local political circles and communities as well as members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from the submission of a campus construction plan to finally being chosen.

Among the six selected universiti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s the only university that plans to build rental and pre-sale university-owned campuses, and their occupancy capacities and sizes are the larges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anbat University, and KDI will occupy the rental campuses. At the same tim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zones 4 and 5) and Gongju University will construct their university-owned campuses. They have the most significant number of rental and university-owned residents among the universities selected for Sejong Campus.

The rental campus is the largest, covering  $14,990\,\mathrm{m}^2$  out of  $34,000\,\mathrm{m}^2$  ( $44\,\%$ ), and the university-owned one is also the largest:  $35,984\,\mathrm{m}^2$  out of  $61,086\,\mathrm{m}^2$  ( $59\,\%$ ).

Construction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s Sejong rental campus is expected to commence this year, with the school set to open in March 2024. Construction of the university-owned campus will begin in February 2024 at the earliest.

President Lee Jin-suk said, "We have taken the first step toward the establishment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s rental and university-owned campuses in Sejong, which we had been working hard to achieve with the local community. We will create a prestigiou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ejong Campus to develop advanced convergence studies in the new era and contribute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 취업률 2년 연속 거점국립대 1위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anks First for Graduate Employability for Two Consecutive Years 충남대학교가 2년 연속 거점국립대학교 취업률 1 위를 차지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월 12일, '2019년 고 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2019년 12월 31 일 기준)' 결과를 공시한 가운데 충남대는 61.1%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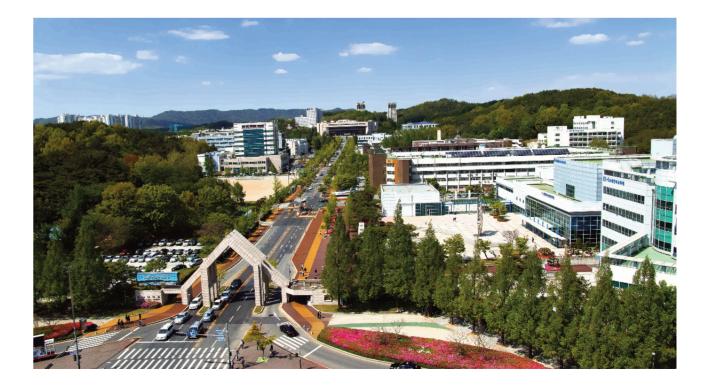
충남대는 지난해(2018년) 취업률 61.3%를 기록한 데 이어, 2019년에도 61.1%로 거점국립대 중 1위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충남대의 61.1%의 취업률은 전국 9개 국가 거점국 립대학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2018년, 2019 년 2년 연속 거점국립대 1위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Among key national universiti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anked first for graduate employability for two consecutive yea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2019 Employment Statistical Survey of Graduat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s of December 31, 2019)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61.1%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s were employed.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ecorded a 61.3% employment rate in 2018 and ranked first among key national universities with a 61.1% employment rate in 2019.

Chungnam National University's 61.1% employment rate was the highest among nine key national universities, meaning that it ranked first for two consecutive years in 2018 and 2019.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33 Korea NU10 MAGAZINE



##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A Dynamic Future that We Will Open Together

HOMEPAGE www.chungbuk.ac.kr SNS www.facebook.com/cbnu1



#### 충북대 전 구성원이 함께 만든 기념영상으로 조선팝의 흐름 따랐다!

CBNU follows the trend of Joseon POP with its 70th anniversary film!

#### 김수갑 총장, 권위를 내려놓고 학생들과 70주년 기념 영상 함께 호흡

충북대학교가 일명 '꼰대문화'를 일컫는 '라떼는 말이야'를 역사와 전통의 시간을 일구어 온 기성세대의 열정으로 표현해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메시지를 담은 기념 영상을 제작, 공개한지 1달 만에 1만6,000분를 달성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충북대는 지난 1951년 도민의 열망으로 개교한 후 7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한 포 부를 랩으로 표현했다. 특히, 김수갑 충북대 총장 이 대학의 홍보를 위해 'B급 감성' 연기에 몸을 던 졌다. 권위적이라고 생각했던 총장이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소위 '꼰대교수'로 출연 과거의 영 광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해나 가겠다는 포부를 담은 랩과 춤을 선보여 화제다. 충북대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재학생, 동문, 교직원 등 전 구성원이 함께 시나리오 구상부터 음원 및 안무 제작, 출연까지 함께 소통해 그 의미를 더했다. 충북대 동아리 '소울로직'이 조선팝의 특징을 살려 음원을 만들고 충북대 홍보대사 '해울'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무를 제작했다.

김수갑 총장은 "코로나19로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 교정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신입생들을 위로하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온 선배세대를 대표해 직접 출연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음원 제작, 시나리오 작성, 출연까지 학생홍보대사, 동문, 재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힘든 시기이지만 잠시나마 함께 웃으며 충북대의 70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대는 1951년 도민의 열망으로 개교 70 주년을 맞았으며 영상은 3분 정도로 대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비전을 랩으로 담아 누구나 즐길수 있도록 했다. 영상은 충북대 공식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HkeTKMT5y20)과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으며, 추후 안무따라하기 챌린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 President Kim, Sukab joined the film with students without a sense of authority

CBNU presented a new representative emblem and slogan to celebrate its 70th anniversary in 2021.

The 70th anniversary slogan is 'Another 70 years as Regional Roots, Another Century Towards The World'. This means that CBNU, built with all the support from local residents, has a new vision based on its 70 year old development to flourish in the world together with the region for another century.

To improve together with the country and the region, CBNU held a nationwide design contest last September to select an emblem and a slogan showing its 70th anniversary image as well as the aspiration and vision for another century. More than 200 works were submitted and the winners were selected through a strictly impartial judging process.

CBNU was built in 1951 during the Korean War by local residents. These residents wanted to cultivate leaders of the future, so each of them donated a brick and a bag of barley to build it. As a center for human resources, CBNU has developed with the region and finally marks the 70th anniversary in 2021. Taking this opportunity, CBNU has sincerely tried to reestablish an individualized plan for itself. For example, a plan titled 'CBNU Vision 2050' for another century, a specialized plan for each campus, and etc. In addition, CBNU tries to consider the way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as a national university, that is reinforcement of publicity in higher education.

CBNU has won 33 state-funded projects since 2019, which could get approximately 513 billion won from the government. Thus, it is possible to improv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rain its human resources. CBNU made the community of learning and knowledge, which consists of 758 professors who are leading experts in every field, PhDs, MDs, researchers, students, and etc. And 150,000 alumni have tried to do their best to develop CBNU. Based on these efforts, CBNU has carried out many cooperative programs such as opening the campus to co-exist and develop with the region.

To celebrate its 70th anniversary, CBNU made a Memorial Project Committee in 2020 and has been preparing many things like 7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font, film, web site, calendar, and time capsule, UI renewal project, 70th anniversary ceremony and reception, an old photo contest, and etc.



충북대 70주년 기념 영상의 한 장면 A scene from the 70th anniversary film of CBNU

#### 충북대, 본격 세종 시대 개막··· 미래형 수의학 교육시스템 확립

CBNU Begins A New Sejong Era... Established Advanced Vet Education System

#### 세종글로벌수의학캠퍼스 개교 및 세종동물병원 분원 개원

충북대학교가 본격적인 세종 시대를 맞이한다. 충 북대 세종글로벌수의학캠퍼스가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이하 행복청) 및 LH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 주관하는 세종 공동캠퍼스(임대형)를 오는 2024년 개교하는 한편, 2021년 6월에는 수의대 세종동물병원 분원을 개원한다.

충북대 수의과대학은 이번 진출을 통해 최첨단 수의학 교육을 확충함으로써 미래 수의사에게 요구되는 사람-동물-환경(One Health) 중심의 바이오메디컬 융·복합 연구 및 다양한 임상교육, 실습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세종글로벌수의학캠퍼스(수의과대학 세종캠퍼스)는 세종특별자치시 4-2 생활권에 건립될 예정이며 수의과대학 전임 및 겸임교원 15명을 비롯해 본과 3, 4학년 학생 100명, 해당 전공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50명이 이전한다.

총 임대 면적은 4,715㎡로, 그 중 기본 교육시설은 2,755㎡ 규모로 교수연구실, 학생 강의실, 실습실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시설은 1,350㎡로 교수실험 실 및 공동기기 실험실을 설치하고, 610㎡ 에 해당하는 공간을 회의실, 행정실, 동아리방 및 휴게실 등으로 구성하는 등 학생 편의시설도 확충했다.

이에 앞서 오는 6월 세종시 대평동에 충북대 동물 병원을 개원해 동물진료사업, 대학생 임상교육, 의 료요원 훈련, 동물진료 기술 개발·연구지원을 추 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동물진료 연구·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상윤 수의과대학장은 "앞으로 동물병원과 세종캠퍼스를와 연계해 수의대의 임상교육을 확대하고 연구·진료 기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Sehong Global Vet Campus & Sejong Branch Animal Hospital Open

CBNU begins its new Sejong era. The Sejong global vet campus (lease) is scheduled to open in 2024 with the support from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NAACC) and LH Land & Housing Corporation. And a Sejong branch animal hospital is open in June, 2021.

With the campus and the branch hospital in Sejong, CBNU Veterinary medicine college acquires the most advanced education system, so that it could get a chance to provide bio-medical convergent research focused on human-animal-environment (One Health), a large amount of clinical education, practice opportunities, etc., needed for veterinarians of the future.

The Sejong campus will be built in 4-2 life zone of Sejong and 15 full-time and adjunct professors, 100 3rd and 4th year students, and 50 graduate students in master's and doctorate courses are expected to move there.

The total rentable space is 4,715m². Out of that, fundamental educational facilities occupies 2,755m², including professors' offices, lecture rooms, laboratories, etc. Research facilities (1,350m²) consist of professors' laboratories and joint equipment laboratories and convenient facilities (610m²) for students consist of conference rooms, administrative rooms, clubs, lounges, etc.

Before opening the campus, an animal hospital will open this coming June in Daepyong-dong in Sejong. The hospital is planning to do various things, like animal care, students' clinical education, medical staff training, animal care R&D support, etc., so that quality animal care research and services will be possible.

"From now on, we will connect the animal hospital with Sejong campus to expand our clinical education and strengthen our research and medical treatment functions," said Nam, Sangyun, dean of veterinary college.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34 Korea NU10 MAGAZINE 35



## 통일한국의 중심대학

The Hub University of the Unified Korea

HOMEPAGE www.kangwon.ac.kr SNS www.facebook.com/knu.abs



## 「2020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6년 연속 최우수대학 선정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the 6th consecutive year in <sup>^</sup>2020 Industry Perspective University Evaluation

강원대학교가 2월 24일(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 육협의회, 경제5단체가 주관하는 「2020년 산업 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대학에 선 정됐다.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과 대학 교육체제의 부합 정도를 평가해 최우수 대학을 선정하며, 이번 평가는 건축(시공), 기계(자동차) 등 2개 분야를 대상으로, 53개대학총 81개학과가 참여했다.

이번 평가에서 강원대는 공학대학(삼척) 건축공 학전공이 '건축(시공) 분야' 최우수학과로 선정됐 으며, 전국 국·공립대학교 가운데 최다 연속 최우 수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강원대 건축공학전공(삼척)은 4년 전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한 이후, 산업계 요구에 대응한 교육과 정 개편, 취·창업 프로그램 및 현장실습 참여 확대 등 산업현장과 연계한 전공 교육을 시행해 왔다.

강원대는 지난해(2019년) 평가에서 '식품분야'농 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산업공학부 식품생명공학 전공)가 최우수 대학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 2018년 바이오의약분야(의생명과학대학 의생명 융합학부), ▲2017년 전자반도체(IT대학 전자공학 과)·정유석유화학(공과대학 화학공학과)·화장품 (보건과학대학 생약자원개발학과) 등 3개 분야 ▲ 2016년 건축(시공) 분야(도시건축학부 건축공학 전공) ▲2015년 식품분야(식품생명공학과)에서 각각 최우수평가를 받은 바 있다.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as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six consecutive years in the F2020 Industry Perspective University Evaluation hos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and 5 economic organizations on February 24th (Wed).

The 'University Evaluation from Industry Perspective' selects the best universities by evaluating the degree of conformity between the job competencies required in the industrial field and the university education system. In this year's assessment architecture (construction) and machinery (automobile) were chosen as industrial fields to be evaluated in which a total of 81 departments from 53 universities participated.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Samcheok Campus) was selected as the best department in the "Architecture (construction) field," for this year's evaluation. Amongst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KNU has been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the longest time.

Ever since KNU's Architectural Engineering Major (Samcheok) obtained 'A Grade' in the evaluation 4 years ago, it has worked to provide an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the industrial field. In order to respond to industrial needs, KNU has reorganized the curriculum by expanding opportunities in the

actual field to gain hands on experience through employment and start-up programs along with field training.

In the evaluation conducted in 2019. KNU was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in the field of food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Division of Food Biotechnology and Biosystems Engineering, Department of Food Science & Biotechnology). ▲Additionally, in 2018 KNU was evaluated as the best university in the field of biopharmaceuticals (School of Biomedical Science, Division of Biomedical Convergence). ▲In 2017, KNU received the same markings in the fields of Electronic semiconductor (College of Information Technology, Department of Electronics Engineering), Refinery Petrochemical (College of Engineering,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and Cosmetics (College of Health Science, Department of Department of Herbal Medicine Resource). Aln 2016. KNU's Division of Architectural,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succeeded to receive the best university in Architecture (Construction), ▲In 2015, KNU was awarded as the best university in the food division (Department of Food Science & Biotechnology).



## 삼척캠퍼스 「도계 대학도시 조성사업」 첫 발 내딛다

Samcheok Campus takes the first step in building Dogye University City Development Project

강원대학교와 삼척시는 2월 16일(화) 삼척시청 상황실에서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양여 협약식」을 개최했다.

강원대와 삼척시는 해발 860m 고지에 위치한 강 원대 도계캠퍼스와 도계읍내를 연계해 재학생들 에게 더욱 편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폐광지 역 활성화를 위한 '도계읍 대학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계 대학도시' 조성의 첫 번째 사업인, 「도계 복합 교육연구관」은 도계읍 전두리 옛 석공 평화사택 부지에 2019년부터 약 80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47㎡ 규모로 2020년 12월 준공됐다. 강원대와 삼척시는 「도계 복합교육연구관」이 폐광기금으로 조성된 만큼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하는 '도계 대학도시 조성사업'의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강원대는 도계 복합교육연구관에서 도계캠퍼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수업을 비롯해 ▲재학생 RC(Residential Campus)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맞춤형 Open Class 강좌 개설 ▲보건과학대학 전공봉사활동 등을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양호 시장은 "강원대학교와의 지속적인 협의· 노력과 폐광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힘입 어 건립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도계 복합교육 연구관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성공사례로 평 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헌영 총장은 "대학과 삼척시, 지역주민들의 하나 된 염원이 오늘의 복합교육연구관 양여 협약식을 있게 한 것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복합교육연 구관 건립이 도계 대학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Samcheok City held the Concession Ceremony for the Transfer of Dogye Complex Education Research Center in the situation room of Samcheok City Hall on February 16 (Tue).

G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Sam-

cheok City have been promoting the "Dogye-eup University City Project" to provide a more comfortable learning environment for enrolled students while revitalizing the abandoned mine area by connecting the Gangwon University Dogye Campus, located at an altitude of 860m, with the Dogye-eup area.

The Dogye Complex Education Research Center」 which is the first project in creating the 'Dogye University City', finished began construction on 2019 and finished on December 2020. A total of 8 billion won was invested to build the center on the site of the old mason peace house in Jeondu-ri, Dogye-eup. The building consists of a basement level, is 3 stories high and the total floor area is 2,447 m². As the 「Dogye Complex Education Research Center」 was build with the fund made from the abandoned min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Samcheok City hopes that it will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the "Dogye University City Development Project," which promotes mutual growth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communiti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utilize the center to offer liberal arts classes for freshmen at the Dogye campus, ▲operate RC (Residential Campus) programs for enrolled students, ▲offer open class courses tailored to local residents and ▲employ it as a place to carry out volunteer activities related to their major for students at College of Health Sciences.

Mayor Yang-ho Kim said, "We were able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through continuous discussions and collaborative hard work with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local residents of the abandoned mine area actively participated as well. I will do my best so that the Dogye Complex Education Research Center will be evaluated as a successful case of co-prosperity between regions and universities."

President Heon-young Kim said, "I think the concession ceremony for today's complex education research center is truly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byproduct of the unified desire of the university, Samcheok city and the local residents. I expect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lex Education Research Center to serve as a cornerstone for the successful promotion of the Dogye University City Project."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36 Korea NU10 MAGAZINE 37



#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다시 뜨겁게! 다시 자랑스럽게!

Bringing Back KNU Pride and Glory

HOMEPAGE www.knu.ac.kr SNS www.facebook.com/ knuofficial1946



##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선정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elected for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경북대학교는 대구시(시장 권영진)와 함께 정부 부처합동사업인 '2021년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총 1,204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경 북대 서문 일대는 연구개발:기술 창업 및 지역 협 력 기능이 합쳐진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예 정이다. 특히 대구시는 도심융합특구 사업 및 도 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이 사업으로 경북대 서문과 옛 경북도청 부지, 삼성 창조캠퍼스를 잇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앞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대가 제안한 캠퍼스혁신파크는 총 3만2,000 ㎡ 규모로, 경북대 제2운동장 일대에 조성된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로 총 2단계(1단계 2021~2027년, 2단계 2027~2030년)로 구분해 추진된다. 1단계 사업에서 산학연혁신허브센터, 전문R&D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이 조성될계획이다. 건축면적 2만2,000㎡ 18층 규모인 산학연혁신허브센터(경북대 ACT메인센터)에는 100여개의 기업연구시설, 창업보육, 사업지원 및 레지던시 공간이들어서며, 2022년에 착공해 2024년 준공된다. 2027년 이후 조성 예정인 2단계 사업에는 기업연구소와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대학과 지역의 특화산업 분야를 위한 2개동(Future NEST, Tech-Summit)이 추가로 건립될 예정이다.

경북대는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으로 AI(인공지능), ICT 및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기술혁신 핵심 인프라와 R&D시설, 혁신인재 양성, 창업 및 기업성장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과 인재가 먼저 찾는 혁신의 산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신규일자리 3,000개, 500여 개 보조일자리, 20~30대 청년층 고용비율 65%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Daegu Metropolitan City (led by Mayor Kwon Young-Jin) an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NU) have been selected to undertake the joint government-ministry project, '2021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With a total funding of KRW 120.4 million, the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es will be established at the West Gate of KNU to promote research development,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start-ups. Along with the revitalization of the former G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site and Daegu Samsung Creative Campus, KNU's West Gate campus innovation park is expected to lead Daegu City's initiatives on 'Special Convergence Zone Development' and 'New Deal on Urban Regeneration.'

The total area of the campus innovation park is set to be 32,000 m<sup>2</sup> on the grounds of the 2nd Sports Ground at KNU's West Gate, and the project is to be administered in two phases: the length of the first phase will be from 2021~2027 and the second phase from 2027~2030. In the first phase, construction will commence in 2022 and finish in 2024 with the establishment of complexes including the Industrial-Academic Innovation Hub Center, R&D Center, and Business Incubation Center. With 18 floors and an area of 22,000 m², the Industrial-Academic Innovation Hub Center(ACT Main Center) plans to hold around 100 corporate research facilities, business incubators, support systems, and residencies. The second phase administered after 2027 will focus on the expansion of 2 new buildings (Future NEST, Tech-Summit) comprising the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and Startup Support Center.

Through the founding of this campus innovation park, KNU aspires to build an innovative infrastructure comprised of high-quality support systems with a focus on AI, ICT, and Big Data that both businesses and specialized individuals seek to find.

## 2040 탄소중립캠퍼스 조성 선언!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o Build 2040 Carbon Neutral Campus!

경북대학교는 지자체와 민간기업과 손잡고 탄소 중립과 지역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2040 탄소중립 캠퍼스' 조성을 선 언했다.

경북대는 대구광역시, 현대일렉트릭, 태영건설과 '대학캠퍼스 탄소중립 공간 조성사업' 공동 추진 을 위한 업무 협약을 5월 10일 경북대 본관 5층 중 앙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 학 관이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 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북대 의 '탄소중립 캠퍼스'는 민간주도 차세대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이다. 주관기관 인 경북대는 탄소중립 R&D 기반 조성 및 인재 양 성, 산업화를 지원하고, 대구시는 정부 정책 공조 와 규제 해소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참여기 관인 현대일렉트릭과 태영건설 등이 1,500억 원 을 투자해 제로에너지 빌딩 구축, 캠퍼스 마이크 로 그리드 구축 등을 지원한다. 향후 다양한 국비 지원사업 수주 등을 통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북대는 2017년 기준 배출전 망치인 순 배출량 2만6,363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2040년까지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000여 명의 에너지 융복합형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에도 함께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북대의 성과는 대구 관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로 탄소중립을 확대해 향후 대구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스마트 그린시티, 스마트 산단을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s recently partnered with private enterprises and the local government to build the first carbon neutral campus in Korea to promote carbon neutrality and regional energy industries.

The agreement on 'Developing Carbon Neutral University Campuses' between KNU, Daegu Metropolitan City, Hyundai Electric, and Tae Young E&C was established on May 10th at KNU's Central Conference Room. This university, industry, and government collaboration provides a new model that aligns with the national government initiative to transition into a carbon neutral society by 2050. Most notably, KNU's 'Carbon Neutral Campus' is to be a pilot project of the private sector facilitating an energy industrial ecosystem.

As the organizing institution, KNU will develop found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R&D) and foster specialists on carbon neutrality, while Daegu Metropoli-

tan City will offer administrative assistance and alleviate governmental regulations. Participating firms such as Hyundai Electric and Tae Young E&C plan to invest KRW 100 billion for the construction of a Zero-energy building and a campus Microgrid, while various governmental funds amounting to KRW 200 billion are also to be allotted to these sustainable development projects.

In undertaking the initiative on carbon neutrality, KNU aims to decrease the reported greenhouse gas emissions of 26,363 tons in 2017 to 0 tons by 2040, as well as nurture around 1,000 professionals on energy convergence and carbon neutrality. Furthermore, lasting effects are to be expanded not only to loca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but also to the entire city of Daegu, drawing the city closer to becoming a Smart Green City with smart industrial complexes.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38 Korea NU10 MAGAZINE 39



# 경상국립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통합으로 혁신과 상생의 길을 열어갈 경남의 국가거점국립대학

National Flagship University of Gyeongsangnam-do, opening the way to innovation and coexistence through integration

HOMEPAGE www.gnu.ac.kr

 ww.facebook.com/ smartGNU





## 경상국립대-광동제약-부산대, 대형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항비만 신소재 개별인정 건강기능식품 개발 위한 기술이전'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wangdong Pharmaceutical, and Pusan National University sign a hefty contract on technology transfer:

"TechnologyTransfer Contract for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ly Recognized Health Functional Foods for New Materials for Anti-Obesity."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부산대학교 산학협 력단-광동제약 등 3개 기관은 '항비만 신소재 개 별인정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 을 체결했다.

특허 및 기술 연구개발자는 경상국립대 원예학과 강남준 교수와 부산대 원예생명과학과 최영환 교 수 두 명이다.

강남준 교수는 "이 신소재는 기존에 개발되지 않은 신규 품종으로 동물실험 결과, 다른 항비만 기능성 원료 대비 낮은 농도에서도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라고 밝히고 "부산대 최영환 교수와 함께 10여 년 동안 연구해온 것이 결실을 맺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강남준 교수 등에 따르면, 이번에 계약 체결하는 신물질은 비만동물모델 대상 항비만 효과 측정 결과, 체중 및 복부피하지방 감소와 간조직·지방세포의 지방축적억제 효과를 보이면서도 간과 신장의 부작용은 거의 없어 항비만약 약학적 조성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높은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 광동제약은 축적된 연구개발 노하우를 활용해 이신소재 추출물 기술을 적용한 '체지방 개선 개별인 정형 건강기능식품' 상품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기준 국내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약 1,000억원 대로 추정된다.

Three institutions, includ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Group, Pusan National University (PNU)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Group, and Kwangdong Pharmaceutical, signed the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for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ly Recognized Health Functional Foods for New Materials for Anti-Obesity."

The patent and technology R&D researchers are GNU Department of Horticulture Professor Kang Nam Jun and PNU Department of Horticultural Bioscience Professor Choi Young Whan.

Professor Kang said, "This material is a new kind that has not been developed previously. Animal experiments confirmed that it has the effect of reducing body fat even at a lower concentration than other anti-obesity functional ingredients. What I have been studying for 10 years with Professor Choi at PNU has come to fruition."

According to Professor Kang and others, the new substance contracted reduces weight and abdominal subcutaneous fat and inhibits fat accumulation in liver tissues and fat cells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anti-obesity impact in an obese animal model. However, it has almost no side effects on the liver and kidney. As a result, it showed a high potential for use as a pharmaceutical ingredient for anti-obesity drugs or health functional foods.

Kwangdong Pharmaceutical announced plans to develop a product called "individually recognized health functional food for reducing body fat" by applying this new material extract technology using its accumulated R&D expertise. As of 2019, the local market for body fat reduction health functional food is estimated at USD 89 million.

**'2021년 진로체험버스' 경상권역 운영 기관 선정** 대학 유일하게 선정… 사업비 1억3.000만 원

2021 Career Experience Bus selects in Gyeongsang Area: GNU, the only university chosen with USD 115K 경상국립대학교는 교육부의 진로체험 격차 해소 프로그램인 '2021년 진로체험버스 사업'에 대학 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경상국립대는 2021년 진로체험버스 경상권역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3,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경상국립대 입학처는 2017년부터 대학진로탐색 캠프 운영기관 4년 연속 선정, 지역특화진로체험 프로그램 4년 연속 운영 대표기관 선정등 진로체험 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 기부와 지역사회 공헌을 끊임없이 수행해왔다.

이광호 입학처장은 "입학처가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진로 탐색과 체험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들 이 2021년 진로체험버스 경상권 운영기관 선정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대외적으로 교육 기부 역량 을 인정받은 쾌거"라고 설명했다.

이번 진로체험버스 사업 기관은 1차 사업 운영 계획서 평가로 권역별 심사 대상 기관을 추려낸 뒤, 2차 발표·면접 평가(온라인)로 최종 선발했다. 기관·대학들이 치열하게 경쟁한 결과 선정 기관 중대학으로는 경상국립대가 유일하게 진로체험 버스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대학들이 소외지역 진로 체험 사업을 포기할 때도 경상국립대는 온라 인으로 진로탐색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 외지역 학생들의 꿈과 끼를 지원해 왔다. 이번 진 로체험버스 사업 선정 또한 그런 역량을 대외적으 로 인정 받은 것이다.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was the only university selected for the "2021 Career Experience Bus Project," a program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bridge the career experience gap.

Selected as a running institute in the Gyeongsang area for the Career Experience Bus in 2021, GNU will receive USD 115,700 for project expenses. Since 2017, the GNU Admission Office has continuously made education donations and contributions to the community by bridging

the career experience gap after being chosen as a university career exploring camp—running institute and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for running a specialized regional career experience program for four consecutive years.

Director of Admission Office Gwangho Lee explained, "The courses that the admission office has been trying to explore and experience career paths for underprivileged students played major roles in being selected as the operating institute for the Career Experience Bus in the Gyeongsang area in 2021. It is a splendid achievement that has been recognized for its capability to donate to education externally."

The first step in the Career Experience Bus selection was choosing the institutions to be screened by region by evaluating their business operation plans. After the initial screening, the process further involves a second presentation and interview evaluation (online) for selection. As a result of the fierce competition between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GNU was the only university chosen as a career experience bus operator.

Even when other universities gave up career experience projects in disadvantageous areas because of COVID-19 last year, GNU has developed online programs to support students' dreams and talents. Its selection for the Career Experience Bus project proves it has such capabilities externally.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40 Korea NU10 MAGAZINE 41



## 시대를 열어가는 담대한 지성 Leap forward, PNU

Audacious Intellects Leap forward, PNU

HOMEPAGE www.pusan.ac.kr SNS https://www.facebook.com/ PusanNationalUniy



## 부산대 주도 「국립대 회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국립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국유재산 매각대금 대학 귀속 가능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Act Led by PNU Has Been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Proceeds from the Sale of State-owned Property Acquired with the National University's Own Funds Can Be Retained by the University

국립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의 처분 수입금을 대학회계 세입으로 귀속해 대학의 발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대학교는 그동안 열악한 국립대학들의 재정난 타계를위해 이 개정안 통과를 적극 주도해 왔다.

기존 대학회계법에 따르면, 국립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에도 국유재산으로 보아 매각을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금으로 정부로 귀속돼 대학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국립대학 총장들은 대학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대금을 대학회계로 귀속시켜해당 대학의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수년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법령 개정을 촉구해 왔다.

특히, 부산대는 이 과정에서 열악한 재정난에 시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 한 재원 확충 방안으로 이 법률 개정을 최초로 제 안하고 지속적으로 국회를 설득하는 등 개정을 적 극 주도해 왔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에 달려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열악 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국립대학이 더욱 발전하고, 대학의 발전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골 고루 균형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 의미를 평가했다.

On February 26, a partial amendment to the Establishment of Accoun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of National Universities Act has been passed in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act allows national universities to vest the proceeds from the disposal of stateowned property acquired through their own funds in the university's accounting revenues and use them as financial re-

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universit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actively leading the passage of this revised bill to help poor national universities overcome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In the case of the existing University Accounting Act, even when a national university sold property acquired with its own financial resources, the proceeds of the sale became income for the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fund which returns to the government. Thus, the university could not unilaterally use the proceeds because the funds acquired were regarded as state-owned property.

In recent years, the presidents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have continuously urged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amend the laws, so that if they sell state property acquired through the university's own financial resources, the proceeds of the sale can be added to the university accounts and used as a financial re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In particular, PNU has taken an active role in changing the rules by proposing amendments to the laws for the first time. PNU has continuously worked to persuade the National Assembly as a way to expand the financial resources available for the development of all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many of which are suffering from serious financial difficulties.

Cha, Jeong In, preside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expressed his evaluation of this change stating,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or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Korea depends on the role and development of national universities. I hope that this amendment to the act will help the national universities in financial difficulty to develop more. Also all regions of our country will have an opportunity to be developed evenly and in balance based on these universities' development."

## 「BK21 스마트강의실」 부산대 13곳 구축 대학원 교육환경 혁신 첨단 시스템 도입

13 Establishment of *BK21 Smart Lecture Room* in PNU
PNU Has Introduced Advanced
System for Innovative Educational
Environment for Graduate School

2020년 교육부의 '4단계 BK21사업'에서 전국 대학 2위를 달성한 부산대학교가 대학원생의 연구·교육을 위한 전용공간과 교수·학생들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첨단시스템이 도입된「BK21스마트강의실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부산대는 대학원 혁신 고도화를 위해 4단계 BK21 사업 1차년도 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13개 스마트 강의실을 구축하고 올해 3월 신학기부터 활용에 들어갔다.

부산대는 BK21 대학원혁신사업의 교육몰입도 증진을 위한 스마트 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BK21 스마트강의실'을 구축했다. 부산대 대학원혁신실은 4단계 BK21사업에 참여하는 교내 교육연구단(팀)을 대상으로 BK21 스마트강의실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13개 강의실을 선정했다. BK21 스마트 강의실은 부산캠퍼스 11개실, 밀양캠퍼스 2개실에 각각 설치됐다.

이번에 구축한 BK21 스마트강의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갈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방식의 수업방법(PBL, TBL, BL 등)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첨단 강의실로,학습자 참여 중심의 혁신적인 수업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를 위해 벽면 글래스 보드, 개인용 디바이스 활용 가능한 미러링 시스 템 등을 갖췄으며, 학습활동 추적 녹화시스템을 통해 교수자의 강의내용을 녹화할 수 있다. 그 외 에도 1인용 책걸상, 전자칠판, 전자교탁, 단초점 프 로젝터 등의 기자재 교체를 통해 최상의 환경에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Pusan National University, ranked 2nd among universities nationwide in the 4th stage BK21(Brain Korea21) Projec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2020, has completed the *BK21 Smart Lecture Room Construction Project*. The project has introduced a dedicated space for research and education for graduate students and a state-of-the-art system for interactive communication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PNU has built 13 smart classrooms with a budget of 1 billion won in the first year of the 4th stage BK21 project in order to encourage graduate school innovation. These classrooms began to be used in the new semester in March this year.

PNU has established the BK21 Smart Lecture Room program to help create a smart environment to enhance the educational immersion in BK21 graduate school innovation projects. The PNU Graduate School Innovation Office selected 13 classrooms after receiving applications for the *BK21 Smart Lecture Room* from the oncampus educational research teams participating in the 4th stage BK21 project. 11 BK21 smart lecture rooms were installed on the Busan campus and 2 rooms were installed on the Miryang campus.

The newly built BK21 smart lecture rooms are state-of-the-art classrooms with an environment where various teaching methods (PBL, TBL, BL, etc.) can be implemented to reflect the diverse learning needs of learners who will be leader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roject introduced a system that can employ these innovative classes for learner-centered teaching methods.

In order to encourage learners to actively participate, the classes have been equipped with a glass board on the wall and a mirroring system that can be used for personal devices. Similarly, the contents of instructor lectures can be recorded with the learning activity tracking and recording system. In addition, PNU has replaced other classroom equipment such as individual desks, an electronic blackboard, an electronic lecture desk, and a single-focus projector so that each class can occur in the best learning environment possible.





Korea NU10 소개 Introduction to Korea NU10 MAGAZINE

# INTRODUCTION TO KOREA NU10



#### 총장 오세정 President Oh Sejung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 1946년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을 갖춘 국내 최초의 종합 국립대학교로 출범
- 1975년 관악캠퍼스 설립으로 캠퍼스 종합화 달성
- 교육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선도
- Established as the first national university with 9 Colleges and 1 Graduate School
- Centralized dispersed campuses in Gwanak
- Played centr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 총장 김수갑 President Kim Sukab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Korea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 1951년 초급농과대학으로 시작, 2018년 신수도권 중심대학으로 도약 원년
- 2014~2018 학생만족도 1위(NCSI 조사),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설립 운영
- 조화, 품격, 미래를 바탕으로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를 그리는 충북대학교
- Beginning as a junior agriculture college in 1951, CBNU has leapt to its current status as a major university in the new capital area
- Standing as the No. 1 university in Student Satisfaction (NCSI Survey), from 2014 to 2018, CBNU has established and ran the Sejong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olicy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raws a Dynamic future based on the three core values of Harmony, Dignity and Future



#### 총장 김동원 President Kim Dongwon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96 Korea

- 1947년 인가된 도립 이리농과대학과 전주 명륜대학, 군산대학관을 모태로 개교
-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창의인재 양성
-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 2012, 2015, 2017년 학생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
- Founded as Iri Provincial College of Agriculture (1947), consolidated with Myeongnyun College (Jeonju) and Gunsan College (1952)
- Creative talents cultivated by innovative education platform
-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student service satisfaction by KS-SQI(2012, 2015, 2017)



#### 총장 송석언 President Seok-Eon Song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3243, Korea

- 1952년 도립 초급대학으로 시작, 도립 제주대학 승격 후 국립대학 이관
- 2008년 제주교육대학교 통합,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 교육기관 발돋움
- 경쟁력 있는 지식창출로 국가발전 선도
- In 1952, Jeju Provincial Junior College was founded. It became the four-year Jeju Provincial College in 1955 and designated as a National University in 1962
- Merged with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08. Become a world-class university alongside Jeju, a free international city
- Leading national development with competitive knowledge creation



#### 총장 이진숙 President Jin-Sook Lee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34, Korea

- 1952년 도민의 일두일미(一斗一米) 운동으로 설립, 대덕연구단지에 위치
-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대학으로 성장 목표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착수, 세종특별자치시에 캠퍼스 설립
- Established through the rice donation campaign by every resident in 1952 in Daedeok Science Town
- •The goal is to be the leading university of Korea spreading toward the world together with the residents
- Construction of Sej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tarted. The campus will be constructed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제주도

• 1952년 도민 고등교육 열망으로 설립, 호남 제일의 거점국립대학교로 성장

- 자유와 평화 민주 인권 수호, 한국 민주주의 발전 주도
- 4차 산업시대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 Since its foundation in 1952 upon the desire of the local citizens for higher education, CNU has become the top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in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 CNU has led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safeguarding the nation's freedom,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 Fostering creative convergence talents in the 4th industrial era



전라북도

#### **총장 차정인** President Cha, Jeong In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춘천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부산

대구

경기도

청주

대전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46241, Korea

• 1946년 5월 15일 국내 최초 종합 국립대학으로 출범

경상남도

- 진리·자유·봉사의 건학 이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 6개 학문분야 QS평가 세계 101-200위권, 융합과 통섭형 엘리트교육
- The nation's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on May 15th, 1946
   Children by the artifactor of the forest language of the things of the state of t
- Guided by the university's founding values of truth-freedom-service to become a global research-oriented university
- Six departments are ranked in the top 101~200th by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Elite education through the fusion and convergence of disciplines



##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총장 김헌영 President Kim Heonyoung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1 Kangwon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4341 Korea

- 1947년 춘천농업대학 출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건학 이념
- 춘천·삼척·도계 3곳의 멀티캠퍼스 체제 구축
- 거점국립대 취업률 1위(2018년 1월 정보공시 기준)
- Established Chuncheon Agricultural College in 1947, with the founding spirit of the quest for truth based on practical science

43

- Integrated three campuses in Chuncheon, Samcheok and Dogye into a multi-campus system
- Achieved No.1 employment rate among loc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Based on the information notice in January 2018)



#### 경북대학교 KN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총장 홍원화 President Won-Hwa Hong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Korea

- 1946년 9월 국립대학 승격(대구사범대학,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
- '진리·긍지·봉사' 교시로 글로벌창의인재 '첨성인' 양성
- QS 세계 대학 취업능력 랭킹 국내 7위
- Upgraded to National College in September 1946 (comprised of the Colleges of Education, Medicine, and Agriculture)
- KNU established the concept of the talented, globally creative student, or 'Cheom-seong-in', under KNU's Educational philosophy of 'Truth, Pride, Service'
- $\bullet$  KNU ranks 7th in Korea in the QS World University Employability Rankings



#### 당 경상국립대학교 GNU

경상국립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총장 권순기 President Soon Ki Kwon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33

33, Dongjin-ro, Jinju, Gyeongsangnam-do, 52828 Korea

- 2021년 3월 1일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통합
- 생명과학, 항공기계시스템, 나노신소재·화학분야 국내 최고 경쟁력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경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대학 • On March 1, 2021, forme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nd
-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erged int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orea's best competitive potential in the fields of life sciences,
- aerospace & mechanical engineering, nano &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and chemistry
- The leading university for Gyeongman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a regional innovation project based o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universities

K-NU10 포커스 K-NU10 Focus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사·중복 학과와 단과대학의 통폐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야 한다. 2022년 2월까지 추진될 유사 중복 학과와 2023년 2월까지 추진될 단 과대학의 통폐합 작업은 '선공후사'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가장 우선되는 원칙 은 전체 대학의 발전이다. 그 다음은 학과, 그 다음은 개인이다. 이런 작업이 계획 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경상국립 대는 직접적인 통합 지원 경비 300억 원, 실질적 구조개혁과 이에 따르는 단과 대학 학과 이전 경비 등 최소 500억 원 이상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섯째, 경상국립대는 대학 교명에 '국립'을 사용한 최초의 대학이다. '시립', '도립' 대학들은 다수 존재하지만 대학 교명에 공식적으로 '국립'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국립대학들에게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을 진행 중인 일부 대학과 기존의 국립대학 중 교명의 인지도가 낮다고 판단하는 대학들이 '국립'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대와 한국복지대가 교육부에 신청한 교명은 '경인

다섯째, 경상국립대 내부의 구조조정 노력이 결실을 맺은 점이다. 경상국립대가

경상국립대의 출범을 전후로 국내 국공립대학들의 통합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 져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 논의가 세상에 알려졌 다. 부산교대 학생과 동문회의 반대 기류가 형성돼 있어서 향후 일정은 좀더 지 켜봐야 한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에서도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

국립대학교' 또는 '경기국립대학교'이다.

then the individual. In order for such work to be carried out as planned. groundbreaking financial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essential.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s asking for 30 billion won for direct

Sixth,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s the first university to use 'national' in its Korean title. There are many "city" and "provincial" universities, but it is expected to have a tangible impact on other national universities by officially using "national" in its Korean title. Among universities that are undergoing integration, and existing national universities with low public profile, some are expected to apply "national" to their university names. Hankyung University and the Korea Welfare University applied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the name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r "Gyeonggi National University."

Before and after the launch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iscussions on the integration of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in Korea are more and more numerous. Most recently, discussions on the integration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and Busan University of Education have become well known. Students and the alumni association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oppose this idea, an as such, further attention will be given on which direction this discussion may go. Integration discussions are also reportedly underway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integration support expenses and at least 50 billion won for substantial structural reform and subsequent expenses for a university and department merger.

려졌다. 역시 일부 구성원이 반대하고 있다. 한경대와 한국복지대학의 통합 논의 는 꽤 많이 진척되었다. 1월 18일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머지않아 통합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지역에서도 국립대학 간의 통합 논의가 물밑 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Korea NU10 MAGA7INF

국립대학의 통합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표면적으로는 경상국립대의 출범에 영 향을 입은 모양새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입학자원 감소 때 문이다. 따라서 대학 통합을 통하여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립대학들 이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는 방법, 양 대학의 부속기관의 업무교류를 통 한 대학 통합 등의 전략적 모델을 경상국립대에서 찾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 제 타 대학에서 경상국립대에 통합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보내오고 있다. 경상 국립대 모델이 성공을 거두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통합 경상국립대의 출범은 단순히 한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이 입학 자원 감소라 는 위기로 인해 선택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한 탁월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Gangneung Wonju University. Some members there are against it as well. Discussions on the integration of Hankyung University and Korea Welfare University have progressed considerably. They submitted an application for integration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January 18, and it is expected the integration will be completed soon. It is also reported that discussions on integration between national universities are being held behind the scenes in North Jeolla Province.

Apparently the launch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eems to have impacted other discussions on the mergering of national universities, but the true internal reason behind this is the expected decrease of school age population.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national universities seeking to overcome the crisis of local universities through university integration will us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s a strategic model to find answers for obtaining consent from members and communities and building collaboration between institutions under each university. Already, many universities have sent questions about integration t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t shows that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is essential for th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model to succeed. The launch of the integrated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s not just a local national university pushed forth forcibly due to the crisis of declining admission resources, but is in fact an excellent policy, chose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higher education.







Korea NU10 MAGA7INF K-NU10 포커스 K-NU10 Focus

#### K-NU10 FOCUS 2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확대와 지역균형 뉴딜정책

**Expanding the Obligation to** Hire Local Talent in **Public Institutions and Balanced Regional New Deal Policies** 



김석수 부산대학교 기획처장 Kim Seok-soo Dean of Planning at



중앙정부가 2021년을 '지역균형 뉴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하였다. 지역균 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것으로 지역을 새롭게(new), 균 형 있게(balanced) 발전시키겠다는 약속(deal)이다. 지역균형 뉴딜의 정책목표는 지역경제혁신, 지역의 삶의 질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이다. 이를 위한 4가지 중점 추진방안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실행,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의 확산 지원, 공 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지원,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 조 성이 핵심이다. 총투자규모 160조 원 중에서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75조 원 이상 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역균형 뉴딜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 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범부처 및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 징 중의 하나이다.

The central government has declared that 2021 will be the first year of a "Balanced Regional New Deal." The Balanced New Deal is a regional expans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 a promise to develop the region in a modern, balanced manner. The policy goals of the balanced regional New Deal are regional economic innovation, improved quality of life in the reg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four main ways to promote this are to implement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support the spread of local government-led New Deal projects, support the promotion of leading New Deal projects, and create a sustainable balanced New Deal ecosystem. Of the total investment of 160 trillion won, more than 75 trillion won is known to be invested in balanced regional New Deal project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lanced regional New Deal is being jointly promoted by all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such as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예컨대, 국토교통부는 중장기 정책으로 구현된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과 함 께 혁신도시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한다. 지자체의 이전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혁신플랫폼 을 구축하고, 지역대학과 산업계 등과 협력하여 특화 학과의 개설 및 교육을 통 하여 지역균형 뉴딜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국가균형발전 이라는 화두에 걸맞은 정책이자 사업추진 방식이다.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중심 으로 전환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와 지향성이 엿보인다.

그러나,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균형 뉴딜 정책의 대다수는 예상 총투자 규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방대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 이 전제가 돼야 한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것으로 사뭇 기대되는 지역균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 정책 말고는 다른 묘책은 없을까?

최근 언론을 통해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확대 개선'에 대한 소식을 심 심찮게 접하게 된다.

기존의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지역 이전 공공기관은 해당 소재지의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세부적으로 지역 이전 공공기관은 2018년 18% 의 무채용 비율로 시작하여 2022년까지 30%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지켜야 한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경우는 2022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30% 공공기관 채용의무비율을 상회하여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달성 수준은 지역마다 제각각이며, 공 공기관 역시 지역인재 채용의무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존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는 혁신도시법상 의 이전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가 해당 '이전 지역'에만 국한되 었다. 이로 인하여 지역 이전 공공기관이 목표 채용비율 30%를 달성하기에는 우 수한 인재풀 확보에 애로를 겪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지역인재 30%(2022년 목표) 의무채용비율을 50%로 늘리 되 '30%(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인재) + 20%(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인재) 비율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 회에 발의됐다. 이 법률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우수인재 확보 등 제 문제를 해결 하고 정책 도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진일보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 각이다.

One example of this cooperation i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long with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of innovative cities operating under mid- to long-term policies, collaborating with other related entities such as local government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It is a method of building innovation platforms based on local governments'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and innovative cities, and pursuing the goal of balanced regional New Deal talent developm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ongoing education of specialized departments in cooperation with local universities and industries. It is a policy that matches the topic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ith a method of implementing proiects. It shows the central government's willingness and determination to shift the axis of national development to regional centers.

11

However, the majority of the balanced regional New Deal policies promoted by pan-ministerial projects is premised on a massive fiscal spending expansion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indicated by the projected total investment. In order to successfully complete a balanced regional New Deal that is expected to revive the local economy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is there no other trick besides a fiscal spending expansion policy?

We have recently heard a lot of news about the "improvement of the obligation to hire local talent in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existing Innovative Cities Act, local public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hire local talent. In detail, public institutions that move to a specific region start with an 18% mandatory employment rate beginning in 2018 and move to a 30% mandatory employment rate by 2022. Currently, some regions, including Busan, employ local talent exceeding the 30% mandatory employment ratio of public institutions, which will be required by 2022.

However, varients in the level of achievement of mandatory recruitment of local talent by public institutions is being reported, and that public institutions have not maximized the positive effect of the mandatory recruitment system. The existing obligation to hire local talent in public institutions was limited to the relevant region that the public institution moves in to, under the Innovative Cities Act. As a result, local relocation public institutions had a hard time securing the exceptional talent needed to achieve their target employment ratio of 30%.

In the meantime,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a revision to the Innovative City Act, which calls for an increase of the mandatory employment ratio to 50%, of which 30% is from schools in the relocation region, and 20% is from schools in other non-capital areas. The revision of the law is thought to be a good alternative to solving problems such as securing sufficiently talented people and furthe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troduced policies



K-NU10 포커스 K-NU10 Focus

이 같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전 지역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풍부한 인재풀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지역 간에도 우수한 인재의 교류가 활 발히 이루어질 수 있어서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또한 대표적인 취업 선호 대상인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희망과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지역대학은 우수한 신입생 유치 및 대학 경쟁력의 확보가 용이해 진다.

예컨대, 부산지역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남대학교 졸업생이 지역인재 (20%) 채용의무제의 적용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전남지역 한국 전력공사에는 부산대학교 졸업생이 지역인재(20%) 채용의무제의 적용을 받고 취업에 우선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지키면 서 다양한 지역의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지역대학도 해당 지역 이외 타 지 역에 이전한 다양한 공공기관에 졸업생을 취업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 게 된다. 지역인재에게 기회의 창이 넓어진다. 지역대학과 지역에 하나 둘 사람 이 모이고, 지적자산과 인적자산이 넘쳐나고, 지역혁신과 교류발전을 선도할 집 단지성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전국의 지역대학이 대혼란에 빠져 있다.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다고 아우성이다. 지역의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일부 국립대학도 목 표하는 신입생 충원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과도한 수도권 집 중, 지역의 일자리 부족, 지역대학과 지역의 소멸 현실화,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모든 정책이 만병통치약이 되는 경우는 없다. 이 질병에도 통하고 저 질병도 치 유하는 그런 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의 확대 및 개선이 이전 지역의 대학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도권 지역 학교에는 손해가 된다는 인식도 있을 것이다. 자유경쟁 원리에 위배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이라는 사회현상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인적자원, 물적자원, 금융자원, 정보자원 등을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하나 도 남김없이 빨아들이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확대 및 개선과 같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정책은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황폐하 고 불 꺼진 지역을 방치한 채 야경 찬란한 수도권만 바라보고 가꾸며 살아갈 순 없다. '건강한 지역'이 글로벌 도시 수도권과 대한민국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기억 해야하다.

막대한 재정지출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 한국판 지역균형 뉴딜 정책의 성공 사 례를 보고 싶지 않은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50%(30%+20%) 확대' 를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자. 제도개선 하나가 지역대학과 지역이 웃음 지 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If the system is improved, the local public institutions which are relocating will be able to secure the abundant talent pool they require, while at the same time actively exchange talent between regions, which will greatly help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local universities will be able to attract top freshmen and secure university competitiveness due to the increased hope and possibility of students getting jobs at public institutions, which are highly preferred for

12

For example, graduates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an get job preference at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in Busan under the local talent (20%) recruitment obligation system. At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in Jeollanam-do Province, graduates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will be beneficiaries of the local talent (20%) recruitment obligation system and will receive priority in employment. Public institutions will be able to secure talented people in various regions while keeping the obligation to hire local talent. Furthermore, local universities will be able to ensure more opportunities for their graduates to be hired by a range of public institutions that may have moved to other regions. The window of opportunity widens for local talent. People will surely gather in local universities and regions, injecting intellectual and human assets, and the collective intelligence will work to lead regional innovation and exchange development.

Right now, local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are in mayhem. The cynical saying that "universities will begin to shut down in local regions in the order at which their campus' cherry blossoms bloom," is becoming a reality. Some national universities, not only local private universities, have failed to achieve their target recruitment rate. A vicious cycle of decreasing school-age population, excessive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lack of jobs in the smaller regions, realization of the extinction of local universities and neighborhoods, and weak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s becoming a reality. Now this vicious circle needs to be broken.

Not all policies are perfect. There is no such drug that works to bolster a disease and also cures the host of the disease. While the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the target system for hiring local talent in public institutions will help universities in the regions where public institutions relocate to, there will also be a perception that schools in the metropolitan area will be disadvantaged. One might say that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free competition. Howeve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sucking up human resources, material resources, financial resources and information resources in all parts of the country like a black hole due to the ongoing social phenomenon of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area.

Policies that are the cornerston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uch as the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the obligation to hire local talent, should be recognized and promoted as Affirmative Action. We cannot look in awe at the bright ligh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le neglecting the devastated darkness around it.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healthy local regions are the true source of the global urban metropolitan a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as a whole.

Wouldn't it be nice to see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balanced New Deal policy in Korea, where massive fiscal spending is not required? First of all, let's push for a "50% (30%+20%) increase in the obligation to hire local human resources at public institutions."

One system improvement could be the starting point for a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here local universities and regions can grow together.



Korea NU10 MAGAZINE

#### K-NU10 FOCUS 3

# 지역 혁신성장의 심장, 「캠퍼스 혁신파크」

The heart of regional innovation growth, Campus Innovation Park



강원대학교 산학연구부총장 Dr. Choi, Hwang Kyu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Vice President, Industry-University and Research Affairs



####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소개 및 추진배경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 로, 캠퍼스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 사업 공모 당시 전국의 32개 대학에서 제안서를 제출해 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으며, 강 원대는 1차 서류심사에서 9개 대학으로 추려진 후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3개 대학(강원대, 한남대, 한양대ERICA)에 국·공립대학 중 유일하게 이 름을 올렸다.



#### Introduction and background of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13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is a project in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tartups to transform idle sites within universities into an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 At the time of the 2019 project competition, 32 universities nationwide submitted proposals and the competition rate exceeded 10:1.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as selected as one of the nine universities in the first document screening. After the second onsite inspection, Kangwon University was the only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y to be selected for the project out of the of the three universities that were finally chosen (Kangwon University, Hannam University, and Hanyang University ERICA).

The purpose of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is to overcome the crisis in universities and regions caused by the reduction of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centralization of resources to the metropolitan area. Additionally, it aims to realiz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providing regional innovation growth engines. Existing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projects focused on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by utilizing universities' infrastructure. However, the Campus Innovation Park targets for long-term growth by improving occupancy conditions for tenant companies by building new corporate occupancy facilities, providing corporate management support, and organically linking various government projects to start-ups.

K-NU10 포커스 K-NU10 Focus 14 Korea NU10 MAGAZINE 15



강원대 캠퍼스 산학단지' 부지 현황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ampus Industry-Academic Complex' Site Status



강원대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 조감도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Campus Innovation Park 「Industry-Academic Innovation Hub」 view map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목적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대학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혁신성장동력을 제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 하는 것이다. 기존의 산학협력 사업은 대학이 인프라를 활용해 단기간에 산학협 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캠퍼스 혁신파크는 기업입 주시설 등을 새로 건립해 입주 여건을 개선하여 창업부터 기업경영까지 여러 정 부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지원한다.

####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현황 및 향후계획

강원대는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Open Campus' 발전전략에 기반해 강원대 동문 인근에 '캠퍼스 산학단지' 구축을 계획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캠퍼스 혁신파크에 앞서 조성된 컨테이너 창업단지인 'KNU 스타트업 큐브(K-큐 브)'는 약 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창업동아리실, 코워킹스페이스, 메이커스 페이스 등을 갖추고 있다. K-큐브는 개소 1년만에 학생창업 6건과 강원도 최초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강원대는 K-큐브 를 지역주민과 청소년, 기업들에 적극 개방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 춤형 산학협력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강원도, 육군2군단과 공동 으로 추진한 '강원열린군대' 사업, 춘천시가 주도하는 대학도시·문화도시 사업 등 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지난 1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66,500㎡ 규모의 기존 자연녹지지역(용적률 100%)을 모두 준공업지역(용적률 400%)으로 변경해 최대 4배의 고밀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1단계 사업은 약 50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1년 하반기에 「산학연혁신허브」를 착공해 지상 8층, 연면적 약 2만2,300㎡ 규모로, 2023년 5월 준공 및 기업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기업 간 교류가 수시로 이뤄지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150여개의 기업과 지원기관을 유치하고, 일자리 90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다

강원대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통해 강원도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바이오, 정밀의료, 디지털치료기기 분야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를 추가로 조성해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와 핵심기술의 기업 이전,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계획이다.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도 추진한다.

####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기대효과

캠퍼스 혁신파크의 성공은 혁신기업과 우수 인력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이들이 흔쾌히 찾아와서 일하고(work), 살고(live), 즐길 수 (play)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반경 3km 이내에 도서관과 스포츠센터, 학생회관, 평생교육원, 박물관 등이 위치해 있어 편리하고 가까운

복지·문화시설을 제공하며, 잘 짜여진 대중교통망과

저렴한 주거·사무공간, 매력적인 거리와 휴양·녹지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 Current status and future plans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Campus Innovation Park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build a "Campus Industry-Academy Complex" near the East Gate based on the "Open Campus" development strategy that aspires to share the excellen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possessed by the university with the local community. This plan has been carried out step by step starting from 2016 to 2019.

'KNU Startup Cube (K-Cube)', a container start-up complex created with a budget of around 5.3 billion won prior to the campus innovation park, consists of a start-up club room, co-working space, and maker space

K-Cube achieved excellent results with six student startups created within the cube and by being designated as the first "new technology startup cluster" in Gangwon-do within one year of open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as focused on actively opening K-Cube to local residents, youth, and businesses. Moreover, it has aimed to utilize the space as a place for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that reflects regional characteristics.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is cooperation include the "Gangwon Open Army" program jointly promoted by Gangwon-do and the 2nd Army Corps, University City and Cultural City project led by Chuncheon City.

In particular,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campus innovation park was designated as a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 in January. Accordingly, all existing natural green areas (100% floor area ratio) of 66,500 m² were transformed to semi-industrial areas (400% floor area ratio). As a result, the university could utilize the area which is 4 times higher in density.

The first phase of Gangwon National University's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is expected to cost around 50.5 billion won. On the second half of 2021, the construction of the  $^{\Gamma}$ Industry-Academic Innovation Hub\_J which will be 8 stories high with a total floor area of about  $22,300\,\mathrm{m}^2$ , is expected to be initiated and is scheduled to finish construction and receive tenants companies on May of 2023. This hub is created not only as a work space, but it will be built to allow for frequent communications between companies. Th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ampus Innovation Park is expected to attract 150 companies and support institutions while creating 900 jobs.

Through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ims to utilize University's strength in connection with Gangwon-do's strategic industry to create a convergence and complex industrial complex in the fields of bio, precision medicine, and digital medical devices based on big data. In the fu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build 'Digital Therapy Device Development Support Center'to support industry-academia joint research, transfer core technologies, and discover overseas market. It also intends on being designated as special regulation-free zones for telemedicine and Innopolis Innotown.

#### Expected effects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ampus Innovation Park

The success of the Campus Innovation Park will depend on its ability to attract innovative companies along with talented workers. The key i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employees are willing to work, live, and play.

Th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ampus Innovation Park is located within a 3km radius of the Central Library, BaeckRyung Sports Center, Student hall, Institute of Life-long Education, and University Museum. Additionally, it consists of a well-organized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s, inexpensive residential and office spaces, attractive streets, and recreation and green spaces. The close vicinity of these convenient facilities guarantees the welfare of employees.

Tenant companies can receive variou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such as tax reduction and application of special regulations. Young entrepreneurs can easily find business partners and receive information through open communication.

K-NU10 포커스 K-NU10 Focus /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16 Korea NU10 MAGAZINE

입주기업들은 세제 감면 혜택과 규제특례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기업인들은 사업 파트너를 찾기 쉽고, 정보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다.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교수들로부터 기술 이전과 자문도 수월하게 구 할 수 있으며,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유 동인구 증가와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맺음말

국가와 지역발전에서 거점국립대학의 역할이 중요한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대학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혁신주체 중 가장 우수하고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강원대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 산업발전에 필요한 요람이자 플랫폼, 전진기지로 만들어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쏟을 것이다.

강원대는 대학의 캠퍼스(Campus)를 '지역혁신의 캔버스(Canvas)'로 삼아, 대학과 정부, 지역사회가 머리를 모아 미래사회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그려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가 대학·지자체·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지역혁신의 허브이자, '일터-삶터-배움터-쉼터'가 연계된 미래 청년친화형 복합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한다.

Technology transfer and advice can easily be obtained from professors who have the necessary skills. The park can also attract talented employees. Moreover, the park will surely contribute in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through the increase of floating population and promotion of consumption.

#### Concluding remarks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role of a national universities is important in promoting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Universities have the best and riches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mong the various innovation actors that make up the local communit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ill make every effort to become a platform necessary for educational, cultur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through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ill use the university's campus as a 'canvas for regional innovation,' and draw a new model of innovation that can lead the development of the future society together with the university, government, and the local community.

Through this project, I am confident that the Innovation Park on the campus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ill become a hub of regional innovation where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s, and companies achieve mutual growth. On top of that, it will surely establish itself as a youth-friendly industrial complex in the future, where 'work-life-study-learning-shelter' may coexists.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문화편의지구 개요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ampus Innovation Park Cultural District Overview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 국가거점국립대의 역할과 발전 방향

**Roles and Directions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 김수갑 충북대학교 총장

Su Kab Kim Presiden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A New Higher Educational Ecosystem to Change Crises Into Chances

#### 충북대학교 6대 핵심역량(CHANGE) CBNU set 6 essential competencies



국가거점국립대(KNU10)는 거점국립대총장협의 회를 구성한 10개의 국립대학교를 지칭한다. 그모 체는 1996년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 대 등 5개 대학이 참여한 국립대협의회로, 이어 강 원대, 경상대, 서울대, 제주대, 충북대가 추가 가입 하면서 현재와 같은 구성이 되었다.

협의체의 결성은, 지역 차원에서 인재 확보, 산학 협력 및 국가 균형발전을 지탱하는 댐 또는 플랫폼 으로서의 역할과 국가 차원에서 고등 공교육을 실 행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 는 회원 국립대학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회원 대학들은 각기 각고 의 노력으로 훌륭한 성취들을 이루었고, 협의회를 통해 대학 및 교육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대응하면서 국립대 발전과 교육개혁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20년 2차 협의회는 "거점 국립대"에서 "국가거점국립대"로 그 명칭을 통일 하기로 결정했는데, 앞으로 국가거점국립대들은 명실상부하게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인재 양성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대학으로서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것이다. KNU10 means 10 Korea national universities which organize The Council of Presidents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It started as The Council of National University with 5 members: Kyungpook NU, Busan NU, Jeonnam NU, Jeonbuk NU, and Chungnam NU. Afterwards, another 5 national universities, Kangwon NU, Gyeongsang NU, Seoul NU, Jeju Nu, and Chungbuk NU. joined it to become an existing council now.

17

The council was established by the needs of the members: at a regional level, to acquire talented individuals, cooperate with industry, and support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 as a platform or a dam, and at a national level, to improve the images as a higher education facility. Since then, for the last 20 years, every member has had a lot of achievements with great effort, addressed major issues of universities and the whole educational system together, and also tried to improve the status of a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18 Korea NU10 MAGAZINE







"앞으로 국가거점국립대들이 공유와 협력, 연대를 통해 교육혁신의 계기를 만들고 양질의 교육을 보편적으로 누리는 학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앞으로도 극복 해야 할 난제들이 계속 던져질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대변되는 지구 적 차원의 환경 변회와 함께 학령인구의 감소와 같 은 국내적 요인이 더해지는 가운데, 우리 대학들은 한편으로는 신입생 유치, 재정 확보 등의 곤란을 계속 겪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교육, 연구의 내용과 형식에서 큰 전환을 시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국가거점국립대들은 당면 과제들을 하 나하나 해결해가는 데 있어서 더욱 활발한 교류, 소 통을 통해 지혜와 역량을 나눌 필요가 있다.

국가거점국립대들이 존립 기반으로서 지역을 거점으로 한 학문 생태계를 형성해가는 것은 향후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대학은 교육, 연구와 사회 각영역을 기능별로 연결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학들은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활성화를 선도함으로써 그 존립 기반을 안정화할필요가 있다. 특히 지나친 수도권 집중의 현실적구조를 고려할 때, 국가거점국립대들에게 지역거점의 확립을 위한 노력은 절실하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지역의 소멸), 나 아가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 학, 지자체,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부가 적극 추진하는 지자체-대학-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좋은 본보기이다.

이와 관련해서 충북 플랫폼은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 충북 완성'을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 3대 핵 심분야를 선정(① 제약바이오 ② 정밀의료 의료기 기 ③ 화장품·천연물)하고 충북도를 비롯한 자치 단체, 도내 15개 대학, 약 50개의 혁신주체들이 참여 하여 인재양성, 맞춤형 취업, 정주요건 실현을 목표 로 추진하고 있다. 오송바이오텍을 설립하여 참여 대학간 공동커리큘럼 개발 공유운영도 하게 된다. 교육 혁신은 대학에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급변하 는 환경 속에서 주도적으로 지식을 수용하고 생산 해내는 새로운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대학 교육에서 역량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2016)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 적 역량, 협력 및 소통 능력 등의 역량이 필요하다 고 지적한 바 있다. 충북대도 창의성(Creativity), 휴 머니즘(Humanism), 능동성(Activeness), 공동체 (Neighbor Minded), 글로벌(Global), 전문성(Expertise) 등 6대 핵심역량(CHANGE)로 지정하고, 새로 운 인재상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해

한편 교육 형식의 면에서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19의 충격은 역설적이게도 획기적인 전기를 제공 해주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에도 이미 경험한 비대 면 교육과 온라인 컨텐츠들의 장점들은 기존 대면 교육의 장점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대학 교육의 모델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때 국가거점국립대는 공유대학, 공동교과 운영, 학생·교수 교류 등의 상호 협력을 확대해가면서, 그것을 뒷받침할 대학체제, 제도의 변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개혁은 충북대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도 중 요한 전기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충북대는 2021 년 개교 70주년을 맞아 "지역의 뿌리로 70년, 세계로 꽃피울 100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올해를 전기로 새롭게 도약하려는 꿈을 꾸고 있다. 이러한 충북대의 방향 설정은 지역거점을 기반으로 위상을 확보해온 대부분의 국가거점국립대의 경우에도 대체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대학들이 서열화와 경쟁 속에서 양적 성장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도 지금까지 지역에 뿌리를 내려온 국가거점국립대들은 앞으로 한층나아간 성장을 위해서 교육, 연구 자체를 충실화하고 개선해가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성장 단계로 진입하는 대학들이 감 당해야 할 과제들은 더 무거운 것들이다. 아이가 자 라는 동안 자주 키를 재지만 성인이 되면 키를 재는 것보다 더 세심하고 정밀하게 설계된 검진을 받게 된다.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 는 가치관, 실행력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다. 다가 오는 미래는 늘 상상하는 것보다 불확실하다. 다변 하는 환경에 민활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 육 기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지배구조를 건전 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기를 극복하 는 아이디어는 자주 주류나 중심이 아닌 곳에서 나 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개혁의 큰 틀 속에서도 가능한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교육, 연구 실험이 시 도될 수 있도록 공존을 허용하는 개방적 태도를 갖 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시기에 공공성을 담보하 는 국립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national university and lead to an educational reform. In 2020, the 2nd council decided to change its name, "major national university 10" into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Therefore, KNU10 will try much harder than before to play a major role in cultivating talented individuals at a national as well as a regional level.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round universities, however, is predicting challenges of the future. With global climate changes indicated by the beginn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domestic problems such as a nationwide decrease in students, universities have to face a very difficult situation. They should cope with problems like attracting new students, securing finances, etc. and also try to make significant transition to more advanced and developed education and research system. Therefore, KNU10 needs to share their wisdom and abilities to solve urgent problems via more active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It is important for KNU10 to establish region-based academic ecosystem for the future. Universities are a kind of platform because they can connect every part of society with education and research. Thus, KNU10 needs to stabilize its regional foundations by leading coexistence with the region and its revitalization through the platform. It is much more important for them to do so, considering the present condition, that is, excessive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crisis of regional universities might result to regional crisis (even regional extinction) and even national crisis, so that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s, and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collaborate one another to cope with it. 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based on the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university, which is 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a good example.

For this, Chungbuk platform set a goal, that is, the establishment of global biohealth hub Chungbuk, and selected 3 core parts of biohealth industry (1) Pharmaceutical bio 2 precision medicine medical devices 3 cosmetics natural substances) and all the innovative leaders, such as Chungbuk

province, local governmental institutes, 15 universities of Chungbuk, and about 50 regional innovators joined and have tried to their best to cultivate talented individuals, provide customized job referral opportunities, fulfill the settlement requirements, etc. In addition, after establishing Osong Bio-tech, related universities will develop joint curriculum and operate it together.

An educational reform is a challenge that could give a university more fundamental opportunities of chang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eeds a new type of talented individual who can play a leading role in accepting and creat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in a rough situation. Thus, the importance of competency education at a university is on the rise. The World Economic Forum (2016) emphasized tha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competencies such as problem-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ability, creativity, cooperative and communicative ability, etc. should be needed. Therefore, CBNU set 6 essential competencies (CHANGE), that is, 'Creativity, Humanism, Activeness, Neighbor-Minded, Global, Expertise, and has tried innovative educational challenges to meet the needs of By the way, as for educational format, shocking COVID-19 has ironically offered a milestone since last year, so after pandemic, the advantages of non-face-to-face education and online contents will be mingled with those of the existing face-to-face education and make a new model of university education. Thus, KNU10 will enlarge its cooperation, such as sharing university, joint curriculum, exchange of students and professors, etc. And to support this, it is expected that KNU10 will change its system and scheme.

An educational reform is meaningful to the directions of CBNU. This year, CBNU got its 70th anniversary and dreams about new stunning development with a slogan, '70 years as Regional Roots, Another Century Towards The World.'This aim could be applied to other national universities because they also have been developed with their region. Even if almost all universities have focused on their quantitative growth in competitive condi-



tions like lining-up of university, regionally rooted national universities have to consider their qualitative growth with faithful and advanced education and research for further development.

Their tasks necessary for them to enter a new stage of growth, however, are much heavier than before. For example, children often measure their height as they grow up, but adults need more specific and precise medical checkup, Likewise, qualitative growth needs appropriate values, executive ability, and patience. The upcoming future is always uncertain as imagined. To respond swiftly to changeable environment, it is needed to organize educational functions of a university effectively and maintain a sound governance structure. Usually, the ideas that make it possible to cope with crisis are not generated from the main stream or the center. So, it is also needed to have a liberal attitude which allows coexistence to make various education, research, and experiment in many fields possible within the big picture of educational reform. As a result, the role of a national university will be much more important because it quarantees its publicity.

"From now on, KNU10 should make chances of educational reform by sharing, cooperation, and solidarity rather. And also KNU10 should make every effort to establish educational ecosystem which makes it possible to enjoy quality education in a general way."

# 회원대학 주요 이슈

Important Issues of Member Universities

















서울대학교 SNU

전남대학교 CNU

전북대학교 JBNU

제주대학교 JNU

충남대학교 CNU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Jeju National University



충북대학교 CBNU

강원대학교 KNU

경북대학교 KNU

부산대학교 PNU

경상국립대학교 GNU

Pusan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22 23 Korea NU10 MAGA7INF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1년 1학기. 서울대학교는 사회적 필요성과 연구 영역의 심화를 위해 세 학과를 신설했다. 임상간호학과와 헬스케어융합학과, 그리고 의료기기산업학과가 바로 그 주인공.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신설학과를 소개한다.

In the first semester of 2021, **Seoul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three departments to address the societal demands and expand into new areas of research: the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the Department of Health Care Convergence, and the Department of Medical **Device Development.** Here we proudly introduce three new departments that just began their first steps.

## 간호학 발전의 초석 임상간호학과

Laying the cornerstone for nursing studies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Science** 

임상간호학과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주관의 석 사과정 신설학과로, 중환자 전문간호과정과 종양 전문과정으로 나뉘어 각 분야의 전문간호사를 양 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진강 교수는 "전문간 호사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간호를 요구하는 환자 와 그 가족에게 직접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는 동 시에 간호사들이 근거중심의료를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일조한다"고 전문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환자 전문간호사와 종양 전문간호사는 간호사들의 역량을 증대시키 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며 세밀 한 교육을 바탕으로 환자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The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Science is a new department for master's programs established at the College of Nurs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epartment has two majors - the Advanced Critical Care Nursing major and the Advanced Oncological Nursing major - with the aim to foster advanced practice nurses in each field. Professor Chin-Kang Koh said, "Advanced practice nurses provide direct and appropriate nursing care to patients and families who require complex and difficult care. At the same time, advanced practice nursing helps nurses provide evidence-based medical care effectively," emphasizing the essential role of advanced practice nurses. Professor Koh also added that "the department will be providing professional education to advance the capabilities of the nurses specializing in critical care and oncology" and expected that the intensive training from the department would contribute to improving patient safety and their quality of life,



임상간호학과장 고진강 교수 Chin-Kang Koh, Chair of the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Science

####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

A Community of Knowledge, Leading the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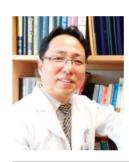
HOMEPAGE www.snu.ac.kr

 www.facebook.com/ SeoulNationalUniversity • instagram/snu.official



## 의료 분야의 4차산업혁명 선도 헬스케어융합학과

Lea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Medicine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헬스케어융합학과장 이학종 교수 Hak Jong Lee, Chair of the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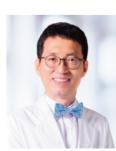
헬스케어융합학과는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소속의 박사과정으로, 의료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공감 하에 신설됐다. 분당서울대병원과의 계약체결을 통해 학술연구계와 의료현장의 협력을 꾀했다. 2 년간의 박사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이 분당서울대 병원에서 근무하며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이 다. 이학종 교수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융합과학기 술대학원의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의 활약으로 헬스케어 전반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물인터넷(loT), 유전자데이터 기술, 임상 시험 등 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각종 기 술을 다룰 것"이라며 헬스케어융합학과의 폭넓은 연구 영역을 설명했다.

The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is a doctoral program at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established under the consensus that the university should respond

proactively towar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medical field. A memorandum with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a Hospital formed ties between the academic research community and the medical field. After completing the two-years doctorate program, graduates of this department will be working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to conduct relevant research. Professor Hak Jong Lee commented that "The department will be conducting comprehensive and empirical research on health care, thanks to the continuous effort made by professors from diverse fields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and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or Lee further explained the department's broad research area, which would "encompass various technologies in the healthcare industry, including IoT, genetic data and technology, and clinical trials."

##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융합학문 의료기기산업학과

Convergent Studies in the age of Digital Healthcare Department of **Medical Device Industry** 



의료기기산업학과장 김희찬 교수 Hee Chan Kim, Chair of the Department of Medical Device Industry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속의 석사, 석박사통합 일 반대학원 과정으로 신설된 의료기기산업학과는 의료기기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의료기기 관련 통합 적 소양을 갖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김희찬 교수는 "의료기기 산업은 지속적인 고성 장을 이루어 오고 있는 몇 안 되는 산업 분야 중 하 나로 의료기기 산업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은 우리 대학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라며 신설학과에 대한 자부심을 보였다. 국내외 의료기기 산업의 주요 기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어 학생들이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계획 또한 밝혔다.

Established as a general master's and integrated master's and doctorate program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e Department of Medical Device Industry aims to cultivate students

with practical skills equipped with comprehensive knowledge on medical devices for the medical device industry. Professor Hee Chan Kim proudly introduced the new department and said, "The medical device industry is one of the few high-growth industry areas that has experienced continuous growth. Fostering experts in the medical device industry is a crucial mission that our university must accomplish." Professor Kim also presented a plan to sign MoAs with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anies in the medical device industry to provide an educational environment where students can hone their practical skills.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24 Korea NU10 MAGAZINE 25



### 긍지와 희망,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Pride & Hope Cherish the Truth, Enlighten the World HOMEPAGE www.jnu.ac.kr SNS www.facebook.com/ ChonnamUniv



## 전남대 '용봉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CNU Yongbonggwan Designated as National Cultural Property

전남대학교 옛 본관이었던 '용봉관'이 근대문화유 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등록됐다.

'용봉관'은 1957년 12월부터 1996년 5월까지 30년 가까이 대학본부로 사용된 건물로 전남대 70년 역사를 나타내는 상징성과 5·18민주화운동 항쟁지 중하나라는 역사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특히, '용봉관'은 건물 중앙부를 수직으로 높게 처리한 탑상형 구조물과 이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한부분이 입면·평면 수법으로 처리됨으로써 1950~1969년대 공공건물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어 근대 건축사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현재 대학역사관으로 1층은 영상실, 민주전시관 이 운영되고 있으며, 2층에는 상설전시관, 기획전 시실로 조성돼 체험 및 교육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3층에 5·18연구소를 운영하 며 민주화운동 역사와 관련된 연구를 활발하게 진 행하고 있다. 한편, 전남대 '용봉관'은 지난 2004 년 9월 인문대학(1호관) 건물과 2018년 8월 의과 대학 건물에 이어 세 번째로 국가지정문화재로 등 록됐다. Yongbonggwan, the former main building of CNU, was registered as a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recognition of its value as a modern cultural heritage site.

Yongbonggwan was used as the university headquarters of CNU for nearly 30 years from December 1957 to May 1996. It has represented the 70-year history of CNU and it also was one of the main venues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0. In addition, it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cultural icon of early modern architecture as it is a towershaped structure with a high, vertical center while each side forms a horizontal symmetry, which embodies the unique structure of public buildings of the period ranging from 1950 to 1969.

Currently, as the CNU History Hall, Yongbonggwan offers a video room and an exhibition hall for democratic movements on the first floor, and a permanent exhibition hall along with a special exhibition hall on the second floor for educational programs. In addition, the 5.18 Research Center is located on the third floor, where scholars are actively conducting research related to the history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Now, Yongbonggwan is the third nationally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on CNU campus after Building 1 of the College of Humanities and the Colleae of Medicine Building, which were designated in September 2004 and August 2018, respectively.

##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선정

CNU Selected for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전남대학교가 4월 1일 학내에 산학연 협업 및 기업입주 공간, 주거 및 문화·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추진 한 이번 공모에는 전국 23개 대학이 나설 정도로 큰 관심과 경쟁을 벌였으며, 최종적으로 전남대와 경북대가 선정됐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미래 신산업 입지가 혁신환 경과 인적 자원이 풍부한 도심을 선호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대학의 입지적 장점과 혁신역량을 적극 활용해 산학협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학을 새 로운 혁신성장생태계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시작된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전남대는 공모 선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학내 보조운동장 일대를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뒤, 오는 2024년까지 산학협력 공간은 물론 주거와 문화· 복지시설을 갖춘 2만2,000여㎡ 규모의 캠퍼스 혁신파크를 건립할 예정이다.

전남대는 이를 도시재생사업과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그리고 창업투자펀드조성사업과 연계해 상 승효과를 최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이번 1단 계 '산학연 혁신허브'에 이어 후속사업인 2단계 '어 메니티 혁신허브', 3단계 '글로벌 혁신허브' 등 모 두 9년에 걸친 단계별 사업을 통해 '콤팩트 시티형 첨단산업단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 선정은 광주광역시와 북구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을 보탰으며,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의 2단계 개발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한 바 있어 앞으로 순조로운 사업진행이 기대된다. 정성택 총장은 "캠퍼스 혁신파크는 혁신창업 기 반을 다지고,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과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진기지로서 우리 지역 의 산학협력과 창업지원 생태계를 대폭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NU was selected for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that intricately creates combined spaces for the cooperation of industry, university, and researchers in concert with residential areas and cultural facilities for welfare on campus.

According to CNU, it has been selected as one of the two successful candidates, along wi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for the project, the results of which were announced on April 1st. Jointly promo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the project was subjected to heated competition and interest, receiving proposals from 23 universities nationwide.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selects universities with innovative capabilities and strategic locations to accommodate future industries as well as excellent programs to foster talent for those industries. The project is based on the cooperation of three major governmental ministries to advance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and establish a new ecosystem of innovation on university campuses.

Selected by the project, CNU is going to establish an industrial complex in the annex to the CNU Sports Ground by the first half of next year. The facility will be completed with a residential area, cultural and welfare

facilities as well as an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space by 2024.

CNU will maximize the synergy effect of this cooperative effort by linking this project with projects it has conducted, such as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Project, and the Investment Fund Raising for Start-ups Project. In addition, following the first step of the project, know as the Industry-Academic Innovation Hub, the follow-up projects such as the second step Amenity Innovation Hub and the third step, Global Innovation Hub will gradually be expanded into the Compact City-Type High-Tech Industrial Complex through 9 years of step-by-step projects.

Proactive support from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the Buk-gu District Office
contributed to the selection of this project
as well as the business agreement which
was signed between CNU and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Corporations for the promotion of the second-stage development
plan, which is expected to proceed
smoothly in the future.

CNU President Jung Sung-taek said,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significantly expand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and startup support ecosystem in our region as a forward base to lay the foundation for innovative start-ups, foster start-ups us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d create high-quality jobs."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26 Korea NU10 MAGAZINE



##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 The Best Glocal University HOMEPAGE www.jbnu.ac.kr SNS www.facebook.com/jbnu1947



## 연구생애 全주기 우수연구자 지원 '연구중심대학' 기틀 다진다

JBNU provides support for excellent research professors throughout their career Laying the foundation for a "research-oriented university"

전북대학교가 교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애 전주기에 걸친 우수 연구자 지원책을 통해 '스타 교수' 육성에 나서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전북 대는 연구생애 전주기 우수 연구자 지원 체계 확 립을 위해 올해부터 우수 연구 교수인 '펠로우'를 매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임용 5년 이내 젊은 연구자를 선발하는 'JBNU Young Fellow'와 부교수 및 승진 5년 이내의 교수 를 선발하는 'JBNU Fellow', 교수 승진 5년 이후부 터 만 60세까지의 교수를 선발하는 'JBNU Star Fellow', 그리고 만 61세 이상과 정년 이후까지 지 원하는 'JBNU Regents Professor' 등을 지정해 연 구 생애 전주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첫 JBNU Star Fellow에는 김민호 교수(무역학과)를 비롯해 박상준 교수(경영학과), 윤영상 교수(화학공학부), 이존화 교수(수의학과), 이중희 교수(대학원 나노융합공학과), 정길도 교수(전자공학부) 등이 선정됐다.



또한 JBNU Fellow에는 김석원 교수(체육교육과), 김종훈 교수(수의학과), 나석인 교수(유연인쇄전 자전문대학원), 박찬희 교수(기계설계공학부), 양 은석 교수(철학과), 오효정 교수(문헌정보학과), 유 동진 교수(생명과학부), 장점석 교수(생명공학부), 정광운 교수(고분자섬유나노공학부), 정현이 교수 (식품영양학과)가 각각 선정됐다.

JBNU Young Fellow에는 김종웅 교수(신소재공학부), 박삼복 교수(회계학과), 박지연 교수(국제인문사회학부), 서동호 교수(식품공학과), 선종학 교수(경영학과), 이태희 교수(전자공학부), 최경숙 교수(무역학과)가 선정됐다.

또한 JBNU Regents Professor에는 김철생 교수 (기계설계공학부)와 김형석 교수(전자정보공학부), 왕은철 교수(영어영문학과)를 임명해 정년 후에도 전주기에 걸쳐 연구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JBNU Young Fellow에 선정된 교수들에게는 최대 5,000만 원의 연구기자재 지원금을 제공해 초반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s attracting attention for its efforts to cultivate "star professors." Thanks to its support programs, outstanding researchers are supported throughout their entire career, improving their competitiveness and enhancing the reputation of the University. This year, JBNU has identified over a dozen Fellows; outstanding professors who will receive research support from the University. JBNU Young Fellows, for example, will be provided with a grant of up to 50 million won for research equipment.

The University will appoint 'JBNU Young Fellows', early-career researchers who have worked at the University for five years or less; 'JBNU Fellows', associate professors and professors within 5 years of their first promotion; 'JBNU Star Fellows', professors

who have been working for 5 and who are less than 60 years old; and 'JBNU Regents Professors', professors older than 61 or retired, but who will nevertheless continue to receive research support from the University.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this year's JBNU Star Fellows: Prof. Min-Ho Kim (International Trade), Prof. Sang-June Park (Business Administration), Prof. Yeoung-Sang Yun (Chemical Engineering), Prof. John-Hwa Lee (Veterinary Medicine), Prof. Joong-Hee Lee (Graduate School of Nano Convergence Engineering), and Prof. Kil-To Chong (Electronic Engineering).

Those selected to be JBNU Fellows are: Prof. Suk-Won Kim (Physical Education), Prof. Jong-Hoon Kim (Veterinary Medicine), Prof. Seok-In Na (Graduate School of Flexible and Printable Electronics), Prof. Chan-Hee Park (Mechanical Design Engineering), Prof. Eun-Suk Yang (Philosophy), Prof. Hyo-Jung Oh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f. Dong-Jin Yoo (Life Sciences), Prof. Jum-Suk Jang (Biotechnology), Prof. Kwang-Un Jeong (Polymer Nano Science and Technology), and Prof. Hyun-Ah Jung (Food Science and Nutrition).

JBNU's Young Fellows are: Prof. Jong-Woong Kim (Materials Engineering), Prof. Sam-Bock Park (Accounting), Prof. Ji-Youn Park (International Studies), Prof. Dong-ho Seo (Food Science and Technology), Prof. Jong-Hak Sun (Business Administration), Prof. Tae-Hee Lee (Electronic Engineering), and Prof. Kyoung-Suk Choi (International Trade).

Finally, Prof. Cheol-Sang Kim (Mechanical Design Engineering), Prof. Hyong-Suk Kim (Electronic Engineering), and Prof. Eun-Chull Wang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will be the new Regents Professors.

## 전북대 국제화역량 '최고 등급' 국가거점국립대 가운데 '유일'

Jeonbuk National University Receives the "Highest Grade" in Internationalization Capability 전북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제(IEQAS)' 평가에서 국가거점국립대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우수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는 교육 국제화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국내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는 제도다. 평가지표로는 필수지표인 불법체류율과 대학의 국제화 사업 계획 및 인프라, 등록금부담률, 언어능력, 만족도 및 관리등이 있다.

전북대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입국 현황을 비롯한 자가 격리 및 방역지침 준수 등 대학의 위기 대처 능력 을 인정받았다. 인증 대학 모니터링에서 모든 평 가지표를 통과해 인증을 유지하고 우수인증대학 에도 선정됐다.

전북대의 이번 우수 인증대학 선정은 한국유학종 합시스템·교육부 공식 사이트 등에 공시되고, 법 무부 소속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외국 정부 등에 '우수인증대학'으로 등록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VISA) 발급 절차 간소화, 정부 초청 장학생(GKS) 수학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 부여 등 교육정책과 사업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Jeonbuk National University was the only Korea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to receive the "excellent accredited university" designation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IEQAS)" survey performed by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The IEQAS evaluation is designed to improve the ability of Korean universities to attract top international students and otherwise enhance local students' internationalization. Universities are evaluated on the basis of, among other things, (1) the perc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that remain in the country illegally, (2) the university's internationalization business plan and associated infrastructure, (3) the burdensomeness of the tuition, (4) language ability, (5) student satisfaction, and (6) quality of managemen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tood out for its risk management practices, including quarantine facilities and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which proved to be of particular importance in a year of COVID-19. JBNU received high scores across all evaluated metrics, maintained its accreditation, and was acknowledged as an 'excellent accredited university'.

Jeonbuk National University's accolade will be announced on the official websites of Korea Study Abroad Comprehensive System,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a result, JBNU will now qualify for various benefits, including a simplified process for issuing student visas, additional points when student's select a university for Korea Government Scholarship, etc.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28 Korea NU10 MAGAZINE



#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기본에 충실한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To the Basic, For the Future HOMEPAGE www.jejunu.ac.kr SNS www.facebook.com/ 제주대학교-1536145756655629



## 학령인구 감소 속 신입생 충원율 100% 기록 대입전형 지속적 개선 통해 대학 경쟁력 높여

The recruitment rate of new students hit 100% despite the ongoing decrease in enrollment stemming from increased university competitiveness resulting from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college entrance screening system 제주대학교가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충 원율 100%를 기록했다. 등록 마감결과 정원 내모 집인원 2088명 중 2088명이 등록해 미등록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제주대는 학생 및 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입전형을 개선해오고 있다.

특히 도내 학생들이 제주 지역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전형을 지속적 으로 운영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전형 등을 골고루 운영해 학생 선택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여기에다 총 16개의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내외 고교를 대상으로 제주대대입 전형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온점이 이같이 높은 충원율을 보인 요인으로 제주대는 분석했다.

다양한 전형 도입 노력의 결과로 제주대는 2019 년부터 2년 연속 교육부로부터 '고교교육기여대 학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Jeju National University recorded a 100% recruitment success rate for the 2021 Freshmen Recruitment Period.

Enrolling the full allotment of 2,088 freshmen for the 2,088 quota, the university recorded no unregistered spots.

Jeju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continuously improving the college entrance screening system to minimize the burden on students and parents, and to enhance the fairness of the college entrance procedure.

In particular, it continued to operate a special entrance program for local students so that students in the province could develop into exceptional talent to lead the Jeiu area.

Furthermore, the school made an effort to give students more options to choose from by running a diverse entrance program that includes comprehensive student record screening, student record academic screening and a nationwid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Korean KSAT).

On top of this, Jeju National University attributed its high recruitment rate to the fact that it has been steadily making efforts to deliver its own college entrance screening process to students attending high schools in and out of the province through the operation of 16 high school-university programs.

As a result of efforts to introduce various types of screening programs, Jeju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selected for the "High School Education Contribution University Support Project"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two consecutive years, starting in 2019.

## 데이터사이언스 등 첨단학과 신설

Establishment of Data Science and Other New High Tech Departments

제주대학교가 2022학년도부터 데이터사이언스 학과, 소프트웨어학부 인공지능전공, 바이오메디 컬정보학과 등 3개 첨단학과를 신설한다.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및 인공지능전공은 4차 산

업혁명시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는 기술에 중점을 둔다. 바이오메디컬정보학과는 제주지역 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메디컬 및 헬스분야에 중점을 둔 인재를 양성한다.

제주대는 신설되는 첨단학과가 시대흐름을 적극 수용하면서 우리 대학 미래의 혁신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tarting in 2022, Jeju National University will establish three high-tech departments, including the Departments of Data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School of Software, and the Department of Biomedical Information.

The departments of data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focus on technologies that collect, analyze and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epartment of Biomedical Information trains students who focus on bio-medical and health fields using biological resources within Jeju island.

Jeju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allow the newly established high-tech departments to actively engage the trend of the times and become an innovation icon for the future of the university.

## 건축공학전공, 산업계 선정 '최우수 학과' 등극

Architectural Engineering Major Selected as 'Best Department' by the Industry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이 건축 분야 산업계가 뽑은 최우수 학과(전공)로 선정됐다. 이 는 2016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최우수로 선 정된 후 연속으로 뽑히게 된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0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 제주대 건축공학전공은 건축분이에서 평가를 받은 41개 대학 중 '최우수'로 뽑힌 12개 대학에 포함됐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대학이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대학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제대로 지원하는지를 살펴보는 조사다.

Jeju National University's Architectural Engineering major was selected as the best major by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department has been selected as the best major every year since being selected #1 in the 2016 industry-viewed university evaluations.

According to the 2020 university evalua-

tion by the Korea University Education Council, Jeju National University's Architectural Engineering major was included in the 12 colleges selected as the best among 41 colleges evaluated in the architecture field.

The university evaluation from an industrial perspective suggests the direction of university curriculum improvement, reflecting the needs of the industry as the survey examines how a university supports training human resources tailored to specific industries.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30 Korea NU10 MAGAZINE 31



#### CNU 100년, 위대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

The 100th Anniversary of CNU, a New Start for a Great Future!

HOMEPAGE www.cnu.ac.kr SNS www.facebook.com/CNUNOV



## 충남대, 세종캠퍼스 입주 확정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elected for Sejong Campus

충남대학교가 세종캠퍼스 진출을 확정지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월 3일, 세종시 공동캠퍼스(4-2생활권) 입주 대 학 선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충남대의 임대형 및 분양형 캠퍼스 입주가 확정됐다.

이번 공동캠퍼스 입주에는 총 13개 대학이 신청했으며 충남대를 비롯해 공주대, 서울대, 충북대, 한 밭대,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등 총 6개 대학의 입주가 확정됐다.

충남대의 세종캠퍼스 진출 확정은 지난 1년간, 입 주를 위한 캠퍼스 조성 계획 제출과 입주 최종 선 정에 이르기까지 충남대 구성원은 물론 지역 정치 권, 지역사회가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충남대는 6개 대학 중 유일하게 임대형, 분양형 모 두 캠퍼스를 조성하며, 입주정원 및 조성 규모 역 시 최대 규모다.

임대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캠퍼스를 조성해 충남대, 서울대, 충북대, 한밭대, KDI가 입주해 캠 퍼스를 공동 사용하며, 분양형은 충남대(4, 5구역), 공주대가 각각 독자 캠퍼스를 조성한다.

충남대는 임대형 캠퍼스에 의과대학·대학원 490

명이 입주하며, 분양형 캠퍼스는 인공지능(AI) 및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융합대학 및 융합대학원 800명이 입주하게 된다. 세종캠퍼스 입주 대학 중 임대형, 분양형 모두 입주 인원이 최다이다. 임대형캠퍼스의 경우 총 3만4,000㎡ 가운데 1만 4,990㎡로 가장 규모가 크며, 분양형캠퍼스 역시 총 6만1,086㎡ 중 3만5,984㎡(59%)로 가장 넓은

면적이 조성된다.

충남대 세종캠퍼스의 임대형캠퍼스는 연내 착공 돼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며, 분양형캠퍼스는 이르면 2024년 2월 공사를 시작하다.

이진숙 총장은 "충남대와 지역사회가 노력해 온 충남대의 세종캠퍼스 진출이 임대형, 분양형 캠퍼 스 모두 입주 확정으로 첫 단추를 꿰었다"며 "새로 운 시대의 첨단융합학문 발전을 선도하고 국기균 형발전에 기여하는 명품 충남대 세종캠퍼스를 만 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On February 3, the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nd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nnounced that they had selected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for Sejong City Joint Campus (4-2 living areas).

A total of thirteen universities applied for a space on the joint campus, six universities—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ongju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anbat University, and KDI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Policy—were selected.

The decision to choos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for Sejong Campus is highly significant in that it was the result of an all-out effort over the past year by local political circles and communities as well as members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from the submission of a campus construction plan to finally being chosen.

Among the six selected universiti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s the only university that plans to build rental and pre-sale university-owned campuses, and their occupancy capacities and sizes are the larges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anbat University, and KDI will occupy the rental campuses. At the same tim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zones 4 and 5) and Gongju University will construct their university-owned campuses. They have the most significant number of rental and university-owned residents among the universities selected for Sejong Campus.

The rental campus is the largest, covering  $14,990\,\mathrm{m}^2$  out of  $34,000\,\mathrm{m}^2$  ( $44\,\%$ ), and the university-owned one is also the largest:  $35,984\,\mathrm{m}^2$  out of  $61,086\,\mathrm{m}^2$  ( $59\,\%$ ).

Construction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s Sejong rental campus is expected to commence this year, with the school set to open in March 2024. Construction of the university-owned campus will begin in February 2024 at the earliest.

President Lee Jin-suk said, "We have taken the first step toward the establishment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s rental and university-owned campuses in Sejong, which we had been working hard to achieve with the local community. We will create a prestigiou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ejong Campus to develop advanced convergence studies in the new era and contribute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 취업률 2년 연속 거점국립대 1위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anks First for Graduate Employability for Two Consecutive Years 충남대학교가 2년 연속 거점국립대학교 취업률 1 위를 차지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월 12일, '2019년 고 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2019년 12월 31 일 기준)' 결과를 공시한 가운데 충남대는 61.1%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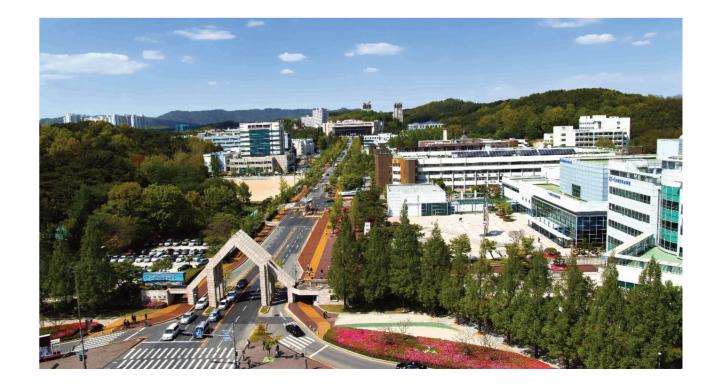
충남대는 지난해(2018년) 취업률 61.3%를 기록한 데 이어, 2019년에도 61.1%로 거점국립대 중 1위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충남대의 61.1%의 취업률은 전국 9개 국가 거점국 립대학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2018년, 2019 년 2년 연속 거점국립대 1위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Among key national universiti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anked first for graduate employability for two consecutive yea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2019 Employment Statistical Survey of Graduat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s of December 31, 2019)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61.1%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s were employed.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ecorded a 61.3% employment rate in 2018 and ranked first among key national universities with a 61.1% employment rate in 2019.

Chungnam National University's 61.1% employment rate was the highest among nine key national universities, meaning that it ranked first for two consecutive years in 2018 and 2019.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33 Korea NU10 MAGAZINE



#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A Dynamic Future that We Will Open Together

HOMEPAGE www.chungbuk.ac.kr SNS www.facebook.com/cbnu1



## 충북대 전 구성원이 함께 만든 기념영상으로 조선팝의 흐름 따랐다!

CBNU follows the trend of Joseon POP with its 70th anniversary film!

## 김수갑 총장, 권위를 내려놓고 학생들과 70주년 기념 영상 함께 호흡

충북대학교가 일명 '꼰대문화'를 일컫는 '라떼는 말이야'를 역사와 전통의 시간을 일구어 온 기성세대의 열정으로 표현해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메시지를 담은 기념 영상을 제작, 공개한지 1달 만에 1만6,000분를 달성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충북대는 지난 1951년 도민의 열망으로 개교한 후 7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한 포 부를 랩으로 표현했다. 특히, 김수갑 충북대 총장 이 대학의 홍보를 위해 'B급 감성' 연기에 몸을 던 졌다. 권위적이라고 생각했던 총장이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소위 '꼰대교수'로 출연 과거의 영 광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해나 가겠다는 포부를 담은 랩과 춤을 선보여 화제다. 충북대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재학생, 동문, 교직원 등 전 구성원이 함께 시나리오 구상부터 음원 및 안무 제작, 출연까지 함께 소통해 그 의미를 더했다. 충북대 동아리 '소울로직'이 조선팝의 특징을 살려 음원을 만들고 충북대 홍보대사 '해울'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무를 제작했다.

김수갑 총장은 "코로나19로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 교정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신입생들을 위로하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온 선배세대를 대표해 직접 출연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음원 제작, 시나리오 작성, 출연까지 학생홍보대사, 동문, 재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힘든 시기이지만 잠시나마 함께 웃으며 충북대의 70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대는 1951년 도민의 열망으로 개교 70 주년을 맞았으며 영상은 3분 정도로 대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비전을 랩으로 담아 누구나 즐길수 있도록 했다. 영상은 충북대 공식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HkeTKMT5y20)과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으며, 추후 안무따라하기 챌린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 President Kim, Sukab joined the film with students without a sense of authority

CBNU presented a new representative emblem and slogan to celebrate its 70th anniversary in 2021.

The 70th anniversary slogan is 'Another 70 years as Regional Roots, Another Century Towards The World'. This means that CBNU, built with all the support from local residents, has a new vision based on its 70 year old development to flourish in the world together with the region for another century.

To improve together with the country and the region, CBNU held a nationwide design contest last September to select an emblem and a slogan showing its 70th anniversary image as well as the aspiration and vision for another century. More than 200 works were submitted and the winners were selected through a strictly impartial judging process.

CBNU was built in 1951 during the Korean War by local residents. These residents wanted to cultivate leaders of the future, so each of them donated a brick and a bag of barley to build it. As a center for human resources, CBNU has developed with the region and finally marks the 70th anniversary in 2021. Taking this opportunity, CBNU has sincerely tried to reestablish an individualized plan for itself. For example, a plan titled 'CBNU Vision 2050' for another century, a specialized plan for each campus, and etc. In addition, CBNU tries to consider the way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as a national university, that is reinforcement of publicity in higher education.

CBNU has won 33 state-funded projects since 2019, which could get approximately 513 billion won from the government. Thus, it is possible to improv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rain its human resources. CBNU made the community of learning and knowledge, which consists of 758 professors who are leading experts in every field, PhDs, MDs, researchers, students, and etc. And 150,000 alumni have tried to do their best to develop CBNU. Based on these efforts, CBNU has carried out many cooperative programs such as opening the campus to co-exist and develop with the region.

To celebrate its 70th anniversary, CBNU made a Memorial Project Committee in 2020 and has been preparing many things like 7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font, film, web site, calendar, and time capsule, UI renewal project, 70th anniversary ceremony and reception, an old photo contest, and etc.



충북대 70주년 기념 영상의 한 장면 A scene from the 70th anniversary film of CBNU

## 충북대, 본격 세종 시대 개막··· 미래형 수의학 교육시스템 확립

CBNU Begins A New Sejong Era... Established Advanced Vet Education System

## 세종글로벌수의학캠퍼스 개교 및 세종동물병원 분원 개원

충북대학교가 본격적인 세종 시대를 맞이한다. 충 북대 세종글로벌수의학캠퍼스가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이하 행복청) 및 LH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 주관하는 세종 공동캠퍼스(임대형)를 오는 2024년 개교하는 한편, 2021년 6월에는 수의대 세종동물병원 분원을 개원한다.

충북대 수의과대학은 이번 진출을 통해 최첨단 수의학 교육을 확충함으로써 미래 수의사에게 요구되는 사람-동물-환경(One Health) 중심의 바이오메디컬 융·복합 연구 및 다양한 임상교육, 실습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세종글로벌수의학캠퍼스(수의과대학 세종캠퍼스)는 세종특별자치시 4-2 생활권에 건립될 예정이며 수의과대학 전임 및 겸임교원 15명을 비롯해 본과 3, 4학년 학생 100명, 해당 전공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50명이 이전한다.

총 임대 면적은 4,715㎡로, 그 중 기본 교육시설은 2,755㎡ 규모로 교수연구실, 학생 강의실, 실습실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시설은 1,350㎡로 교수실험 실 및 공동기기 실험실을 설치하고, 610㎡ 에 해당하는 공간을 회의실, 행정실, 동아리방 및 휴게실 등으로 구성하는 등 학생 편의시설도 확충했다.

이에 앞서 오는 6월 세종시 대평동에 충북대 동물 병원을 개원해 동물진료사업, 대학생 임상교육, 의 료요원 훈련, 동물진료 기술 개발·연구지원을 추 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동물진료 연구·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상윤 수의과대학장은 "앞으로 동물병원과 세종캠퍼스를와 연계해 수의대의 임상교육을 확대하고 연구·진료 기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Sehong Global Vet Campus & Sejong Branch Animal Hospital Open

CBNU begins its new Sejong era. The Sejong global vet campus (lease) is scheduled to open in 2024 with the support from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NAACC) and LH Land & Housing Corporation. And a Sejong branch animal hospital is open in June, 2021.

With the campus and the branch hospital in Sejong, CBNU Veterinary medicine college acquires the most advanced education system, so that it could get a chance to provide bio-medical convergent research focused on human-animal-environment (One Health), a large amount of clinical education, practice opportunities, etc., needed for veterinarians of the future.

The Sejong campus will be built in 4-2 life zone of Sejong and 15 full-time and adjunct professors, 100 3rd and 4th year students, and 50 graduate students in master's and doctorate courses are expected to move there.

The total rentable space is 4,715m². Out of that, fundamental educational facilities occupies 2,755m², including professors' offices, lecture rooms, laboratories, etc. Research facilities (1,350m²) consist of professors' laboratories and joint equipment laboratories and convenient facilities (610m²) for students consist of conference rooms, administrative rooms, clubs, lounges, etc.

Before opening the campus, an animal hospital will open this coming June in Daepyong-dong in Sejong. The hospital is planning to do various things, like animal care, students' clinical education, medical staff training, animal care R&D support, etc., so that quality animal care research and services will be possible.

"From now on, we will connect the animal hospital with Sejong campus to expand our clinical education and strengthen our research and medical treatment functions," said Nam, Sangyun, dean of veterinary college.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34 Korea NU10 MAGAZINE 35



## 통일한국의 중심대학

The Hub University of the Unified Korea

HOMEPAGE www.kangwon.ac.kr SNS www.facebook.com/knu.abs



## 「2020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6년 연속 최우수대학 선정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the 6th consecutive year in <sup>^</sup>2020 Industry Perspective University Evaluation

강원대학교가 2월 24일(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 육협의회, 경제5단체가 주관하는 「2020년 산업 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대학에 선 정됐다.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과 대학 교육체제의 부합 정도를 평가해 최우수 대학을 선정하며, 이번 평가는 건축(시공), 기계(자동차) 등 2개 분야를 대상으로, 53개대학총 81개학과가 참여했다.

이번 평가에서 강원대는 공학대학(삼척) 건축공 학전공이 '건축(시공) 분야' 최우수학과로 선정됐 으며, 전국 국·공립대학교 가운데 최다 연속 최우 수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강원대 건축공학전공(삼척)은 4년 전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한 이후, 산업계 요구에 대응한 교육과 정 개편, 취·창업 프로그램 및 현장실습 참여 확대 등 산업현장과 연계한 전공 교육을 시행해 왔다.

강원대는 지난해(2019년) 평가에서 '식품분야'농 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산업공학부 식품생명공학 전공)가 최우수 대학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 2018년 바이오의약분야(의생명과학대학 의생명 융합학부), ▲2017년 전자반도체(IT대학 전자공학 과)·정유석유화학(공과대학 화학공학과)·화장품 (보건과학대학 생약자원개발학과) 등 3개 분야 ▲ 2016년 건축(시공) 분야(도시건축학부 건축공학 전공) ▲2015년 식품분야(식품생명공학과)에서 각각 최우수평가를 받은 바 있다.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as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six consecutive years in the F2020 Industry Perspective University Evaluation hos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and 5 economic organizations on February 24th (Wed).

The 'University Evaluation from Industry Perspective' selects the best universities by evaluating the degree of conformity between the job competencies required in the industrial field and the university education system. In this year's assessment architecture (construction) and machinery (automobile) were chosen as industrial fields to be evaluated in which a total of 81 departments from 53 universities participated.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Samcheok Campus) was selected as the best department in the "Architecture (construction) field," for this year's evaluation. Amongst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KNU has been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the longest time.

Ever since KNU's Architectural Engineering Major (Samcheok) obtained 'A Grade' in the evaluation 4 years ago, it has worked to provide an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the industrial field. In order to respond to industrial needs, KNU has reorganized the curriculum by expanding opportunities in the

actual field to gain hands on experience through employment and start-up programs along with field training.

In the evaluation conducted in 2019. KNU was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in the field of food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Division of Food Biotechnology and Biosystems Engineering, Department of Food Science & Biotechnology). ▲Additionally, in 2018 KNU was evaluated as the best university in the field of biopharmaceuticals (School of Biomedical Science, Division of Biomedical Convergence). ▲In 2017, KNU received the same markings in the fields of Electronic semiconductor (College of Information Technology, Department of Electronics Engineering), Refinery Petrochemical (College of Engineering,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and Cosmetics (College of Health Science, Department of Department of Herbal Medicine Resource). Aln 2016. KNU's Division of Architectural,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succeeded to receive the best university in Architecture (Construction), ▲In 2015, KNU was awarded as the best university in the food division (Department of Food Science & Biotechnology).



## 삼척캠퍼스 「도계 대학도시 조성사업」 첫 발 내딛다

Samcheok Campus takes the first step in building Dogye University City Development Project

강원대학교와 삼척시는 2월 16일(화) 삼척시청 상황실에서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양여 협약식」을 개최했다.

강원대와 삼척시는 해발 860m 고지에 위치한 강 원대 도계캠퍼스와 도계읍내를 연계해 재학생들 에게 더욱 편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폐광지 역 활성화를 위한 '도계읍 대학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계 대학도시' 조성의 첫 번째 사업인, 「도계 복합 교육연구관」은 도계읍 전두리 옛 석공 평화사택 부지에 2019년부터 약 80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47㎡ 규모로 2020년 12월 준공됐다. 강원대와 삼척시는 「도계 복합교육연구관」이 폐광기금으로 조성된 만큼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하는 '도계 대학도시 조성사업'의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강원대는 도계 복합교육연구관에서 도계캠퍼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수업을 비롯해 ▲재학생 RC(Residential Campus)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맞춤형 Open Class 강좌 개설 ▲보건과학대학 전공봉사활동 등을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양호 시장은 "강원대학교와의 지속적인 협의· 노력과 폐광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힘입 어 건립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도계 복합교육 연구관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성공사례로 평 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헌영 총장은 "대학과 삼척시, 지역주민들의 하나 된 염원이 오늘의 복합교육연구관 양여 협약식을 있게 한 것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복합교육연 구관 건립이 도계 대학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Samcheok City held the Concession Ceremony for the Transfer of Dogye Complex Education Research Center in the situation room of Samcheok City Hall on February 16 (Tue).

G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Sam-

cheok City have been promoting the "Dogye-eup University City Project" to provide a more comfortable learning environment for enrolled students while revitalizing the abandoned mine area by connecting the Gangwon University Dogye Campus, located at an altitude of 860m, with the Dogye-eup area.

The Dogye Complex Education Research Center」 which is the first project in creating the 'Dogye University City', finished began construction on 2019 and finished on December 2020. A total of 8 billion won was invested to build the center on the site of the old mason peace house in Jeondu-ri, Dogye-eup. The building consists of a basement level, is 3 stories high and the total floor area is 2,447 m². As the 「Dogye Complex Education Research Center」 was build with the fund made from the abandoned min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Samcheok City hopes that it will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the "Dogye University City Development Project," which promotes mutual growth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communiti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utilize the center to offer liberal arts classes for freshmen at the Dogye campus, ▲operate RC (Residential Campus) programs for enrolled students, ▲offer open class courses tailored to local residents and ▲employ it as a place to carry out volunteer activities related to their major for students at College of Health Sciences.

Mayor Yang-ho Kim said, "We were able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through continuous discussions and collaborative hard work with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local residents of the abandoned mine area actively participated as well. I will do my best so that the Dogye Complex Education Research Center will be evaluated as a successful case of co-prosperity between regions and universities."

President Heon-young Kim said, "I think the concession ceremony for today's complex education research center is truly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byproduct of the unified desire of the university, Samcheok city and the local residents. I expect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lex Education Research Center to serve as a cornerstone for the successful promotion of the Dogye University City Project."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36 Korea NU10 MAGAZINE 37



#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다시 뜨겁게! 다시 자랑스럽게!

Bringing Back KNU Pride and Glory

HOMEPAGE www.knu.ac.kr SNS www.facebook.com/ knuofficial1946



##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선정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elected for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경북대학교는 대구시(시장 권영진)와 함께 정부 부처합동사업인 '2021년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총 1,204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경 북대 서문 일대는 연구개발:기술 창업 및 지역 협 력 기능이 합쳐진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예 정이다. 특히 대구시는 도심융합특구 사업 및 도 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이 사업으로 경북대 서문과 옛 경북도청 부지, 삼성 창조캠퍼스를 잇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앞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대가 제안한 캠퍼스혁신파크는 총 3만2,000 ㎡ 규모로, 경북대 제2운동장 일대에 조성된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로 총 2단계(1단계 2021~2027년, 2단계 2027~2030년)로 구분해 추진된다. 1단계 사업에서 산학연혁신허브센터, 전문R&D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이 조성될계획이다. 건축면적 2만2,000㎡ 18층 규모인 산학연혁신허브센터(경북대 ACT메인센터)에는 100여개의 기업연구시설, 창업보육, 사업지원 및 레지던시 공간이들어서며, 2022년에 착공해 2024년 준공된다. 2027년 이후 조성 예정인 2단계 사업에는 기업연구소와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대학과 지역의 특화산업 분야를 위한 2개동(Future NEST, Tech-Summit)이 추가로 건립될 예정이다.

경북대는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으로 AI(인공지능), ICT 및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기술혁신 핵심 인프라와 R&D시설, 혁신인재 양성, 창업 및 기업성장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과 인재가 먼저 찾는 혁신의 산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신규일자리 3,000개, 500여 개 보조일자리, 20~30대 청년층 고용비율 65%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Daegu Metropolitan City (led by Mayor Kwon Young-Jin) an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NU) have been selected to undertake the joint government-ministry project, '2021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With a total funding of KRW 120.4 million, the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es will be established at the West Gate of KNU to promote research development,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start-ups. Along with the revitalization of the former G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site and Daegu Samsung Creative Campus, KNU's West Gate campus innovation park is expected to lead Daegu City's initiatives on 'Special Convergence Zone Development' and 'New Deal on Urban Regeneration.'

The total area of the campus innovation park is set to be 32,000 m<sup>2</sup> on the grounds of the 2nd Sports Ground at KNU's West Gate, and the project is to be administered in two phases: the length of the first phase will be from 2021~2027 and the second phase from 2027~2030. In the first phase, construction will commence in 2022 and finish in 2024 with the establishment of complexes including the Industrial-Academic Innovation Hub Center, R&D Center, and Business Incubation Center. With 18 floors and an area of 22,000 m², the Industrial-Academic Innovation Hub Center(ACT Main Center) plans to hold around 100 corporate research facilities, business incubators, support systems, and residencies. The second phase administered after 2027 will focus on the expansion of 2 new buildings (Future NEST, Tech-Summit) comprising the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and Startup Support Center.

Through the founding of this campus innovation park, KNU aspires to build an innovative infrastructure comprised of high-quality support systems with a focus on AI, ICT, and Big Data that both businesses and specialized individuals seek to find.

## 2040 탄소중립캠퍼스 조성 선언!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o Build 2040 Carbon Neutral Campus!

경북대학교는 지자체와 민간기업과 손잡고 탄소 중립과 지역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2040 탄소중립 캠퍼스' 조성을 선 언했다.

경북대는 대구광역시, 현대일렉트릭, 태영건설과 '대학캠퍼스 탄소중립 공간 조성사업' 공동 추진 을 위한 업무 협약을 5월 10일 경북대 본관 5층 중 앙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 학 관이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 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북대 의 '탄소중립 캠퍼스'는 민간주도 차세대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이다. 주관기관 인 경북대는 탄소중립 R&D 기반 조성 및 인재 양 성, 산업화를 지원하고, 대구시는 정부 정책 공조 와 규제 해소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참여기 관인 현대일렉트릭과 태영건설 등이 1,500억 원 을 투자해 제로에너지 빌딩 구축, 캠퍼스 마이크 로 그리드 구축 등을 지원한다. 향후 다양한 국비 지원사업 수주 등을 통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북대는 2017년 기준 배출전 망치인 순 배출량 2만6,363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2040년까지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000여 명의 에너지 융복합형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에도 함께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북대의 성과는 대구 관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로 탄소중립을 확대해 향후 대구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스마트 그린시티, 스마트 산단을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s recently partnered with private enterprises and the local government to build the first carbon neutral campus in Korea to promote carbon neutrality and regional energy industries.

The agreement on 'Developing Carbon Neutral University Campuses' between KNU, Daegu Metropolitan City, Hyundai Electric, and Tae Young E&C was established on May 10th at KNU's Central Conference Room. This university, industry, and government collaboration provides a new model that aligns with the national government initiative to transition into a carbon neutral society by 2050. Most notably, KNU's 'Carbon Neutral Campus' is to be a pilot project of the private sector facilitating an energy industrial ecosystem.

As the organizing institution, KNU will develop found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R&D) and foster specialists on carbon neutrality, while Daegu Metropoli-

tan City will offer administrative assistance and alleviate governmental regulations. Participating firms such as Hyundai Electric and Tae Young E&C plan to invest KRW 100 billion for the construction of a Zero-energy building and a campus Microgrid, while various governmental funds amounting to KRW 200 billion are also to be allotted to these sustainable development projects.

In undertaking the initiative on carbon neutrality, KNU aims to decrease the reported greenhouse gas emissions of 26,363 tons in 2017 to 0 tons by 2040, as well as nurture around 1,000 professionals on energy convergence and carbon neutrality. Furthermore, lasting effects are to be expanded not only to loca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but also to the entire city of Daegu, drawing the city closer to becoming a Smart Green City with smart industrial complexes.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38 Korea NU10 MAGAZINE 39



# 경상국립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통합으로 혁신과 상생의 길을 열어갈 경남의 국가거점국립대학

National Flagship University of Gyeongsangnam-do, opening the way to innovation and coexistence through integration

HOMEPAGE www.gnu.ac.kr

 ww.facebook.com/ smartGNU





## 경상국립대-광동제약-부산대, 대형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항비만 신소재 개별인정 건강기능식품 개발 위한 기술이전'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wangdong Pharmaceutical, and Pusan National University sign a hefty contract on technology transfer:

"TechnologyTransfer Contract for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ly Recognized Health Functional Foods for New Materials for Anti-Obesity."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부산대학교 산학협 력단-광동제약 등 3개 기관은 '항비만 신소재 개 별인정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 을 체결했다.

특허 및 기술 연구개발자는 경상국립대 원예학과 강남준 교수와 부산대 원예생명과학과 최영환 교 수 두 명이다.

강남준 교수는 "이 신소재는 기존에 개발되지 않은 신규 품종으로 동물실험 결과, 다른 항비만 기능성 원료 대비 낮은 농도에서도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라고 밝히고 "부산대 최영환 교수와 함께 10여 년 동안 연구해온 것이 결실을 맺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강남준 교수 등에 따르면, 이번에 계약 체결하는 신물질은 비만동물모델 대상 항비만 효과 측정 결과, 체중 및 복부피하지방 감소와 간조직·지방세포의 지방축적억제 효과를 보이면서도 간과 신장의 부작용은 거의 없어 항비만약 약학적 조성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높은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 광동제약은 축적된 연구개발 노하우를 활용해 이신소재 추출물 기술을 적용한 '체지방 개선 개별인 정형 건강기능식품' 상품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기준 국내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약 1,000억원 대로 추정된다.

Three institutions, includ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Group, Pusan National University (PNU)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Group, and Kwangdong Pharmaceutical, signed the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for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ly Recognized Health Functional Foods for New Materials for Anti-Obesity."

The patent and technology R&D researchers are GNU Department of Horticulture Professor Kang Nam Jun and PNU Department of Horticultural Bioscience Professor Choi Young Whan.

Professor Kang said, "This material is a new kind that has not been developed previously. Animal experiments confirmed that it has the effect of reducing body fat even at a lower concentration than other anti-obesity functional ingredients. What I have been studying for 10 years with Professor Choi at PNU has come to fruition."

According to Professor Kang and others, the new substance contracted reduces weight and abdominal subcutaneous fat and inhibits fat accumulation in liver tissues and fat cells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anti-obesity impact in an obese animal model. However, it has almost no side effects on the liver and kidney. As a result, it showed a high potential for use as a pharmaceutical ingredient for anti-obesity drugs or health functional foods.

Kwangdong Pharmaceutical announced plans to develop a product called "individually recognized health functional food for reducing body fat" by applying this new material extract technology using its accumulated R&D expertise. As of 2019, the local market for body fat reduction health functional food is estimated at USD 89 million.

**'2021년 진로체험버스' 경상권역 운영 기관 선정** 대학 유일하게 선정… 사업비 1억3.000만 원

2021 Career Experience Bus selects in Gyeongsang Area: GNU, the only university chosen with USD 115K 경상국립대학교는 교육부의 진로체험 격차 해소 프로그램인 '2021년 진로체험버스 사업'에 대학 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경상국립대는 2021년 진로체험버스 경상권역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3,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경상국립대 입학처는 2017년부터 대학진로탐색 캠프 운영기관 4년 연속 선정, 지역특화진로체험 프로그램 4년 연속 운영 대표기관 선정등 진로체험 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 기부와 지역사회 공헌을 끊임없이 수행해왔다.

이광호 입학처장은 "입학처가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진로 탐색과 체험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들 이 2021년 진로체험버스 경상권 운영기관 선정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대외적으로 교육 기부 역량 을 인정받은 쾌거"라고 설명했다.

이번 진로체험버스 사업 기관은 1차 사업 운영 계획서 평가로 권역별 심사 대상 기관을 추려낸 뒤, 2차 발표·면접 평가(온라인)로 최종 선발했다. 기관·대학들이 치열하게 경쟁한 결과 선정 기관 중대학으로는 경상국립대가 유일하게 진로체험 버스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대학들이 소외지역 진로 체험 사업을 포기할 때도 경상국립대는 온라 인으로 진로탐색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 외지역 학생들의 꿈과 끼를 지원해 왔다. 이번 진 로체험버스 사업 선정 또한 그런 역량을 대외적으 로 인정 받은 것이다.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was the only university selected for the "2021 Career Experience Bus Project," a program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bridge the career experience gap.

Selected as a running institute in the Gyeongsang area for the Career Experience Bus in 2021, GNU will receive USD 115,700 for project expenses. Since 2017, the GNU Admission Office has continuously made education donations and contributions to the community by bridging

the career experience gap after being chosen as a university career exploring camp—running institute and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for running a specialized regional career experience program for four consecutive years.

Director of Admission Office Gwangho Lee explained, "The courses that the admission office has been trying to explore and experience career paths for underprivileged students played major roles in being selected as the operating institute for the Career Experience Bus in the Gyeongsang area in 2021. It is a splendid achievement that has been recognized for its capability to donate to education externally."

The first step in the Career Experience Bus selection was choosing the institutions to be screened by region by evaluating their business operation plans. After the initial screening, the process further involves a second presentation and interview evaluation (online) for selection. As a result of the fierce competition between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GNU was the only university chosen as a career experience bus operator.

Even when other universities gave up career experience projects in disadvantageous areas because of COVID-19 last year, GNU has developed online programs to support students' dreams and talents. Its selection for the Career Experience Bus project proves it has such capabilities externally.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40 Korea NU10 MAGAZINE 41



## 시대를 열어가는 담대한 지성 Leap forward, PNU

Audacious Intellects Leap forward, PNU

HOMEPAGE www.pusan.ac.kr SNS https://www.facebook.com/ PusanNationalUniy



## 부산대 주도 「국립대 회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국립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국유재산 매각대금 대학 귀속 가능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Act Led by PNU Has Been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Proceeds from the Sale of State-owned Property Acquired with the National University's Own Funds Can Be Retained by the University

국립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의 처분 수입금을 대학회계 세입으로 귀속해 대학의 발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대학교는 그동안 열악한 국립대학들의 재정난 타계를위해 이 개정안 통과를 적극 주도해 왔다.

기존 대학회계법에 따르면, 국립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에도 국유재산으로 보아 매각을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금으로 정부로 귀속돼 대학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국립대학 총장들은 대학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대금을 대학회계로 귀속시켜해당 대학의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수년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법령 개정을 촉구해 왔다.

특히, 부산대는 이 과정에서 열악한 재정난에 시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 한 재원 확충 방안으로 이 법률 개정을 최초로 제 안하고 지속적으로 국회를 설득하는 등 개정을 적 극 주도해 왔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에 달려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열악 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국립대학이 더욱 발전하고, 대학의 발전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골 고루 균형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 의미를 평가했다.

On February 26, a partial amendment to the Establishment of Accoun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of National Universities Act has been passed in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act allows national universities to vest the proceeds from the disposal of stateowned property acquired through their own funds in the university's accounting revenues and use them as financial re-

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universit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actively leading the passage of this revised bill to help poor national universities overcome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In the case of the existing University Accounting Act, even when a national university sold property acquired with its own financial resources, the proceeds of the sale became income for the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fund which returns to the government. Thus, the university could not unilaterally use the proceeds because the funds acquired were regarded as state-owned property.

In recent years, the presidents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have continuously urged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amend the laws, so that if they sell state property acquired through the university's own financial resources, the proceeds of the sale can be added to the university accounts and used as a financial re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In particular, PNU has taken an active role in changing the rules by proposing amendments to the laws for the first time. PNU has continuously worked to persuade the National Assembly as a way to expand the financial resources available for the development of all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many of which are suffering from serious financial difficulties.

Cha, Jeong In, preside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expressed his evaluation of this change stating,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or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Korea depends on the role and development of national universities. I hope that this amendment to the act will help the national universities in financial difficulty to develop more. Also all regions of our country will have an opportunity to be developed evenly and in balance based on these universities' development."

## 「BK21 스마트강의실」 부산대 13곳 구축 대학원 교육환경 혁신 첨단 시스템 도입

13 Establishment of *BK21 Smart Lecture Room* in PNU
PNU Has Introduced Advanced
System for Innovative Educational
Environment for Graduate School

2020년 교육부의 '4단계 BK21사업'에서 전국 대학 2위를 달성한 부산대학교가 대학원생의 연구·교육을 위한 전용공간과 교수·학생들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첨단시스템이 도입된「BK21스마트강의실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부산대는 대학원 혁신 고도화를 위해 4단계 BK21 사업 1차년도 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13개 스마트 강의실을 구축하고 올해 3월 신학기부터 활용에 들어갔다.

부산대는 BK21 대학원혁신사업의 교육몰입도 증진을 위한 스마트 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BK21 스마트강의실'을 구축했다. 부산대 대학원혁신실은 4단계 BK21사업에 참여하는 교내 교육연구단(팀)을 대상으로 BK21 스마트강의실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13개 강의실을 선정했다. BK21 스마트 강의실은 부산캠퍼스 11개실, 밀양캠퍼스 2개실에 각각 설치됐다.

이번에 구축한 BK21 스마트강의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갈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방식의 수업방법(PBL, TBL, BL 등)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첨단 강의실로,학습자 참여 중심의 혁신적인 수업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를 위해 벽면 글래스 보드, 개인용 디바이스 활용 가능한 미러링 시스 템 등을 갖췄으며, 학습활동 추적 녹화시스템을 통해 교수자의 강의내용을 녹화할 수 있다. 그 외 에도 1인용 책걸상, 전자칠판, 전자교탁, 단초점 프 로젝터 등의 기자재 교체를 통해 최상의 환경에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Pusan National University, ranked 2nd among universities nationwide in the 4th stage BK21(Brain Korea21) Projec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2020, has completed the *BK21 Smart Lecture Room Construction Project*. The project has introduced a dedicated space for research and education for graduate students and a state-of-the-art system for interactive communication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PNU has built 13 smart classrooms with a budget of 1 billion won in the first year of the 4th stage BK21 project in order to encourage graduate school innovation. These classrooms began to be used in the new semester in March this year.

PNU has established the BK21 Smart Lecture Room program to help create a smart environment to enhance the educational immersion in BK21 graduate school innovation projects. The PNU Graduate School Innovation Office selected 13 classrooms after receiving applications for the *BK21 Smart Lecture Room* from the oncampus educational research teams participating in the 4th stage BK21 project. 11 BK21 smart lecture rooms were installed on the Busan campus and 2 rooms were installed on the Miryang campus.

The newly built BK21 smart lecture rooms are state-of-the-art classrooms with an environment where various teaching methods (PBL, TBL, BL, etc.) can be implemented to reflect the diverse learning needs of learners who will be leader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roject introduced a system that can employ these innovative classes for learner-centered teaching methods.

In order to encourage learners to actively participate, the classes have been equipped with a glass board on the wall and a mirroring system that can be used for personal devices. Similarly, the contents of instructor lectures can be recorded with the learning activity tracking and recording system. In addition, PNU has replaced other classroom equipment such as individual desks, an electronic blackboard, an electronic lecture desk, and a single-focus projector so that each class can occur in the best learning environment possible.





42 Korea NU10 MAGAZINE Korea NU10 소개 Introduction to Korea NU10

춘천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부산

대구

경상남도

총장 차정인 President Cha, Jeong In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46241, Korea

• 6개 학문분야 QS평가 세계 101-200위권, 융합과 통섭형 엘리트교육

• Guided by the university's founding values of truth-freedom-service to

• The nation's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on May 15th, 1946

• Six departments are ranked in the top 101~200th by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Elite education through the fusion and convergence of disciplines

• 1946년 5월 15일 국내 최초 종합 국립대학으로 출범

become a global research-oriented university

• 진리·자유·봉사의 건학 이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경기도

청주

대전

# INTRODUCTION KOREA NU10



#### 총장 오세정 President Oh Sejung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 1946년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을 갖춘 국내 최초의 종합 국립대학교로 출범
- 1975년 관악캠퍼스 설립으로 캠퍼스 종합화 달성
- 교육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선도
- Established as the first national university with 9 Colleges and 1 Graduate School
- · Centralized dispersed campuses in Gwanak
- · Played centr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 충청남도



#### 총장 김수갑 President Kim Sukab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Korea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 1951년 초급농과대학으로 시작, 2018년 신수도권 중심대학으로 도약 원년
- 2014~2018 학생만족도 1위(NCSI 조사),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설립 운영
- 조화, 품격, 미래를 바탕으로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를 그리는 충북대학교
- Beginning as a junior agriculture college in 1951, CBNU has leapt to its current status as a major university in the new capital area
- Standing as the No. 1 university in Student Satisfaction (NCSI Survey), from 2014 to 2018, CBNU has established and ran the Sejong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olicy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raws a Dynamic future based on the three core values of Harmony, Dignity and Future



#### 총장 김동원 President Kim Dongwon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96 Korea

- 1947년 인가된 도립 이리농과대학과 전주 명륜대학, 군산대학관을 모태로 개교
-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창의인재 양성
-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 2012, 2015, 2017년 학생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
- Founded as Iri Provincial College of Agriculture (1947), consolidated with Myeongnyun College (Jeonju) and Gunsan College (1952)
- Creative talents cultivated by innovative education platform
-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student service satisfaction by KS-SQI(2012, 2015, 2017)



#### 총장 송석언 President Seok-Eon Song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3243, Korea

- 1952년 도립 초급대학으로 시작, 도립 제주대학 승격 후 국립대학 이관
- 2008년 제주교육대학교 통합,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 교육기관 발돋움
- 경쟁력 있는 지식창출로 국가발전 선도
- In 1952, Jeju Provincial Junior College was founded. It became the four-year Jeju Provincial College in 1955 and designated as a National University in 1962
- Merged with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08. Become a world-class university alongside Jeju, a free international city
- Leading national development with competitive knowledge creation



#### 총장 이진숙 President Jin-Sook Lee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34, Korea

- 1952년 도민의 일두일미(一斗一米) 운동으로 설립, 대덕연구단지에 위치
-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대학으로 성장 목표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착수, 세종특별자치시에 캠퍼스 설립
- Established through the rice donation campaign by every resident in 1952 in Daedeok Science Town
- •The goal is to be the leading university of Korea spreading toward the world together with the residents
- Construction of Sej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tarted. The campus will be constructed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 1952년 도민 고등교육 열망으로 설립, 호남 제일의 거점국립대학교로 성장 • 자유와 평화 민주 인권 수호, 한국 민주주의 발전 주도
- 4차 산업시대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 Since its foundation in 1952 upon the desire of the local citizens for higher education, CNU has become the top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in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 CNU has led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safeguarding the nation's freedom,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 Fostering creative convergence talents in the 4th industrial era



전라북도



##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총장 김헌영 President Kim Heonyoung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1 Kangwon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4341 Korea

- 1947년 춘천농업대학 출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건학 이념
- 춘천·삼척·도계 3곳의 멀티캠퍼스 체제 구축
- 거점국립대 취업률 1위(2018년 1월 정보공시 기준)
- Established Chuncheon Agricultural College in 1947, with the founding spirit of the quest for truth based on practical science

43

- Integrated three campuses in Chuncheon, Samcheok and Dogye into a multi-campus system
- Achieved No.1 employment rate among loc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Based on the information notice in January 2018)



#### 경북대학교 KN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총장 홍원화 President Won-Hwa Hong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Korea

- 1946년 9월 국립대학 승격(대구사범대학,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
- '진리·긍지·봉사' 교시로 글로벌창의인재 '첨성인' 양성
- QS 세계 대학 취업능력 랭킹 국내 7위
- Upgraded to National College in September 1946 (comprised of the Colleges of Education, Medicine, and Agriculture)
- KNU established the concept of the talented, globally creative student, or 'Cheom-seong-in', under KNU's Educational philosophy of 'Truth, Pride, Service'
- KNU ranks 7th in Korea in the QS World University Employability Rankings



#### 당 경상국립대학교 GNU

विश्वरिक्षण्डिक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총장 권순기 President Soon Ki Kwon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33

33, Dongjin-ro, Jinju, Gyeongsangnam-do, 52828 Korea

- 2021년 3월 1일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통합
- 생명과학, 항공기계시스템, 나노신소재·화학분야 국내 최고 경쟁력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경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대학 • On March 1, 2021, forme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nd
-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erged int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Korea's best competitive potential in the fields of life sciences,
- aerospace & mechanical engineering, nano &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and chemistry
- •The leading university for Gyeongman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a regional innovation project based o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universities



Korea NU10 MAGA7INF K-NU10 포커스 K-NU10 Focus

#### K-NU10 FOCUS 2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확대와 지역균형 뉴딜정책

**Expanding the Obligation to** Hire Local Talent in **Public Institutions and Balanced Regional New Deal Policies** 



김석수 부산대학교 기획처장 Kim Seok-soo Dean of Planning at



중앙정부가 2021년을 '지역균형 뉴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하였다. 지역균 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것으로 지역을 새롭게(new), 균 형 있게(balanced) 발전시키겠다는 약속(deal)이다. 지역균형 뉴딜의 정책목표는 지역경제혁신, 지역의 삶의 질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이다. 이를 위한 4가지 중점 추진방안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실행,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의 확산 지원, 공 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지원,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 조 성이 핵심이다. 총투자규모 160조 원 중에서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75조 원 이상 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역균형 뉴딜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 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범부처 및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 징 중의 하나이다.

The central government has declared that 2021 will be the first year of a "Balanced Regional New Deal." The Balanced New Deal is a regional expans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 a promise to develop the region in a modern, balanced manner. The policy goals of the balanced regional New Deal are regional economic innovation, improved quality of life in the reg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four main ways to promote this are to implement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support the spread of local government-led New Deal projects, support the promotion of leading New Deal projects, and create a sustainable balanced New Deal ecosystem. Of the total investment of 160 trillion won, more than 75 trillion won is known to be invested in balanced regional New Deal project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lanced regional New Deal is being jointly promoted by all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such as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예컨대, 국토교통부는 중장기 정책으로 구현된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과 함 께 혁신도시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한다. 지자체의 이전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혁신플랫폼 을 구축하고, 지역대학과 산업계 등과 협력하여 특화 학과의 개설 및 교육을 통 하여 지역균형 뉴딜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국가균형발전 이라는 화두에 걸맞은 정책이자 사업추진 방식이다.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중심 으로 전환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와 지향성이 엿보인다.

그러나,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균형 뉴딜 정책의 대다수는 예상 총투자 규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방대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 이 전제가 돼야 한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것으로 사뭇 기대되는 지역균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 정책 말고는 다른 묘책은 없을까?

최근 언론을 통해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확대 개선'에 대한 소식을 심 심찮게 접하게 된다.

기존의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지역 이전 공공기관은 해당 소재지의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세부적으로 지역 이전 공공기관은 2018년 18% 의 무채용 비율로 시작하여 2022년까지 30%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지켜야 한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경우는 2022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30% 공공기관 채용의무비율을 상회하여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달성 수준은 지역마다 제각각이며, 공 공기관 역시 지역인재 채용의무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존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는 혁신도시법상 의 이전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가 해당 '이전 지역'에만 국한되 었다. 이로 인하여 지역 이전 공공기관이 목표 채용비율 30%를 달성하기에는 우 수한 인재풀 확보에 애로를 겪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지역인재 30%(2022년 목표) 의무채용비율을 50%로 늘리 되 '30%(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인재) + 20%(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인재) 비율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 회에 발의됐다. 이 법률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우수인재 확보 등 제 문제를 해결 하고 정책 도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진일보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 각이다.

One example of this cooperation i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long with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of innovative cities operating under mid- to long-term policies, collaborating with other related entities such as local government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It is a method of building innovation platforms based on local governments'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and innovative cities, and pursuing the goal of balanced regional New Deal talent developm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ongoing education of specialized departments in cooperation with local universities and industries. It is a policy that matches the topic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ith a method of implementing proiects. It shows the central government's willingness and determination to shift the axis of national development to regional centers.

11

However, the majority of the balanced regional New Deal policies promoted by pan-ministerial projects is premised on a massive fiscal spending expansion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indicated by the projected total investment. In order to successfully complete a balanced regional New Deal that is expected to revive the local economy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is there no other trick besides a fiscal spending expansion policy?

We have recently heard a lot of news about the "improvement of the obligation to hire local talent in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existing Innovative Cities Act, local public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hire local talent. In detail, public institutions that move to a specific region start with an 18% mandatory employment rate beginning in 2018 and move to a 30% mandatory employment rate by 2022. Currently, some regions, including Busan, employ local talent exceeding the 30% mandatory employment ratio of public institutions, which will be required by 2022.

However, varients in the level of achievement of mandatory recruitment of local talent by public institutions is being reported, and that public institutions have not maximized the positive effect of the mandatory recruitment system. The existing obligation to hire local talent in public institutions was limited to the relevant region that the public institution moves in to, under the Innovative Cities Act. As a result, local relocation public institutions had a hard time securing the exceptional talent needed to achieve their target employment ratio of 30%.

In the meantime,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a revision to the Innovative City Act, which calls for an increase of the mandatory employment ratio to 50%, of which 30% is from schools in the relocation region, and 20% is from schools in other non-capital areas. The revision of the law is thought to be a good alternative to solving problems such as securing sufficiently talented people and furthe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troduced policies



K-NU10 포커스 K-NU10 Focus

이 같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전 지역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풍부한 인재풀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지역 간에도 우수한 인재의 교류가 활 발히 이루어질 수 있어서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또한 대표적인 취업 선호 대상인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희망과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지역대학은 우수한 신입생 유치 및 대학 경쟁력의 확보가 용이해 진다.

예컨대, 부산지역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남대학교 졸업생이 지역인재 (20%) 채용의무제의 적용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전남지역 한국 전력공사에는 부산대학교 졸업생이 지역인재(20%) 채용의무제의 적용을 받고 취업에 우선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지키면 서 다양한 지역의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지역대학도 해당 지역 이외 타 지 역에 이전한 다양한 공공기관에 졸업생을 취업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 게 된다. 지역인재에게 기회의 창이 넓어진다. 지역대학과 지역에 하나 둘 사람 이 모이고, 지적자산과 인적자산이 넘쳐나고, 지역혁신과 교류발전을 선도할 집 단지성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전국의 지역대학이 대혼란에 빠져 있다.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다고 아우성이다. 지역의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일부 국립대학도 목 표하는 신입생 충원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과도한 수도권 집 중, 지역의 일자리 부족, 지역대학과 지역의 소멸 현실화,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모든 정책이 만병통치약이 되는 경우는 없다. 이 질병에도 통하고 저 질병도 치 유하는 그런 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의 확대 및 개선이 이전 지역의 대학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도권 지역 학교에는 손해가 된다는 인식도 있을 것이다. 자유경쟁 원리에 위배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이라는 사회현상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인적자원, 물적자원, 금융자원, 정보자원 등을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하나 도 남김없이 빨아들이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확대 및 개선과 같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정책은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황폐하 고 불 꺼진 지역을 방치한 채 야경 찬란한 수도권만 바라보고 가꾸며 살아갈 순 없다. '건강한 지역'이 글로벌 도시 수도권과 대한민국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기억 해야하다.

막대한 재정지출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 한국판 지역균형 뉴딜 정책의 성공 사 례를 보고 싶지 않은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50%(30%+20%) 확대' 를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자. 제도개선 하나가 지역대학과 지역이 웃음 지 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If the system is improved, the local public institutions which are relocating will be able to secure the abundant talent pool they require, while at the same time actively exchange talent between regions, which will greatly help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local universities will be able to attract top freshmen and secure university competitiveness due to the increased hope and possibility of students getting jobs at public institutions, which are highly preferred for

12

For example, graduates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an get job preference at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in Busan under the local talent (20%) recruitment obligation system. At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in Jeollanam-do Province, graduates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will be beneficiaries of the local talent (20%) recruitment obligation system and will receive priority in employment. Public institutions will be able to secure talented people in various regions while keeping the obligation to hire local talent. Furthermore, local universities will be able to ensure more opportunities for their graduates to be hired by a range of public institutions that may have moved to other regions. The window of opportunity widens for local talent. People will surely gather in local universities and regions, injecting intellectual and human assets, and the collective intelligence will work to lead regional innovation and exchange development.

Right now, local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are in mayhem. The cynical saying that "universities will begin to shut down in local regions in the order at which their campus' cherry blossoms bloom," is becoming a reality. Some national universities, not only local private universities, have failed to achieve their target recruitment rate. A vicious cycle of decreasing school-age population, excessive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lack of jobs in the smaller regions, realization of the extinction of local universities and neighborhoods, and weak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s becoming a reality. Now this vicious circle needs to be broken.

Not all policies are perfect. There is no such drug that works to bolster a disease and also cures the host of the disease. While the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the target system for hiring local talent in public institutions will help universities in the regions where public institutions relocate to, there will also be a perception that schools in the metropolitan area will be disadvantaged. One might say that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free competition. Howeve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sucking up human resources, material resources, financial resources and information resources in all parts of the country like a black hole due to the ongoing social phenomenon of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area.

Policies that are the cornerston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uch as the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the obligation to hire local talent, should be recognized and promoted as Affirmative Action. We cannot look in awe at the bright ligh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le neglecting the devastated darkness around it.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healthy local regions are the true source of the global urban metropolitan a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as a whole.

Wouldn't it be nice to see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balanced New Deal policy in Korea, where massive fiscal spending is not required? First of all, let's push for a "50% (30%+20%) increase in the obligation to hire local human resources at public institutions."

One system improvement could be the starting point for a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here local universities and regions can grow together.



Korea NU10 MAGAZINE

#### K-NU10 FOCUS 3

# 지역 혁신성장의 심장, 「캠퍼스 혁신파크」

The heart of regional innovation growth, Campus Innovation Park



강원대학교 산학연구부총장 Dr. Choi, Hwang Kyu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Vice President, Industry-University and Research Affairs



####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소개 및 추진배경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 로, 캠퍼스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 사업 공모 당시 전국의 32개 대학에서 제안서를 제출해 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으며, 강 원대는 1차 서류심사에서 9개 대학으로 추려진 후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3개 대학(강원대, 한남대, 한양대ERICA)에 국·공립대학 중 유일하게 이 름을 올렸다.



#### Introduction and background of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13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is a project in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tartups to transform idle sites within universities into an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 At the time of the 2019 project competition, 32 universities nationwide submitted proposals and the competition rate exceeded 10:1.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as selected as one of the nine universities in the first document screening. After the second onsite inspection, Kangwon University was the only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y to be selected for the project out of the of the three universities that were finally chosen (Kangwon University, Hannam University, and Hanyang University ERICA).

The purpose of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is to overcome the crisis in universities and regions caused by the reduction of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centralization of resources to the metropolitan area. Additionally, it aims to realiz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providing regional innovation growth engines. Existing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projects focused on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by utilizing universities' infrastructure. However, the Campus Innovation Park targets for long-term growth by improving occupancy conditions for tenant companies by building new corporate occupancy facilities, providing corporate management support, and organically linking various government projects to start-ups.

K-NU10 포커스 K-NU10 Focus 14 Korea NU10 MAGAZINE 15



강원대 '캠퍼스 산학단지' 부지 현황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ampus Industry-Academic Complex' Site Status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신학연혁신허보' 조감도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Campus Innovation Park 「Industry-Academic Innovation Hub」 view map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목적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대학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혁신성장동력을 제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 하는 것이다. 기존의 산학협력 사업은 대학이 인프라를 활용해 단기간에 산학협 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캠퍼스 혁신파크는 기업입 주시설 등을 새로 건립해 입주 여건을 개선하여 창업부터 기업경영까지 여러 정 부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지원한다.

####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현황 및 향후계획

강원대는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Open Campus' 발전전략에 기반해 강원대 동문 인근에 '캠퍼스 산학단지' 구축을 계획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캠퍼스 혁신파크에 앞서 조성된 컨테이너 창업단지인 'KNU 스타트업 큐브(K-큐 브)'는 약 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창업동아리실, 코워킹스페이스, 메이커스 페이스 등을 갖추고 있다. K-큐브는 개소 1년만에 학생창업 6건과 강원도 최초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강원대는 K-큐브 를 지역주민과 청소년, 기업들에 적극 개방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 춤형 산학협력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강원도, 육군2군단과 공동 으로 추진한 '강원열린군대' 사업, 춘천시가 주도하는 대학도시·문화도시 사업 등 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지난 1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66,500㎡ 규모의 기존 자연녹지지역(용적률 100%)을 모두 준공업지역(용적률 400%)으로 변경해 최대 4배의 고밀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1단계 사업은 약 50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1년 하반기에 「산학연혁신허브」를 착공해 지상 8층, 연면적 약 2만2,300㎡ 규모로, 2023년 5월 준공 및 기업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기업 간 교류가 수시로 이뤄지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150여개의 기업과 지원기관을 유치하고, 일자리 90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다

강원대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통해 강원도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바이오, 정밀의료, 디지털치료기기 분야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를 추가로 조성해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와 핵심기술의 기업 이전,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계획이다.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도 추진한다.

####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기대효과

캠퍼스 혁신파크의 성공은 혁신기업과 우수 인력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이들이 흔쾌히 찾아와서 일하고(work), 살고(live), 즐길 수 (play)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반경 3km 이내에 도서관과 스포츠센터, 학생회관, 평생교육원, 박물관 등이 위치해 있어 편리하고 가까운

복지·문화시설을 제공하며, 잘 짜여진 대중교통망과

저렴한 주거·사무공간, 매력적인 거리와 휴양·녹지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 Current status and future plans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Campus Innovation Park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build a "Campus Industry-Academy Complex" near the East Gate based on the "Open Campus" development strategy that aspires to share the excellen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possessed by the university with the local community. This plan has been carried out step by step starting from 2016 to 2019.

'KNU Startup Cube (K-Cube)', a container start-up complex created with a budget of around 5.3 billion won prior to the campus innovation park, consists of a start-up club room, co-working space, and maker space

K-Cube achieved excellent results with six student startups created within the cube and by being designated as the first "new technology startup cluster" in Gangwon-do within one year of open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as focused on actively opening K-Cube to local residents, youth, and businesses. Moreover, it has aimed to utilize the space as a place for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that reflects regional characteristics.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is cooperation include the "Gangwon Open Army" program jointly promoted by Gangwon-do and the 2nd Army Corps, University City and Cultural City project led by Chuncheon City.

In particular,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campus innovation park was designated as a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 in January. Accordingly, all existing natural green areas (100% floor area ratio) of 66,500 m² were transformed to semi-industrial areas (400% floor area ratio). As a result, the university could utilize the area which is 4 times higher in density.

The first phase of Gangwon National University's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is expected to cost around 50.5 billion won. On the second half of 2021, the construction of the  $^\Gamma \text{Industry-Academic Innovation Hub}_J$  which will be 8 stories high with a total floor area of about  $22,300\,\text{m}^2$ , is expected to be initiated and is scheduled to finish construction and receive tenants companies on May of 2023. This hub is created not only as a work space, but it will be built to allow for frequent communications between companies. Th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ampus Innovation Park is expected to attract 150 companies and support institutions while creating 900 jobs.

Through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ims to utilize University's strength in connection with Gangwon-do's strategic industry to create a convergence and complex industrial complex in the fields of bio, precision medicine, and digital medical devices based on big data. In the fu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build 'Digital Therapy Device Development Support Center'to support industry-academia joint research, transfer core technologies, and discover overseas market. It also intends on being designated as special regulation-free zones for telemedicine and Innopolis Innotown.

#### Expected effects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ampus Innovation Park

The success of the Campus Innovation Park will depend on its ability to attract innovative companies along with talented workers. The key i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employees are willing to work, live, and play.

Th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ampus Innovation Park is located within a 3km radius of the Central Library, BaeckRyung Sports Center, Student hall, Institute of Life-long Education, and University Museum. Additionally, it consists of a well-organized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s, inexpensive residential and office spaces, attractive streets, and recreation and green spaces. The close vicinity of these convenient facilities guarantees the welfare of employees

Tenant companies can receive variou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such as tax reduction and application of special regulations. Young entrepreneurs can easily find business partners and receive information through open communication.

K-NU10 포커스 K-NU10 Focus /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16 Korea NU10 MAGAZINE

입주기업들은 세제 감면 혜택과 규제특례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기업인들은 사업 파트너를 찾기 쉽고, 정보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다.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교수들로부터 기술 이전과 자문도 수월하게 구 할 수 있으며,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유 동인구 증가와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맺음말

국가와 지역발전에서 거점국립대학의 역할이 중요한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대학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혁신주체 중 가장 우수하고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강원대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 산업발전에 필요한 요람이자 플랫폼, 전진기지로 만들어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쏟을 것이다.

강원대는 대학의 캠퍼스(Campus)를 '지역혁신의 캔버스(Canvas)'로 삼아, 대학과 정부, 지역사회가 머리를 모아 미래사회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그려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가 대학·지자체·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지역혁신의 허브이자, '일터-삶터-배움터-쉼터'가 연계된 미래 청년친화형 복합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한다.

Technology transfer and advice can easily be obtained from professors who have the necessary skills. The park can also attract talented employees. Moreover, the park will surely contribute in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through the increase of floating population and promotion of consumption.

#### Concluding remarks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role of a national universities is important in promoting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Universities have the best and riches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mong the various innovation actors that make up the local communit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ill make every effort to become a platform necessary for educational, cultur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through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ill use the university's campus as a 'canvas for regional innovation,' and draw a new model of innovation that can lead the development of the future society together with the university, government, and the local community.

Through this project, I am confident that the Innovation Park on the campus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ill become a hub of regional innovation where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s, and companies achieve mutual growth. On top of that, it will surely establish itself as a youth-friendly industrial complex in the future, where 'work-life-study-learning-shelter' may coexists.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문화편의지구 개요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ampus Innovation Park Cultural District Overview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 국가거점국립대의 역할과 발전 방향

**Roles and Directions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 김수갑 충북대학교 총장

Su Kab Kim Presiden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A New Higher Educational Ecosystem to Change Crises Into Chances

#### 충북대학교 6대 핵심역량(CHANGE) CBNU set 6 essential competencies



국가거점국립대(KNU10)는 거점국립대총장협의 회를 구성한 10개의 국립대학교를 지칭한다. 그모 체는 1996년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 대 등 5개 대학이 참여한 국립대협의회로, 이어 강 원대, 경상대, 서울대, 제주대, 충북대가 추가 가입 하면서 현재와 같은 구성이 되었다.

협의체의 결성은, 지역 차원에서 인재 확보, 산학 협력 및 국가 균형발전을 지탱하는 댐 또는 플랫폼 으로서의 역할과 국가 차원에서 고등 공교육을 실 행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 는 회원 국립대학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회원 대학들은 각기 각고 의 노력으로 훌륭한 성취들을 이루었고, 협의회를 통해 대학 및 교육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대응하면서 국립대 발전과 교육개혁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20년 2차 협의회는 "거점 국립대"에서 "국가거점국립대"로 그 명칭을 통일 하기로 결정했는데, 앞으로 국가거점국립대들은 명실상부하게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인재 양성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대학으로서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것이다. KNU10 means 10 Korea national universities which organize The Council of Presidents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It started as The Council of National University with 5 members: Kyungpook NU, Busan NU, Jeonnam NU, Jeonbuk NU, and Chungnam NU. Afterwards, another 5 national universities, Kangwon NU, Gyeongsang NU, Seoul NU, Jeju Nu, and Chungbuk NU. joined it to become an existing council now.

17

The council was established by the needs of the members: at a regional level, to acquire talented individuals, cooperate with industry, and support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 as a platform or a dam, and at a national level, to improve the images as a higher education facility. Since then, for the last 20 years, every member has had a lot of achievements with great effort, addressed major issues of universities and the whole educational system together, and also tried to improve the status of a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18 Korea NU10 MAGAZINE







"앞으로 국가거점국립대들이 공유와 협력, 연대를 통해 교육혁신의 계기를 만들고 양질의 교육을 보편적으로 누리는 학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앞으로도 극복 해야 할 난제들이 계속 던져질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대변되는 지구 적 차원의 환경 변회와 함께 학령인구의 감소와 같 은 국내적 요인이 더해지는 가운데, 우리 대학들은 한편으로는 신입생 유치, 재정 확보 등의 곤란을 계속 겪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교육, 연구의 내용과 형식에서 큰 전환을 시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국가거점국립대들은 당면 과제들을 하 나하나 해결해가는 데 있어서 더욱 활발한 교류, 소 통을 통해 지혜와 역량을 나눌 필요가 있다.

국가거점국립대들이 존립 기반으로서 지역을 거점으로 한 학문 생태계를 형성해가는 것은 향후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대학은 교육, 연구와 사회 각영역을 기능별로 연결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학들은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활성화를 선도함으로써 그 존립 기반을 안정화할필요가 있다. 특히 지나친 수도권 집중의 현실적구조를 고려할 때, 국가거점국립대들에게 지역거점의 확립을 위한 노력은 절실하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지역의 소멸), 나아가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 지자체,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부가 적극 추진하는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좋은 본보기이다.

이와 관련해서 충북 플랫폼은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 충북 완성'을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 3대 핵 심분야를 선정(① 제약바이오 ② 정밀의료 의료기 기 ③ 화장품·천연물)하고 충북도를 비롯한 자치 단체, 도내 15개 대학, 약 50개의 혁신주체들이 참여 하여 인재양성, 맞춤형 취업, 정주요건 실현을 목표 로 추진하고 있다. 오송바이오텍을 설립하여 참여 대학간 공동커리큘럼 개발 공유운영도 하게 된다. 교육 혁신은 대학에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급변하 는 환경 속에서 주도적으로 지식을 수용하고 생산 해내는 새로운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대학 교육에서 역량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2016)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 적 역량, 협력 및 소통 능력 등의 역량이 필요하다 고 지적한 바 있다. 충북대도 창의성(Creativity), 휴 머니즘(Humanism), 능동성(Activeness), 공동체 (Neighbor Minded), 글로벌(Global), 전문성(Expertise) 등 6대 핵심역량(CHANGE)로 지정하고, 새로 운 인재상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해

한편 교육 형식의 면에서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19의 충격은 역설적이게도 획기적인 전기를 제공 해주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에도 이미 경험한 비대 면 교육과 온라인 컨텐츠들의 장점들은 기존 대면 교육의 장점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대학 교육의 모델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때 국가거점국립대는 공유대학, 공동교과 운영, 학생·교수 교류 등의 상호 협력을 확대해가면서, 그것을 뒷받침할 대학체제, 제도의 변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개혁은 충북대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도 중 요한 전기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충북대는 2021 년 개교 70주년을 맞아 "지역의 뿌리로 70년, 세계로 꽃피울 100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올해를 전기로 새롭게 도약하려는 꿈을 꾸고 있다. 이러한 충북대의 방향 설정은 지역거점을 기반으로 위상을 확보해온 대부분의 국가거점국립대의 경우에도 대체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대학들이 서열화와 경쟁 속에서 양적 성장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도 지금까지 지역에 뿌리를 내려온 국가거점국립대들은 앞으로 한층나아간 성장을 위해서 교육, 연구 자체를 충실화하고 개선해가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성장 단계로 진입하는 대학들이 감 당해야 할 과제들은 더 무거운 것들이다. 아이가 자 라는 동안 자주 키를 재지만 성인이 되면 키를 재는 것보다 더 세심하고 정밀하게 설계된 검진을 받게 된다.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 는 가치관, 실행력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다. 다가 오는 미래는 늘 상상하는 것보다 불확실하다. 다변 하는 환경에 민활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 육 기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지배구조를 건전 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기를 극복하 는 아이디어는 자주 주류나 중심이 아닌 곳에서 나 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개혁의 큰 틀 속에서도 가능한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교육, 연구 실험이 시 도될 수 있도록 공존을 허용하는 개방적 태도를 갖 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시기에 공공성을 담보하 는 국립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national university and lead to an educational reform. In 2020, the 2nd council decided to change its name, "major national university 10" into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Therefore, KNU10 will try much harder than before to play a major role in cultivating talented individuals at a national as well as a regional level.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round universities, however, is predicting challenges of the future. With global climate changes indicated by the beginn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domestic problems such as a nationwide decrease in students, universities have to face a very difficult situation. They should cope with problems like attracting new students, securing finances, etc. and also try to make significant transition to more advanced and developed education and research system. Therefore, KNU10 needs to share their wisdom and abilities to solve urgent problems via more active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It is important for KNU10 to establish region-based academic ecosystem for the future. Universities are a kind of platform because they can connect every part of society with education and research. Thus, KNU10 needs to stabilize its regional foundations by leading coexistence with the region and its revitalization through the platform. It is much more important for them to do so, considering the present condition, that is, excessive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crisis of regional universities might result to regional crisis (even regional extinction) and even national crisis, so that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s, and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collaborate one another to cope with it. 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based on the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university, which is 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a good example.

For this, Chungbuk platform set a goal, that is, the establishment of global biohealth hub Chungbuk, and selected 3 core parts of biohealth industry (1) Pharmaceutical bio 2 precision medicine medical devices 3 cosmetics natural substances) and all the innovative leaders, such as Chungbuk

province, local governmental institutes, 15 universities of Chungbuk, and about 50 regional innovators joined and have tried to their best to cultivate talented individuals, provide customized job referral opportunities, fulfill the settlement requirements, etc. In addition, after establishing Osong Bio-tech, related universities will develop joint curriculum and operate it together.

An educational reform is a challenge that could give a university more fundamental opportunities of chang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eeds a new type of talented individual who can play a leading role in accepting and creat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in a rough situation. Thus, the importance of competency education at a university is on the rise. The World Economic Forum (2016) emphasized tha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competencies such as problem-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ability, creativity, cooperative and communicative ability, etc. should be needed. Therefore, CBNU set 6 essential competencies (CHANGE), that is, 'Creativity, Humanism, Activeness, Neighbor-Minded, Global, Expertise, and has tried innovative educational challenges to meet the needs of By the way, as for educational format, shocking COVID-19 has ironically offered a milestone since last year, so after pandemic, the advantages of non-face-to-face education and online contents will be mingled with those of the existing face-to-face education and make a new model of university education. Thus, KNU10 will enlarge its cooperation, such as sharing university, joint curriculum, exchange of students and professors, etc. And to support this, it is expected that KNU10 will change its system and scheme. An educational reform is meaningful to

the directions of CBNU. This year, CBNU got its 70th anniversary and dreams about new stunning development with a slogan, '70 years as Regional Roots, Another Century Towards The World. This aim could be applied to other national universities because they also have been developed with their region. Even if almost all universities have focused on their quantitative growth in competitive condi-



tions like lining-up of university, regionally rooted national universities have to consider their qualitative growth with faithful and advanced education and research for further development.

Their tasks necessary for them to enter a new stage of growth, however, are much heavier than before. For example, children often measure their height as they grow up, but adults need more specific and precise medical checkup, Likewise, qualitative growth needs appropriate values, executive ability, and patience. The upcoming future is always uncertain as imagined. To respond swiftly to changeable environment, it is needed to organize educational functions of a university effectively and maintain a sound governance structure. Usually, the ideas that make it possible to cope with crisis are not generated from the main stream or the center. So, it is also needed to have a liberal attitude which allows coexistence to make various education, research, and experiment in many fields possible within the big picture of educational reform. As a result, the role of a national university will be much more important because it quarantees its publicity.

"From now on, KNU10 should make chances of educational reform by sharing, cooperation, and solidarity rather. And also KNU10 should make every effort to establish educational ecosystem which makes it possible to enjoy quality education in a general way."

# 회원대학 주요 이슈

Important Issues of Member Universities

















서울대학교 SNU

전남대학교 CNU

전북대학교 JBNU

제주대학교 JNU

충남대학교 CNU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Jeju National University



충북대학교 CBNU

강원대학교 KNU

경북대학교 KNU

부산대학교 PNU

경상국립대학교 GNU

Pusan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22 23 Korea NU10 MAGA7INF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1년 1학기. 서울대학교는 사회적 필요성과 연구 영역의 심화를 위해 세 학과를 신설했다. 임상간호학과와 헬스케어융합학과, 그리고 의료기기산업학과가 바로 그 주인공.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신설학과를 소개한다.

In the first semester of 2021, **Seoul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three departments to address the societal demands and expand into new areas of research: the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the Department of Health Care Convergence, and the Department of Medical **Device Development.** Here we proudly introduce three new departments that just began their first steps.

## 간호학 발전의 초석 임상간호학과

Laying the cornerstone for nursing studies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Science** 

임상간호학과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주관의 석 사과정 신설학과로, 중환자 전문간호과정과 종양 전문과정으로 나뉘어 각 분야의 전문간호사를 양 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진강 교수는 "전문간 호사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간호를 요구하는 환자 와 그 가족에게 직접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는 동 시에 간호사들이 근거중심의료를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일조한다"고 전문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환자 전문간호사와 종양 전문간호사는 간호사들의 역량을 증대시키 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며 세밀 한 교육을 바탕으로 환자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The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Science is a new department for master's programs established at the College of Nurs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epartment has two majors - the Advanced Critical Care Nursing major and the Advanced Oncological Nursing major - with the aim to foster advanced practice nurses in each field. Professor Chin-Kang Koh said, "Advanced practice nurses provide direct and appropriate nursing care to patients and families who require complex and difficult care. At the same time, advanced practice nursing helps nurses provide evidence-based medical care effectively," emphasizing the essential role of advanced practice nurses. Professor Koh also added that "the department will be providing professional education to advance the capabilities of the nurses specializing in critical care and oncology" and expected that the intensive training from the department would contribute to improving patient safety and their quality of life,



임상간호학과장 고진강 교수 Chin-Kang Koh, Chair of the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Science

####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

A Community of Knowledge, Leading the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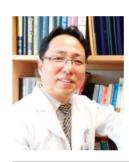
HOMEPAGE www.snu.ac.kr

 www.facebook.com/ SeoulNationalUniversity • instagram/snu.official



## 의료 분야의 4차산업혁명 선도 헬스케어융합학과

Lea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Medicine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헬스케어융합학과장 이학종 교수 Hak Jong Lee, Chair of the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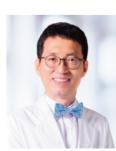
헬스케어융합학과는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소속의 박사과정으로, 의료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공감 하에 신설됐다. 분당서울대병원과의 계약체결을 통해 학술연구계와 의료현장의 협력을 꾀했다. 2 년간의 박사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이 분당서울대 병원에서 근무하며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이 다. 이학종 교수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융합과학기 술대학원의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의 활약으로 헬스케어 전반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물인터넷(loT), 유전자데이터 기술, 임상 시험 등 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각종 기 술을 다룰 것"이라며 헬스케어융합학과의 폭넓은 연구 영역을 설명했다.

The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is a doctoral program at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established under the consensus that the university should respond

proactively towar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medical field. A memorandum with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a Hospital formed ties between the academic research community and the medical field. After completing the two-years doctorate program, graduates of this department will be working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to conduct relevant research. Professor Hak Jong Lee commented that "The department will be conducting comprehensive and empirical research on health care, thanks to the continuous effort made by professors from diverse fields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and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or Lee further explained the department's broad research area, which would "encompass various technologies in the healthcare industry, including IoT, genetic data and technology, and clinical trials."

##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융합학문 의료기기산업학과

Convergent Studies in the age of Digital Healthcare Department of **Medical Device Industry** 



의료기기산업학과장 김희찬 교수 Hee Chan Kim, Chair of the Department of Medical Device Industry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속의 석사, 석박사통합 일 반대학원 과정으로 신설된 의료기기산업학과는 의료기기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의료기기 관련 통합 적 소양을 갖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김희찬 교수는 "의료기기 산업은 지속적인 고성 장을 이루어 오고 있는 몇 안 되는 산업 분야 중 하 나로 의료기기 산업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은 우리 대학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라며 신설학과에 대한 자부심을 보였다. 국내외 의료기기 산업의 주요 기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어 학생들이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계획 또한 밝혔다.

Established as a general master's and integrated master's and doctorate program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e Department of Medical Device Industry aims to cultivate students

with practical skills equipped with comprehensive knowledge on medical devices for the medical device industry. Professor Hee Chan Kim proudly introduced the new department and said, "The medical device industry is one of the few high-growth industry areas that has experienced continuous growth. Fostering experts in the medical device industry is a crucial mission that our university must accomplish." Professor Kim also presented a plan to sign MoAs with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anies in the medical device industry to provide an educational environment where students can hone their practical skills.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24 Korea NU10 MAGAZINE 25



### 긍지와 희망,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Pride & Hope Cherish the Truth, Enlighten the World HOMEPAGE www.jnu.ac.kr SNS www.facebook.com/ ChonnamUniv



## 전남대 '용봉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CNU Yongbonggwan Designated as National Cultural Property

전남대학교 옛 본관이었던 '용봉관'이 근대문화유 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등록됐다.

'용봉관'은 1957년 12월부터 1996년 5월까지 30년 가까이 대학본부로 사용된 건물로 전남대 70년 역사를 나타내는 상징성과 5·18민주화운동 항쟁지 중하나라는 역사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특히, '용봉관'은 건물 중앙부를 수직으로 높게 처리한 탑상형 구조물과 이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한부분이 입면·평면 수법으로 처리됨으로써 1950~1969년대 공공건물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어 근대 건축사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현재 대학역사관으로 1층은 영상실, 민주전시관 이 운영되고 있으며, 2층에는 상설전시관, 기획전 시실로 조성돼 체험 및 교육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3층에 5·18연구소를 운영하 며 민주화운동 역사와 관련된 연구를 활발하게 진 행하고 있다. 한편, 전남대 '용봉관'은 지난 2004 년 9월 인문대학(1호관) 건물과 2018년 8월 의과 대학 건물에 이어 세 번째로 국가지정문화재로 등 록됐다. Yongbonggwan, the former main building of CNU, was registered as a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recognition of its value as a modern cultural heritage site.

Yongbonggwan was used as the university headquarters of CNU for nearly 30 years from December 1957 to May 1996. It has represented the 70-year history of CNU and it also was one of the main venues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0. In addition, it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cultural icon of early modern architecture as it is a towershaped structure with a high, vertical center while each side forms a horizontal symmetry, which embodies the unique structure of public buildings of the period ranging from 1950 to 1969.

Currently, as the CNU History Hall, Yongbonggwan offers a video room and an exhibition hall for democratic movements on the first floor, and a permanent exhibition hall along with a special exhibition hall on the second floor for educational programs. In addition, the 5.18 Research Center is located on the third floor, where scholars are actively conducting research related to the history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Now, Yongbonggwan is the third nationally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on CNU campus after Building 1 of the College of Humanities and the Colleae of Medicine Building, which were designated in September 2004 and August 2018, respectively.

##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선정

CNU Selected for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전남대학교가 4월 1일 학내에 산학연 협업 및 기업입주 공간, 주거 및 문화·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추진 한 이번 공모에는 전국 23개 대학이 나설 정도로 큰 관심과 경쟁을 벌였으며, 최종적으로 전남대와 경북대가 선정됐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미래 신산업 입지가 혁신환 경과 인적 자원이 풍부한 도심을 선호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대학의 입지적 장점과 혁신역량을 적극 활용해 산학협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학을 새 로운 혁신성장생태계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시작된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전남대는 공모 선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학내 보조운동장 일대를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뒤, 오는 2024년까지 산학협력 공간은 물론 주거와 문화· 복지시설을 갖춘 2만2,000여㎡ 규모의 캠퍼스 혁신파크를 건립할 예정이다.

전남대는 이를 도시재생사업과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그리고 창업투자펀드조성사업과 연계해 상 승효과를 최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이번 1단 계 '산학연 혁신허브'에 이어 후속사업인 2단계 '어 메니티 혁신허브', 3단계 '글로벌 혁신허브' 등 모 두 9년에 걸친 단계별 사업을 통해 '콤팩트 시티형 첨단산업단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 선정은 광주광역시와 북구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을 보탰으며,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의 2단계 개발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한 바 있어 앞으로 순조로운 사업진행이 기대된다. 정성택 총장은 "캠퍼스 혁신파크는 혁신창업 기 반을 다지고,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과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진기지로서 우리 지역 의 산학협력과 창업지원 생태계를 대폭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NU was selected for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that intricately creates combined spaces for the cooperation of industry, university, and researchers in concert with residential areas and cultural facilities for welfare on campus.

According to CNU, it has been selected as one of the two successful candidates, along wi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for the project, the results of which were announced on April 1st. Jointly promo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the project was subjected to heated competition and interest, receiving proposals from 23 universities nationwide.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selects universities with innovative capabilities and strategic locations to accommodate future industries as well as excellent programs to foster talent for those industries. The project is based on the cooperation of three major governmental ministries to advance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and establish a new ecosystem of innovation on university campuses.

Selected by the project, CNU is going to establish an industrial complex in the annex to the CNU Sports Ground by the first half of next year. The facility will be completed with a residential area, cultural and welfare

facilities as well as an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space by 2024.

CNU will maximize the synergy effect of this cooperative effort by linking this project with projects it has conducted, such as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Project, and the Investment Fund Raising for Start-ups Project. In addition, following the first step of the project, know as the Industry-Academic Innovation Hub, the follow-up projects such as the second step Amenity Innovation Hub and the third step, Global Innovation Hub will gradually be expanded into the Compact City-Type High-Tech Industrial Complex through 9 years of step-by-step projects.

Proactive support from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the Buk-gu District Office
contributed to the selection of this project
as well as the business agreement which
was signed between CNU and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Corporations for the promotion of the second-stage development
plan, which is expected to proceed
smoothly in the future.

CNU President Jung Sung-taek said,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significantly expand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and startup support ecosystem in our region as a forward base to lay the foundation for innovative start-ups, foster start-ups us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d create high-quality jobs."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26 Korea NU10 MAGAZINE



##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 The Best Glocal University HOMEPAGE www.jbnu.ac.kr SNS www.facebook.com/jbnu1947



## 연구생애 全주기 우수연구자 지원 '연구중심대학' 기틀 다진다

JBNU provides support for excellent research professors throughout their career Laying the foundation for a "research-oriented university"

전북대학교가 교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애 전주기에 걸친 우수 연구자 지원책을 통해 '스타 교수' 육성에 나서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전북 대는 연구생애 전주기 우수 연구자 지원 체계 확 립을 위해 올해부터 우수 연구 교수인 '펠로우'를 매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임용 5년 이내 젊은 연구자를 선발하는 'JBNU Young Fellow'와 부교수 및 승진 5년 이내의 교수 를 선발하는 'JBNU Fellow', 교수 승진 5년 이후부 터 만 60세까지의 교수를 선발하는 'JBNU Star Fellow', 그리고 만 61세 이상과 정년 이후까지 지 원하는 'JBNU Regents Professor' 등을 지정해 연 구 생애 전주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첫 JBNU Star Fellow에는 김민호 교수(무역학과)를 비롯해 박상준 교수(경영학과), 윤영상 교수(화학공학부), 이존화 교수(수의학과), 이중희 교수(대학원 나노융합공학과), 정길도 교수(전자공학부) 등이 선정됐다.



또한 JBNU Fellow에는 김석원 교수(체육교육과), 김종훈 교수(수의학과), 나석인 교수(유연인쇄전 자전문대학원), 박찬희 교수(기계설계공학부), 양 은석 교수(철학과), 오효정 교수(문헌정보학과), 유 동진 교수(생명과학부), 장점석 교수(생명공학부), 정광운 교수(고분자섬유나노공학부), 정현이 교수 (식품영양학과)가 각각 선정됐다.

JBNU Young Fellow에는 김종웅 교수(신소재공학부), 박삼복 교수(회계학과), 박지연 교수(국제인문사회학부), 서동호 교수(식품공학과), 선종학 교수(경영학과), 이태희 교수(전자공학부), 최경숙 교수(무역학과)가 선정됐다.

또한 JBNU Regents Professor에는 김철생 교수 (기계설계공학부)와 김형석 교수(전자정보공학부), 왕은철 교수(영어영문학과)를 임명해 정년 후에도 전주기에 걸쳐 연구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JBNU Young Fellow에 선정된 교수들에게는 최대 5,000만 원의 연구기자재 지원금을 제공해 초반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s attracting attention for its efforts to cultivate "star professors." Thanks to its support programs, outstanding researchers are supported throughout their entire career, improving their competitiveness and enhancing the reputation of the University. This year, JBNU has identified over a dozen Fellows; outstanding professors who will receive research support from the University. JBNU Young Fellows, for example, will be provided with a grant of up to 50 million won for research equipment.

The University will appoint 'JBNU Young Fellows', early-career researchers who have worked at the University for five years or less; 'JBNU Fellows', associate professors and professors within 5 years of their first promotion; 'JBNU Star Fellows', professors

who have been working for 5 and who are less than 60 years old; and 'JBNU Regents Professors', professors older than 61 or retired, but who will nevertheless continue to receive research support from the University.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this year's JBNU Star Fellows: Prof. Min-Ho Kim (International Trade), Prof. Sang-June Park (Business Administration), Prof. Yeoung-Sang Yun (Chemical Engineering), Prof. John-Hwa Lee (Veterinary Medicine), Prof. Joong-Hee Lee (Graduate School of Nano Convergence Engineering), and Prof. Kil-To Chong (Electronic Engineering).

Those selected to be JBNU Fellows are: Prof. Suk-Won Kim (Physical Education), Prof. Jong-Hoon Kim (Veterinary Medicine), Prof. Seok-In Na (Graduate School of Flexible and Printable Electronics), Prof. Chan-Hee Park (Mechanical Design Engineering), Prof. Eun-Suk Yang (Philosophy), Prof. Hyo-Jung Oh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f. Dong-Jin Yoo (Life Sciences), Prof. Jum-Suk Jang (Biotechnology), Prof. Kwang-Un Jeong (Polymer Nano Science and Technology), and Prof. Hyun-Ah Jung (Food Science and Nutrition).

JBNU's Young Fellows are: Prof. Jong-Woong Kim (Materials Engineering), Prof. Sam-Bock Park (Accounting), Prof. Ji-Youn Park (International Studies), Prof. Dong-ho Seo (Food Science and Technology), Prof. Jong-Hak Sun (Business Administration), Prof. Tae-Hee Lee (Electronic Engineering), and Prof. Kyoung-Suk Choi (International Trade).

Finally, Prof. Cheol-Sang Kim (Mechanical Design Engineering), Prof. Hyong-Suk Kim (Electronic Engineering), and Prof. Eun-Chull Wang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will be the new Regents Professors.

## 전북대 국제화역량 '최고 등급' 국가거점국립대 가운데 '유일'

Jeonbuk National University Receives the "Highest Grade" in Internationalization Capability 전북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제(IEQAS)' 평가에서 국가거점국립대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우수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는 교육 국제화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국내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는 제도다. 평가지표로는 필수지표인 불법체류율과 대학의 국제화 사업 계획 및 인프라, 등록금부담률, 언어능력, 만족도 및 관리등이 있다.

전북대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입국 현황을 비롯한 자가 격리 및 방역지침 준수 등 대학의 위기 대처 능력 을 인정받았다. 인증 대학 모니터링에서 모든 평 가지표를 통과해 인증을 유지하고 우수인증대학 에도 선정됐다.

전북대의 이번 우수 인증대학 선정은 한국유학종 합시스템·교육부 공식 사이트 등에 공시되고, 법 무부 소속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외국 정부 등에 '우수인증대학'으로 등록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VISA) 발급 절차 간소화, 정부 초청 장학생(GKS) 수학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 부여 등 교육정책과 사업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Jeonbuk National University was the only Korea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to receive the "excellent accredited university" designation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IEQAS)" survey performed by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The IEQAS evaluation is designed to improve the ability of Korean universities to attract top international students and otherwise enhance local students' internationalization. Universities are evaluated on the basis of, among other things, (1) the perc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that remain in the country illegally, (2) the university's internationalization business plan and associated infrastructure, (3) the burdensomeness of the tuition, (4) language ability, (5) student satisfaction, and (6) quality of managemen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tood out for its risk management practices, including quarantine facilities and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which proved to be of particular importance in a year of COVID-19. JBNU received high scores across all evaluated metrics, maintained its accreditation, and was acknowledged as an 'excellent accredited university'.

Jeonbuk National University's accolade will be announced on the official websites of Korea Study Abroad Comprehensive System,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a result, JBNU will now qualify for various benefits, including a simplified process for issuing student visas, additional points when student's select a university for Korea Government Scholarship, etc.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28 Korea NU10 MAGAZINE



#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기본에 충실한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To the Basic, For the Future HOMEPAGE www.jejunu.ac.kr SNS www.facebook.com/ 제주대학교-1536145756655629



## 학령인구 감소 속 신입생 충원율 100% 기록 대입전형 지속적 개선 통해 대학 경쟁력 높여

The recruitment rate of new students hit 100% despite the ongoing decrease in enrollment stemming from increased university competitiveness resulting from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college entrance screening system 제주대학교가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충 원율 100%를 기록했다. 등록 마감결과 정원 내모 집인원 2088명 중 2088명이 등록해 미등록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제주대는 학생 및 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입전형을 개선해오고 있다.

특히 도내 학생들이 제주 지역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전형을 지속적 으로 운영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전형 등을 골고루 운영해 학생 선택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여기에다 총 16개의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내외 고교를 대상으로 제주대대입 전형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온점이 이같이 높은 충원율을 보인 요인으로 제주대는 분석했다.

다양한 전형 도입 노력의 결과로 제주대는 2019 년부터 2년 연속 교육부로부터 '고교교육기여대 학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Jeju National University recorded a 100% recruitment success rate for the 2021 Freshmen Recruitment Period.

Enrolling the full allotment of 2,088 freshmen for the 2,088 quota, the university recorded no unregistered spots.

Jeju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continuously improving the college entrance screening system to minimize the burden on students and parents, and to enhance the fairness of the college entrance procedure.

In particular, it continued to operate a special entrance program for local students so that students in the province could develop into exceptional talent to lead the Jeiu area.

Furthermore, the school made an effort to give students more options to choose from by running a diverse entrance program that includes comprehensive student record screening, student record academic screening and a nationwid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Korean KSAT).

On top of this, Jeju National University attributed its high recruitment rate to the fact that it has been steadily making efforts to deliver its own college entrance screening process to students attending high schools in and out of the province through the operation of 16 high school-university programs.

As a result of efforts to introduce various types of screening programs, Jeju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selected for the "High School Education Contribution University Support Project"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two consecutive years, starting in 2019.

## 데이터사이언스 등 첨단학과 신설

Establishment of Data Science and Other New High Tech Departments

제주대학교가 2022학년도부터 데이터사이언스 학과, 소프트웨어학부 인공지능전공, 바이오메디 컬정보학과 등 3개 첨단학과를 신설한다.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및 인공지능전공은 4차 산

업혁명시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는 기술에 중점을 둔다. 바이오메디컬정보학과는 제주지역 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메디컬 및 헬스분야에 중점을 둔 인재를 양성한다.

제주대는 신설되는 첨단학과가 시대흐름을 적극 수용하면서 우리 대학 미래의 혁신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tarting in 2022, Jeju National University will establish three high-tech departments, including the Departments of Data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School of Software, and the Department of Biomedical Information.

The departments of data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focus on technologies that collect, analyze and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epartment of Biomedical Information trains students who focus on bio-medical and health fields using biological resources within Jeju island.

Jeju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allow the newly established high-tech departments to actively engage the trend of the times and become an innovation icon for the future of the university.

## 건축공학전공, 산업계 선정 '최우수 학과' 등극

Architectural Engineering Major Selected as 'Best Department' by the Industry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이 건축 분야 산업계가 뽑은 최우수 학과(전공)로 선정됐다. 이 는 2016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최우수로 선 정된 후 연속으로 뽑히게 된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0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 제주대 건축공학전공은 건축분이에서 평가를 받은 41개 대학 중 '최우수'로 뽑힌 12개 대학에 포함됐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대학이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대학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제대로 지원하는지를 살펴보는 조사다.

Jeju National University's Architectural Engineering major was selected as the best major by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department has been selected as the best major every year since being selected #1 in the 2016 industry-viewed university evaluations.

According to the 2020 university evalua-

tion by the Korea University Education Council, Jeju National University's Architectural Engineering major was included in the 12 colleges selected as the best among 41 colleges evaluated in the architecture field.

The university evaluation from an industrial perspective suggests the direction of university curriculum improvement, reflecting the needs of the industry as the survey examines how a university supports training human resources tailored to specific industries.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30 Korea NU10 MAGAZINE 31



#### CNU 100년, 위대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

The 100th Anniversary of CNU, a New Start for a Great Future!

HOMEPAGE www.cnu.ac.kr SNS www.facebook.com/CNUNOV



## 충남대, 세종캠퍼스 입주 확정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elected for Sejong Campus

충남대학교가 세종캠퍼스 진출을 확정지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월 3일, 세종시 공동캠퍼스(4-2생활권) 입주 대 학 선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충남대의 임대형 및 분양형 캠퍼스 입주가 확정됐다.

이번 공동캠퍼스 입주에는 총 13개 대학이 신청했으며 충남대를 비롯해 공주대, 서울대, 충북대, 한 밭대,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등 총 6개 대학의 입주가 확정됐다.

충남대의 세종캠퍼스 진출 확정은 지난 1년간, 입 주를 위한 캠퍼스 조성 계획 제출과 입주 최종 선 정에 이르기까지 충남대 구성원은 물론 지역 정치 권, 지역사회가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충남대는 6개 대학 중 유일하게 임대형, 분양형 모 두 캠퍼스를 조성하며, 입주정원 및 조성 규모 역 시 최대 규모다.

임대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캠퍼스를 조성해 충남대, 서울대, 충북대, 한밭대, KDI가 입주해 캠 퍼스를 공동 사용하며, 분양형은 충남대(4, 5구역), 공주대가 각각 독자 캠퍼스를 조성한다.

충남대는 임대형 캠퍼스에 의과대학·대학원 490

명이 입주하며, 분양형 캠퍼스는 인공지능(AI) 및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융합대학 및 융합대학원 800명이 입주하게 된다. 세종캠퍼스 입주 대학 중 임대형, 분양형 모두 입주 인원이 최다이다. 임대형캠퍼스의 경우 총 3만4,000㎡ 가운데 1만 4,990㎡로 가장 규모가 크며, 분양형캠퍼스 역시 총 6만1,086㎡ 중 3만5,984㎡(59%)로 가장 넓은

면적이 조성된다.

충남대 세종캠퍼스의 임대형캠퍼스는 연내 착공 돼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며, 분양형캠퍼스는 이르면 2024년 2월 공사를 시작하다.

이진숙 총장은 "충남대와 지역사회가 노력해 온 충남대의 세종캠퍼스 진출이 임대형, 분양형 캠퍼 스 모두 입주 확정으로 첫 단추를 꿰었다"며 "새로 운 시대의 첨단융합학문 발전을 선도하고 국기균 형발전에 기여하는 명품 충남대 세종캠퍼스를 만 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On February 3, the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nd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nnounced that they had selected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for Sejong City Joint Campus (4-2 living areas).

A total of thirteen universities applied for a space on the joint campus, six universities—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ongju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anbat University, and KDI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Policy—were selected.

The decision to choos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for Sejong Campus is highly significant in that it was the result of an all-out effort over the past year by local political circles and communities as well as members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from the submission of a campus construction plan to finally being chosen.

Among the six selected universiti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s the only university that plans to build rental and pre-sale university-owned campuses, and their occupancy capacities and sizes are the larges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anbat University, and KDI will occupy the rental campuses. At the same tim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zones 4 and 5) and Gongju University will construct their university-owned campuses. They have the most significant number of rental and university-owned residents among the universities selected for Sejong Campus.

The rental campus is the largest, covering  $14,990\,\mathrm{m}^2$  out of  $34,000\,\mathrm{m}^2$  ( $44\,\%$ ), and the university-owned one is also the largest:  $35,984\,\mathrm{m}^2$  out of  $61,086\,\mathrm{m}^2$  ( $59\,\%$ ).

Construction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s Sejong rental campus is expected to commence this year, with the school set to open in March 2024. Construction of the university-owned campus will begin in February 2024 at the earliest.

President Lee Jin-suk said, "We have taken the first step toward the establishment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s rental and university-owned campuses in Sejong, which we had been working hard to achieve with the local community. We will create a prestigiou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ejong Campus to develop advanced convergence studies in the new era and contribute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 취업률 2년 연속 거점국립대 1위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anks First for Graduate Employability for Two Consecutive Years 충남대학교가 2년 연속 거점국립대학교 취업률 1 위를 차지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월 12일, '2019년 고 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2019년 12월 31 일 기준)' 결과를 공시한 가운데 충남대는 61.1%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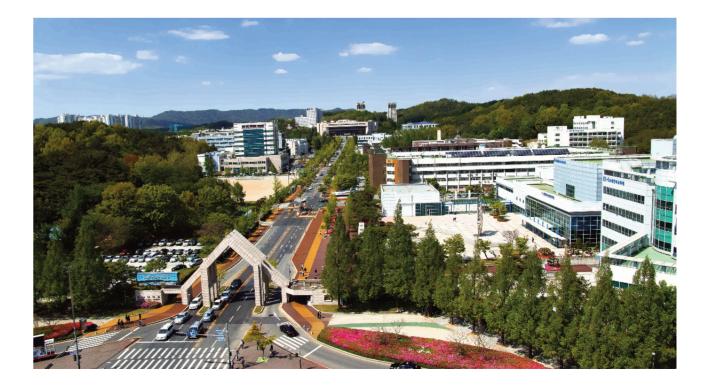
충남대는 지난해(2018년) 취업률 61.3%를 기록한 데 이어, 2019년에도 61.1%로 거점국립대 중 1위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충남대의 61.1%의 취업률은 전국 9개 국가 거점국 립대학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2018년, 2019 년 2년 연속 거점국립대 1위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Among key national universiti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anked first for graduate employability for two consecutive yea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2019 Employment Statistical Survey of Graduat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s of December 31, 2019)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61.1%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s were employed.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ecorded a 61.3% employment rate in 2018 and ranked first among key national universities with a 61.1% employment rate in 2019.

Chungnam National University's 61.1% employment rate was the highest among nine key national universities, meaning that it ranked first for two consecutive years in 2018 and 2019.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33 Korea NU10 MAGAZINE



#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A Dynamic Future that We Will Open Together

HOMEPAGE www.chungbuk.ac.kr SNS www.facebook.com/cbnu1



## 충북대 전 구성원이 함께 만든 기념영상으로 조선팝의 흐름 따랐다!

CBNU follows the trend of Joseon POP with its 70th anniversary film!

## 김수갑 총장, 권위를 내려놓고 학생들과 70주년 기념 영상 함께 호흡

충북대학교가 일명 '꼰대문화'를 일컫는 '라떼는 말이야'를 역사와 전통의 시간을 일구어 온 기성세대의 열정으로 표현해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메시지를 담은 기념 영상을 제작, 공개한지 1달 만에 1만6,000분를 달성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충북대는 지난 1951년 도민의 열망으로 개교한 후 7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한 포 부를 랩으로 표현했다. 특히, 김수갑 충북대 총장 이 대학의 홍보를 위해 'B급 감성' 연기에 몸을 던 졌다. 권위적이라고 생각했던 총장이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소위 '꼰대교수'로 출연 과거의 영 광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해나 가겠다는 포부를 담은 랩과 춤을 선보여 화제다. 충북대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재학생, 동문, 교직원 등 전 구성원이 함께 시나리오 구상부터 음원 및 안무 제작, 출연까지 함께 소통해 그 의미를 더했다. 충북대 동아리 '소울로직'이 조선팝의 특징을 살려 음원을 만들고 충북대 홍보대사 '해울'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무를 제작했다.

김수갑 총장은 "코로나19로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 교정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신입생들을 위로하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온 선배세대를 대표해 직접 출연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음원 제작, 시나리오 작성, 출연까지 학생홍보대사, 동문, 재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힘든 시기이지만 잠시나마 함께 웃으며 충북대의 70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대는 1951년 도민의 열망으로 개교 70 주년을 맞았으며 영상은 3분 정도로 대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비전을 랩으로 담아 누구나 즐길수 있도록 했다. 영상은 충북대 공식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HkeTKMT5y20)과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으며, 추후 안무따라하기 챌린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 President Kim, Sukab joined the film with students without a sense of authority

CBNU presented a new representative emblem and slogan to celebrate its 70th anniversary in 2021.

The 70th anniversary slogan is 'Another 70 years as Regional Roots, Another Century Towards The World'. This means that CBNU, built with all the support from local residents, has a new vision based on its 70 year old development to flourish in the world together with the region for another century.

To improve together with the country and the region, CBNU held a nationwide design contest last September to select an emblem and a slogan showing its 70th anniversary image as well as the aspiration and vision for another century. More than 200 works were submitted and the winners were selected through a strictly impartial judging process.

CBNU was built in 1951 during the Korean War by local residents. These residents wanted to cultivate leaders of the future, so each of them donated a brick and a bag of barley to build it. As a center for human resources, CBNU has developed with the region and finally marks the 70th anniversary in 2021. Taking this opportunity, CBNU has sincerely tried to reestablish an individualized plan for itself. For example, a plan titled 'CBNU Vision 2050' for another century, a specialized plan for each campus, and etc. In addition, CBNU tries to consider the way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as a national university, that is reinforcement of publicity in higher education.

CBNU has won 33 state-funded projects since 2019, which could get approximately 513 billion won from the government. Thus, it is possible to improv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rain its human resources. CBNU made the community of learning and knowledge, which consists of 758 professors who are leading experts in every field, PhDs, MDs, researchers, students, and etc. And 150,000 alumni have tried to do their best to develop CBNU. Based on these efforts, CBNU has carried out many cooperative programs such as opening the campus to co-exist and develop with the region.

To celebrate its 70th anniversary, CBNU made a Memorial Project Committee in 2020 and has been preparing many things like 7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font, film, web site, calendar, and time capsule, UI renewal project, 70th anniversary ceremony and reception, an old photo contest, and etc.



충북대 70주년 기념 영상의 한 장면 A scene from the 70th anniversary film of CBNU

## 충북대, 본격 세종 시대 개막··· 미래형 수의학 교육시스템 확립

CBNU Begins A New Sejong Era... Established Advanced Vet Education System

## 세종글로벌수의학캠퍼스 개교 및 세종동물병원 분원 개원

충북대학교가 본격적인 세종 시대를 맞이한다. 충 북대 세종글로벌수의학캠퍼스가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이하 행복청) 및 LH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 주관하는 세종 공동캠퍼스(임대형)를 오는 2024년 개교하는 한편, 2021년 6월에는 수의대 세종동물병원 분원을 개원한다.

충북대 수의과대학은 이번 진출을 통해 최첨단 수의학 교육을 확충함으로써 미래 수의사에게 요구되는 사람-동물-환경(One Health) 중심의 바이오메디컬 융·복합 연구 및 다양한 임상교육, 실습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세종글로벌수의학캠퍼스(수의과대학 세종캠퍼스)는 세종특별자치시 4-2 생활권에 건립될 예정이며 수의과대학 전임 및 겸임교원 15명을 비롯해 본과 3, 4학년 학생 100명, 해당 전공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50명이 이전한다.

총 임대 면적은 4,715㎡로, 그 중 기본 교육시설은 2,755㎡ 규모로 교수연구실, 학생 강의실, 실습실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시설은 1,350㎡로 교수실험실 및 공동기기 실험실을 설치하고, 610㎡ 에 해당하는 공간을 회의실, 행정실, 동아리방 및 휴게실 등으로 구성하는 등 학생 편의시설도 확충했다.

이에 앞서 오는 6월 세종시 대평동에 충북대 동물 병원을 개원해 동물진료사업, 대학생 임상교육, 의 료요원 훈련, 동물진료 기술 개발·연구지원을 추 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동물진료 연구·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상윤 수의과대학장은 "앞으로 동물병원과 세종 캠퍼스를와 연계해 수의대의 임상교육을 확대하고, 연구·진료 기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Sehong Global Vet Campus & Sejong Branch Animal Hospital Open

CBNU begins its new Sejong era. The Sejong global vet campus (lease) is scheduled to open in 2024 with the support from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NAACC) and LH Land & Housing Corporation. And a Sejong branch animal hospital is open in June, 2021.

With the campus and the branch hospital in Sejong, CBNU Veterinary medicine college acquires the most advanced education system, so that it could get a chance to provide bio-medical convergent research focused on human-animal-environment (One Health), a large amount of clinical education, practice opportunities, etc., needed for veterinarians of the future.

The Sejong campus will be built in 4-2 life zone of Sejong and 15 full-time and adjunct professors, 100 3rd and 4th year students, and 50 graduate students in master's and doctorate courses are expected to move there.

The total rentable space is 4,715m². Out of that, fundamental educational facilities occupies 2,755m², including professors' offices, lecture rooms, laboratories, etc. Research facilities (1,350m²) consist of professors' laboratories and joint equipment laboratories and convenient facilities (610m²) for students consist of conference rooms, administrative rooms, clubs, lounges, etc.

Before opening the campus, an animal hospital will open this coming June in Daepyong-dong in Sejong. The hospital is planning to do various things, like animal care, students' clinical education, medical staff training, animal care R&D support, etc., so that quality animal care research and services will be possible.

"From now on, we will connect the animal hospital with Sejong campus to expand our clinical education and strengthen our research and medical treatment functions," said Nam, Sangyun, dean of veterinary college.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34 Korea NU10 MAGAZINE 35



## 통일한국의 중심대학

The Hub University of the Unified Korea

HOMEPAGE www.kangwon.ac.kr SNS www.facebook.com/knu.abs



## 「2020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6년 연속 최우수대학 선정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the 6th consecutive year in <sup>^</sup>2020 Industry Perspective University Evaluation

강원대학교가 2월 24일(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 육협의회, 경제5단체가 주관하는 「2020년 산업 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대학에 선 정됐다.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과 대학 교육체제의 부합 정도를 평가해 최우수 대학을 선정하며, 이번 평가는 건축(시공), 기계(자동차) 등 2개 분야를 대상으로, 53개대학총 81개학과가 참여했다.

이번 평가에서 강원대는 공학대학(삼척) 건축공 학전공이 '건축(시공) 분야' 최우수학과로 선정됐 으며, 전국 국·공립대학교 가운데 최다 연속 최우 수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강원대 건축공학전공(삼척)은 4년 전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한 이후, 산업계 요구에 대응한 교육과 정 개편, 취·창업 프로그램 및 현장실습 참여 확대 등 산업현장과 연계한 전공 교육을 시행해 왔다.

강원대는 지난해(2019년) 평가에서 '식품분야'농 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산업공학부 식품생명공학 전공)가 최우수 대학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 2018년 바이오의약분야(의생명과학대학 의생명 융합학부), ▲2017년 전자반도체(IT대학 전자공학 과)·정유석유화학(공과대학 화학공학과)·화장품 (보건과학대학 생약자원개발학과) 등 3개 분야 ▲ 2016년 건축(시공) 분야(도시건축학부 건축공학 전공) ▲2015년 식품분야(식품생명공학과)에서 각각 최우수평가를 받은 바 있다.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as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six consecutive years in the F2020 Industry Perspective University Evaluation hos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and 5 economic organizations on February 24th (Wed).

The 'University Evaluation from Industry Perspective' selects the best universities by evaluating the degree of conformity between the job competencies required in the industrial field and the university education system. In this year's assessment architecture (construction) and machinery (automobile) were chosen as industrial fields to be evaluated in which a total of 81 departments from 53 universities participated.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Samcheok Campus) was selected as the best department in the "Architecture (construction) field," for this year's evaluation. Amongst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KNU has been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the longest time.

Ever since KNU's Architectural Engineering Major (Samcheok) obtained 'A Grade' in the evaluation 4 years ago, it has worked to provide an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the industrial field. In order to respond to industrial needs, KNU has reorganized the curriculum by expanding opportunities in the

actual field to gain hands on experience through employment and start-up programs along with field training.

In the evaluation conducted in 2019. KNU was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in the field of food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Division of Food Biotechnology and Biosystems Engineering, Department of Food Science & Biotechnology). ▲Additionally, in 2018 KNU was evaluated as the best university in the field of biopharmaceuticals (School of Biomedical Science, Division of Biomedical Convergence). ▲In 2017, KNU received the same markings in the fields of Electronic semiconductor (College of Information Technology, Department of Electronics Engineering), Refinery Petrochemical (College of Engineering,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and Cosmetics (College of Health Science, Department of Department of Herbal Medicine Resource). ▲In 2016, KNU's Division of Architectural,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succeeded to receive the best university in Architecture (Construction), ▲In 2015, KNU was awarded as the best university in the food division (Department of Food Science & Biotechnology).



## 삼척캠퍼스 「도계 대학도시 조성사업」 첫 발 내딛다

Samcheok Campus takes the first step in building Dogye University City Development Project

강원대학교와 삼척시는 2월 16일(화) 삼척시청 상황실에서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양여 협약식」을 개최했다.

강원대와 삼척시는 해발 860m 고지에 위치한 강 원대 도계캠퍼스와 도계읍내를 연계해 재학생들 에게 더욱 편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폐광지 역 활성화를 위한 '도계읍 대학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계 대학도시' 조성의 첫 번째 사업인, 「도계 복합 교육연구관」은 도계읍 전두리 옛 석공 평화사택 부지에 2019년부터 약 80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47㎡ 규모로 2020년 12월 준공됐다. 강원대와 삼척시는 「도계 복합교육연구관」이 폐광기금으로 조성된 만큼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하는 '도계 대학도시 조성사업'의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강원대는 도계 복합교육연구관에서 도계캠퍼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수업을 비롯해 ▲재학생 RC(Residential Campus)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맞춤형 Open Class 강좌 개설 ▲보건과학대학 전공봉사활동 등을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양호 시장은 "강원대학교와의 지속적인 협의· 노력과 폐광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힘입 어 건립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도계 복합교육 연구관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성공사례로 평 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헌영 총장은 "대학과 삼척시, 지역주민들의 하나 된 염원이 오늘의 복합교육연구관 양여 협약식을 있게 한 것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복합교육연 구관 건립이 도계 대학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Samcheok City held the Concession Ceremony for the Transfer of Dogye Complex Education Research Center in the situation room of Samcheok City Hall on February 16 (Tue).

G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Sam-

cheok City have been promoting the "Dogye-eup University City Project" to provide a more comfortable learning environment for enrolled students while revitalizing the abandoned mine area by connecting the Gangwon University Dogye Campus, located at an altitude of 860m, with the Dogye-eup area.

The Dogye Complex Education Research Center」 which is the first project in creating the 'Dogye University City', finished began construction on 2019 and finished on December 2020. A total of 8 billion won was invested to build the center on the site of the old mason peace house in Jeondu-ri, Dogye-eup. The building consists of a basement level, is 3 stories high and the total floor area is 2,447 m². As the 「Dogye Complex Education Research Center」 was build with the fund made from the abandoned min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Samcheok City hopes that it will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the "Dogye University City Development Project," which promotes mutual growth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communiti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utilize the center to offer liberal arts classes for freshmen at the Dogye campus, ▲operate RC (Residential Campus) programs for enrolled students, ▲offer open class courses tailored to local residents and ▲employ it as a place to carry out volunteer activities related to their major for students at College of Health Sciences.

Mayor Yang-ho Kim said, "We were able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through continuous discussions and collaborative hard work with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local residents of the abandoned mine area actively participated as well. I will do my best so that the Dogye Complex Education Research Center will be evaluated as a successful case of co-prosperity between regions and universities."

President Heon-young Kim said, "I think the concession ceremony for today's complex education research center is truly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byproduct of the unified desire of the university, Samcheok city and the local residents. I expect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lex Education Research Center to serve as a cornerstone for the successful promotion of the Dogye University City Project."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36 Korea NU10 MAGAZINE 37



#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다시 뜨겁게! 다시 자랑스럽게!

Bringing Back KNU Pride and Glory

HOMEPAGE www.knu.ac.kr SNS www.facebook.com/ knuofficial1946



##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선정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elected for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경북대학교는 대구시(시장 권영진)와 함께 정부 부처합동사업인 '2021년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총 1,204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경 북대 서문 일대는 연구개발:기술 창업 및 지역 협 력 기능이 합쳐진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예 정이다. 특히 대구시는 도심융합특구 사업 및 도 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이 사업으로 경북대 서문과 옛 경북도청 부지, 삼성 창조캠퍼스를 잇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앞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대가 제안한 캠퍼스혁신파크는 총 3만2,000 ㎡ 규모로, 경북대 제2운동장 일대에 조성된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로 총 2단계(1단계 2021~2027년, 2단계 2027~2030년)로 구분해 추진된다. 1단계 사업에서 산학연혁신허브센터, 전문R&D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이 조성될계획이다. 건축면적 2만2,000㎡ 18층 규모인 산학연혁신허브센터(경북대 ACT메인센터)에는 100여개의 기업연구시설, 창업보육, 사업지원 및 레지던시 공간이들어서며, 2022년에 착공해 2024년 준공된다. 2027년 이후 조성 예정인 2단계 사업에는 기업연구소와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대학과 지역의 특화산업 분야를 위한 2개동(Future NEST, Tech-Summit)이 추가로 건립될 예정이다.

경북대는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으로 AI(인공지능), ICT 및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기술혁신 핵심 인프라와 R&D시설, 혁신인재 양성, 창업 및 기업성장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과 인재가 먼저 찾는 혁신의 산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신규일자리 3,000개, 500여 개 보조일자리, 20~30대 청년층 고용비율 65%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Daegu Metropolitan City (led by Mayor Kwon Young-Jin) an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NU) have been selected to undertake the joint government-ministry project, '2021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With a total funding of KRW 120.4 million, the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es will be established at the West Gate of KNU to promote research development,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start-ups. Along with the revitalization of the former G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site and Daegu Samsung Creative Campus, KNU's West Gate campus innovation park is expected to lead Daegu City's initiatives on 'Special Convergence Zone Development' and 'New Deal on Urban Regeneration.'

The total area of the campus innovation park is set to be 32,000 m<sup>2</sup> on the grounds of the 2nd Sports Ground at KNU's West Gate, and the project is to be administered in two phases: the length of the first phase will be from 2021~2027 and the second phase from 2027~2030. In the first phase, construction will commence in 2022 and finish in 2024 with the establishment of complexes including the Industrial-Academic Innovation Hub Center, R&D Center, and Business Incubation Center. With 18 floors and an area of 22,000 m², the Industrial-Academic Innovation Hub Center(ACT Main Center) plans to hold around 100 corporate research facilities, business incubators, support systems, and residencies. The second phase administered after 2027 will focus on the expansion of 2 new buildings (Future NEST, Tech-Summit) comprising the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and Startup Support Center.

Through the founding of this campus innovation park, KNU aspires to build an innovative infrastructure comprised of high-quality support systems with a focus on AI, ICT, and Big Data that both businesses and specialized individuals seek to find.

## 2040 탄소중립캠퍼스 조성 선언!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o Build 2040 Carbon Neutral Campus!

경북대학교는 지자체와 민간기업과 손잡고 탄소 중립과 지역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2040 탄소중립 캠퍼스' 조성을 선 언했다.

경북대는 대구광역시, 현대일렉트릭, 태영건설과 '대학캠퍼스 탄소중립 공간 조성사업' 공동 추진 을 위한 업무 협약을 5월 10일 경북대 본관 5층 중 앙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 학 관이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 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북대 의 '탄소중립 캠퍼스'는 민간주도 차세대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이다. 주관기관 인 경북대는 탄소중립 R&D 기반 조성 및 인재 양 성, 산업화를 지원하고, 대구시는 정부 정책 공조 와 규제 해소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참여기 관인 현대일렉트릭과 태영건설 등이 1,500억 원 을 투자해 제로에너지 빌딩 구축, 캠퍼스 마이크 로 그리드 구축 등을 지원한다. 향후 다양한 국비 지원사업 수주 등을 통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북대는 2017년 기준 배출전 망치인 순 배출량 2만6,363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2040년까지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000여 명의 에너지 융복합형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에도 함께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북대의 성과는 대구 관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로 탄소중립을 확대해 향후 대구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스마트 그린시티, 스마트 산단을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s recently partnered with private enterprises and the local government to build the first carbon neutral campus in Korea to promote carbon neutrality and regional energy industries.

The agreement on 'Developing Carbon Neutral University Campuses' between KNU, Daegu Metropolitan City, Hyundai Electric, and Tae Young E&C was established on May 10th at KNU's Central Conference Room. This university, industry, and government collaboration provides a new model that aligns with the national government initiative to transition into a carbon neutral society by 2050. Most notably, KNU's 'Carbon Neutral Campus' is to be a pilot project of the private sector facilitating an energy industrial ecosystem.

As the organizing institution, KNU will develop found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R&D) and foster specialists on carbon neutrality, while Daegu Metropoli-

tan City will offer administrative assistance and alleviate governmental regulations. Participating firms such as Hyundai Electric and Tae Young E&C plan to invest KRW 100 billion for the construction of a Zero-energy building and a campus Microgrid, while various governmental funds amounting to KRW 200 billion are also to be allotted to these sustainable development projects.

In undertaking the initiative on carbon neutrality, KNU aims to decrease the reported greenhouse gas emissions of 26,363 tons in 2017 to 0 tons by 2040, as well as nurture around 1,000 professionals on energy convergence and carbon neutrality. Furthermore, lasting effects are to be expanded not only to loca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but also to the entire city of Daegu, drawing the city closer to becoming a Smart Green City with smart industrial complexes.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38 Korea NU10 MAGAZINE



# 경상국립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통합으로 혁신과 상생의 길을 열어갈 경남의 국가거점국립대학

National Flagship University of Gyeongsangnam-do, opening the way to innovation and coexistence through integration

HOMEPAGE www.gnu.ac.kr

 ww.facebook.com/ smartGNII





39

## 경상국립대-광동제약-부산대, 대형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항비만 신소재 개별인정 건강기능식품 개발 위한 기술이전'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wangdong Pharmaceutical, and Pusan National University sign a hefty contract on technology transfer:

"TechnologyTransfer Contract for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ly Recognized Health Functional Foods for New Materials for Anti-Obesity."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부산대학교 산학협 력단-광동제약 등 3개 기관은 '항비만 신소재 개 별인정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 을 체결했다.

특허 및 기술 연구개발자는 경상국립대 원예학과 강남준 교수와 부산대 원예생명과학과 최영환 교 수 두 명이다.

강남준 교수는 "이 신소재는 기존에 개발되지 않은 신규 품종으로 동물실험 결과, 다른 항비만 기능성 원료 대비 낮은 농도에서도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라고 밝히고 "부산대 최영환 교수와 함께 10여 년 동안 연구해온 것이 결실을 맺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강남준 교수 등에 따르면, 이번에 계약 체결하는 신물질은 비만동물모델 대상 항비만 효과 측정 결과, 체중 및 복부피하지방 감소와 간조직·지방세포의 지방축적억제 효과를 보이면서도 간과 신장의 부작용은 거의 없어 항비만약 약학적 조성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높은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 광동제약은 축적된 연구개발 노하우를 활용해 이신소재 추출물 기술을 적용한 체지방 개선 개별인 정형 건강기능식품 상품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기준 국내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약 1,000억원 대로 추정된다.

Three institutions, includ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Group, Pusan National University (PNU)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Group, and Kwangdong Pharmaceutical, signed the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for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ly Recognized Health Functional Foods for New Materials for Anti-Obesity."

The patent and technology R&D researchers are GNU Department of Horticulture Professor Kang Nam Jun and PNU Department of Horticultural Bioscience Professor Choi Young Whan.

Professor Kang said, "This material is a new kind that has not been developed previously. Animal experiments confirmed that it has the effect of reducing body fat even at a lower concentration than other anti-obesity functional ingredients. What I have been studying for 10 years with Professor Choi at PNU has come to fruition."

According to Professor Kang and others, the new substance contracted reduces weight and abdominal subcutaneous fat and inhibits fat accumulation in liver tissues and fat cells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anti-obesity impact in an obese animal model. However, it has almost no side effects on the liver and kidney. As a result, it showed a high potential for use as a pharmaceutical ingredient for anti-obesity drugs or health functional foods.

Kwangdong Pharmaceutical announced plans to develop a product called "individually recognized health functional food for reducing body fat" by applying this new material extract technology using its accumulated R&D expertise. As of 2019, the local market for body fat reduction health functional food is estimated at USD 89 million.

**'2021년 진로체험버스' 경상권역 운영 기관 선정** 대학 유일하게 선정··· 사업비 1억3.000만 원

2021 Career Experience Bus selects in Gyeongsang Area: GNU, the only university chosen with USD 115K 경상국립대학교는 교육부의 진로체험 격차 해소 프로그램인 '2021년 진로체험버스 사업'에 대학 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경상국립대는 2021년 진로체험버스 경상권역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3,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경상국립대 입학처는 2017년부터 대학진로탐색 캠프 운영기관 4년 연속 선정, 지역특화진로체험 프로그램 4년 연속 운영 대표기관 선정등 진로체험 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 기부와 지역사회 공헌을 끊임없이 수행해왔다.

이광호 입학처장은 "입학처가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진로 탐색과 체험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들 이 2021년 진로체험버스 경상권 운영기관 선정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대외적으로 교육 기부 역량 을 인정받은 쾌거"라고 설명했다.

이번 진로체험버스 사업 기관은 1차 사업 운영 계획서 평가로 권역별 심사 대상 기관을 추려낸 뒤, 2차 발표 면접 평가(온라인)로 최종 선발했다. 기관·대학들이 치열하게 경쟁한 결과 선정 기관 중대학으로는 경상국립대가 유일하게 진로체험 버스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대학들이 소외지역 진로 체험 사업을 포기할 때도 경상국립대는 온라 인으로 진로탐색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 외지역 학생들의 꿈과 끼를 지원해 왔다. 이번 진 로체험버스 사업 선정 또한 그런 역량을 대외적으 로 인정 받은 것이다.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was the only university selected for the "2021 Career Experience Bus Project," a program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bridge the career experience gap.

Selected as a running institute in the Gyeongsang area for the Career Experience Bus in 2021, GNU will receive USD 115,700 for project expenses. Since 2017, the GNU Admission Office has continuously made education donations and contributions to the community by bridging

the career experience gap after being chosen as a university career exploring camp—running institute and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for running a specialized regional career experience program for four consecutive years.

Director of Admission Office Gwangho Lee explained, "The courses that the admission office has been trying to explore and experience career paths for underprivileged students played major roles in being selected as the operating institute for the Career Experience Bus in the Gyeongsang area in 2021. It is a splendid achievement that has been recognized for its capability to donate to education externally."

The first step in the Career Experience Bus selection was choosing the institutions to be screened by region by evaluating their business operation plans. After the initial screening, the process further involves a second presentation and interview evaluation (online) for selection. As a result of the fierce competition between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GNU was the only university chosen as a career experience bus operator.

Even when other universities gave up career experience projects in disadvantageous areas because of COVID-19 last year, GNU has developed online programs to support students' dreams and talents. Its selection for the Career Experience Bus project proves it has such capabilities externally.







Korea 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40 Korea NU10 MAGAZINE 41



#### 시대를 열어가는 담대한 지성 Leap forward, PNU

Audacious Intellects Leap forward, PNU

HOMEPAGE www.pusan.ac.kr SNS https://www.facebook.com/ PusanNationalUniy



## 부산대 주도 「국립대 회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국립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국유재산 매각대금 대학 귀속 가능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Act Led by PNU Has Been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Proceeds from the Sale of State-owned Property Acquired with the National University's Own Funds Can Be Retained by the University

국립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의 처분 수입금을 대학회계 세입으로 귀속해 대학의 발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대학교는 그동안 열악한 국립대학들의 재정난 타계를위해 이 개정안 통과를 적극 주도해 왔다.

기존 대학회계법에 따르면, 국립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에도 국유재산으로 보아 매각을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금으로 정부로 귀속돼 대학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국립대학 총장들은 대학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대금을 대학회계로 귀속시켜해당 대학의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수년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법령 개정을 촉구해 왔다.

특히, 부산대는 이 과정에서 열악한 재정난에 시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 한 재원 확충 방안으로 이 법률 개정을 최초로 제 안하고 지속적으로 국회를 설득하는 등 개정을 적 극 주도해 왔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에 달려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열악 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국립대학이 더욱 발전하고, 대학의 발전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골 고루 균형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 의미를 평가했다.

On February 26, a partial amendment to the Establishment of Accoun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of National Universities Act has been passed in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act allows national universities to vest the proceeds from the disposal of stateowned property acquired through their own funds in the university's accounting revenues and use them as financial re-

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universit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actively leading the passage of this revised bill to help poor national universities overcome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In the case of the existing University Accounting Act, even when a national university sold property acquired with its own financial resources, the proceeds of the sale became income for the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fund which returns to the government. Thus, the university could not unilaterally use the proceeds because the funds acquired were regarded as state-owned property.

In recent years, the presidents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have continuously urged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amend the laws, so that if they sell state property acquired through the university's own financial resources, the proceeds of the sale can be added to the university accounts and used as a financial re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In particular, PNU has taken an active role in changing the rules by proposing amendments to the laws for the first time. PNU has continuously worked to persuade the National Assembly as a way to expand the financial resources available for the development of all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many of which are suffering from serious financial difficulties.

Cha, Jeong In, preside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expressed his evaluation of this change stating,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or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Korea depends on the role and development of national universities. I hope that this amendment to the act will help the national universities in financial difficulty to develop more. Also all regions of our country will have an opportunity to be developed evenly and in balance based on these universities' development."

## 「BK21 스마트강의실」 부산대 13곳 구축 대학원 교육환경 혁신 첨단 시스템 도입

13 Establishment of *BK21 Smart Lecture Room* in PNU PNU Has Introduced Advanced System for Innovative Educational Environment for Graduate School

2020년 교육부의 '4단계 BK21사업'에서 전국 대학 2위를 달성한 부산대학교가 대학원생의 연구·교육을 위한 전용공간과 교수·학생들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첨단시스템이 도입된 「BK21스마트강의실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

부산대는 대학원 혁신 고도화를 위해 4단계 BK21 사업 1차년도 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13개 스마트 강의실을 구축하고 올해 3월 신학기부터 활용에 들어갔다.

부산대는 BK21 대학원혁신사업의 교육몰입도 증진을 위한 스마트 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BK21 스마트강의실'을 구축했다. 부산대 대학원혁신실은 4단계 BK21사업에 참여하는 교내 교육연구단(팀)을 대상으로 BK21 스마트강의실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13개 강의실을 선정했다. BK21 스마트 강의실은 부산캠퍼스 11개실, 밀양캠퍼스 2개실에 각각 설치됐다.

이번에 구축한 BK21 스마트강의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갈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방식의 수업방법(PBL, TBL, BL 등)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첨단 강의실로,학습자 참여 중심의 혁신적인 수업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를 위해 벽면 글래스 보드, 개인용 디바이스 활용 가능한 미러링 시스 템 등을 갖췄으며, 학습활동 추적 녹화시스템을 통해 교수자의 강의내용을 녹화할 수 있다. 그 외 에도 1인용 책걸상, 전자칠판, 전자교탁, 단초점 프 로젝터 등의 기자재 교체를 통해 최상의 환경에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Pusan National University, ranked 2nd among universities nationwide in the 4th stage BK21 (Brain Korea21) Projec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2020, has completed the *BK21 Smart Lecture Room Construction Project*. The project has introduced a dedicated space for research and education for graduate students and a state-of-the-art system for interactive communication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PNU has built 13 smart classrooms with a budget of 1 billion won in the first year of the 4th stage BK21 project in order to encourage graduate school innovation. These classrooms began to be used in the new semester in March this year.

PNU has established the BK21 Smart Lecture Room program to help create a smart environment to enhance the educational immersion in BK21 graduate school innovation projects. The PNU Graduate School Innovation Office selected 13 classrooms after receiving applications for the *BK21 Smart Lecture Room* from the oncampus educational research teams participating in the 4th stage BK21 project. 11 BK21 smart lecture rooms were installed on the Busan campus and 2 rooms were installed on the Miryang campus.

The newly built BK21 smart lecture rooms are state-of-the-art classrooms with an environment where various teaching methods (PBL, TBL, BL, etc.) can be implemented to reflect the diverse learning needs of learners who will be leader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roject introduced a system that can employ these innovative classes for learner-centered teaching methods.

In order to encourage learners to actively participate, the classes have been equipped with a glass board on the wall and a mirroring system that can be used for personal devices. Similarly, the contents of instructor lectures can be recorded with the learning activity tracking and recording system. In addition, PNU has replaced other classroom equipment such as individual desks, an electronic blackboard, an electronic lecture desk, and a single-focus projector so that each class can occur in the best learning environment possible.





42 Korea NU10 MAGAZINE Korea NU10 소개 Introduction to Korea NU10

# INTRODUCTION KOREA NU10

## 서울대학교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 총장 오세정 President Oh Sejung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 1946년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을 갖춘 국내 최초의 종합 국립대학교로 출범
- 1975년 관악캠퍼스 설립으로 캠퍼스 종합화 달성
- 교육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선도
- Established as the first national university with 9 Colleges and 1 Graduate School
- · Centralized dispersed campuses in Gwanak
- · Played centr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 충청남도



#### 총장 김수갑 President Kim Sukab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Korea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 1951년 초급농과대학으로 시작, 2018년 신수도권 중심대학으로 도약 원년
- 2014~2018 학생만족도 1위(NCSI 조사),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설립 운영
- 조화, 품격, 미래를 바탕으로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를 그리는 충북대학교
- Beginning as a junior agriculture college in 1951, CBNU has leapt to its current status as a major university in the new capital area
- Standing as the No. 1 university in Student Satisfaction (NCSI Survey), from 2014 to 2018, CBNU has established and ran the Sejong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olicy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raws a Dynamic future based on the three core values of Harmony, Dignity and Future



#### 총장 김동원 President Kim Dongwon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96 Korea

- 1947년 인가된 도립 이리농과대학과 전주 명륜대학, 군산대학관을 모태로 개교
-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창의인재 양성
-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 2012, 2015, 2017년 학생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
- Founded as Iri Provincial College of Agriculture (1947), consolidated with Myeongnyun College (Jeonju) and Gunsan College (1952)
- Creative talents cultivated by innovative education platform
-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student service satisfaction by KS-SQI(2012, 2015, 2017)



#### 총장 송석언 President Seok-Eon Song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3243, Korea

- 1952년 도립 초급대학으로 시작, 도립 제주대학 승격 후 국립대학 이관
- 2008년 제주교육대학교 통합,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 교육기관 발돋움
- 경쟁력 있는 지식창출로 국가발전 선도
- In 1952, Jeju Provincial Junior College was founded. It became the four-year Jeju Provincial College in 1955 and designated as a National University in 1962
- Merged with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08. Become a world-class university alongside Jeju, a free international city
- Leading national development with competitive knowledge creation



#### 총장 이진숙 President Jin-Sook Lee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34, Korea

- 1952년 도민의 일두일미(一斗一米) 운동으로 설립, 대덕연구단지에 위치
-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대학으로 성장 목표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착수, 세종특별자치시에 캠퍼스 설립
- Established through the rice donation campaign by every resident in 1952 in Daedeok Science Town
- •The goal is to be the leading university of Korea spreading toward the world together with the residents
- Construction of Sej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tarted. The campus will be constructed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제주도

- 1952년 도민 고등교육 열망으로 설립, 호남 제일의 거점국립대학교로 성장 • 자유와 평화 민주 인권 수호, 한국 민주주의 발전 주도
- 4차 산업시대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 Since its foundation in 1952 upon the desire of the local citizens for higher education, CNU has become the top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in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 CNU has led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safeguarding the nation's freedom,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 Fostering creative convergence talents in the 4th industrial era





춘천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부산

대구

경기도

청주

대전

전라북도

#### 총장 차정인 President Cha, Jeong In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46241, Korea

• 1946년 5월 15일 국내 최초 종합 국립대학으로 출범

경상남도

- 진리·자유·봉사의 건학 이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 6개 학문분야 QS평가 세계 101-200위권, 융합과 통섭형 엘리트교육
- The nation's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on May 15th, 1946
- Guided by the university's founding values of truth-freedom-service to become a global research-oriented university
- Six departments are ranked in the top 101~200th by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Elite education through the fusion and convergence of disciplines



###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총장 김헌영 President Kim Heonyoung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1 Kangwon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4341 Korea

- 1947년 춘천농업대학 출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건학 이념
- 춘천·삼척·도계 3곳의 멀티캠퍼스 체제 구축
- 거점국립대 취업률 1위(2018년 1월 정보공시 기준)
- Established Chuncheon Agricultural College in 1947, with the founding spirit of the quest for truth based on practical science

43

- Integrated three campuses in Chuncheon, Samcheok and Dogye into a multi-campus system
- Achieved No.1 employment rate among loc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Based on the information notice in January 2018)



#### 경북대학교 KN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총장 홍원화 President Won-Hwa Hong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Korea

- 1946년 9월 국립대학 승격(대구사범대학,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
- '진리·긍지·봉사' 교시로 글로벌창의인재 '첨성인' 양성
- QS 세계 대학 취업능력 랭킹 국내 7위
- Upgraded to National College in September 1946 (comprised of the Colleges of Education, Medicine, and Agriculture)
- KNU established the concept of the talented, globally creative student, or 'Cheom-seong-in', under KNU's Educational philosophy of 'Truth, Pride, Service'
- KNU ranks 7th in Korea in the QS World University Employability Rankings



#### 당 경상국립대학교 GNU

विश्वरिक्षण्डिक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총장 권순기 President Soon Ki Kwon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33

33, Dongjin-ro, Jinju, Gyeongsangnam-do, 52828 Korea

- 2021년 3월 1일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통합
- 생명과학, 항공기계시스템, 나노신소재·화학분야 국내 최고 경쟁력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경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대학 • On March 1, 2021, forme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nd
-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erged int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Korea's best competitive potential in the fields of life sciences,
- aerospace & mechanical engineering, nano &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and chemistry
- •The leading university for Gyeongman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a regional innovation project based o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universities